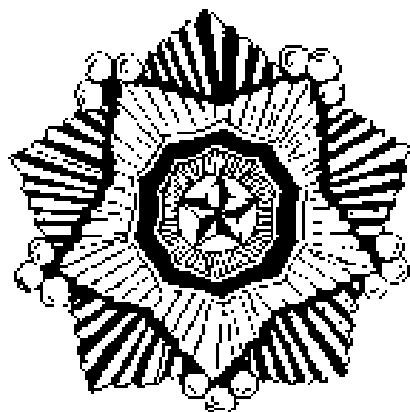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6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6호

(루계 제 680 호)

## ◆◆◆◆◆◆◆◆◆◆ 차 례 ◆◆◆◆◆◆◆◆◆◆

40 성상은 말한다.....	4
빛나라, 6 월 19 일이어!.....	5
백두산은 3 대장군 모습.....	7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 한다.....	8
물이 흘러 하늘이 흘러.....	8
백두벌의 감자꽃바다.....	9
봄의 우뢰.....	10
마흔해의 명마루에서.....	20
내 삶의 6 월.....	20
내 마음의 영원한 불빛.....	21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작가대오로.....	22
장군님은 우리의 생명.....	23
백두산으로 가는 길.....	24
막장길 20 리.....	24

몸소 지으신 두벌농사.....	25
투사들의 념원이 꽃핀 땅에서 .....	26
세기를 넘어 울리는 총소리 .....	27
염분진전설 .....	28
통일 6. 15.....	29
붉은기수호의 철령에 대한 시의 철학세계 .....	30
점 검 .....	34
맑은 하늘 .....	35
동행자들은 말한다.....	44
명언해설 .....	49
불 .....	50
위대한 령도자 <b>김정일</b> 동지의 명언 .....	51
매혹된 심장의 노래 .....	52
우리는 하나.....	56
당과 수령앞에 고지식한 사람이 되자.....	57
총각시절 외 1 편 .....	62
0.75 평 .....	62
운명의 계곡 .....	63
노 을 .....	69
내 나라의 무궁한 세월속에 .....	70
정보로 걸어라 .....	71

# 40 성상은 말한다

김송남

어느덧 그렇게  
세월이 흘렀단 말인가  
추억깊고  
감회도 새로운  
못잊을 그 날과 달들이

수수한 차림으로  
그렇게도 조용히  
그이께서 당중앙위원회에 들어서신  
그날로부터  
그날로부터 40성상

전변의 세월이었다  
승리의 세월이었다  
백두에서 휘날려온 그 붉은 기폭이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더 높이 더욱 세차게 휘날려온...

그이 아니셨다면  
그 누구도 헤치지 못했으리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잡으시고  
대를 이어 활짝 열어오신  
조선의 길 주체의 한길

위대한 **김정일**동지  
오직 그이께서만이  
천리혜안의 예지로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강철의 담력으로 첩첩시련을 쓸어버리시며  
자욱자욱 위대한 헌신으로  
빛나는 오늘을 안아오셨나니

잊지 못하노라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대강을 무르익히시던  
무포의 낚시터 물소리 정갈한 그 기슭을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일심의 위력을 다져오신 그 먼 길을

천리만리를 장군님과 함께 걸은  
우리 인민이었어도  
췌기밥과 쪽잠으로 이어오신 그 길우에  
그이 바치신 심혈  
그 천만분의 하나인들 헤아릴수 있으랴

걸으시는 한자욱한자욱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이 실려있고  
맞고 보내시는 날과 달에  
우리 조국의 미래 천만년이 이어져있었기에  
총대중시의 수령님 뜻을  
선군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시어  
위대한 새 시대를 펼치신분

총대를 앞세우시어  
마치와 낫, 붓대의 힘을 새롭게 버리셨어라  
혼연일체 그 숨결속에  
수령, 당, 대중이 하나가 된  
이 위대한 힘을 세상에 펼치셨어라

70년대 80년대 그 나날에 이어  
안변의 물길굴을 열며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쳐올랐고  
강계정신의 불바람을 타고  
성강과 라남의 봉화가 타오른 시대  
그것은 세상 어려운 시련속에서  
조선의 모습이 더 억세게 솟구쳐오른 40년

아, 40성상은 말한다  
이 세월우에  
내 나라 반만년력사의 위대한 시대가 살고  
이 세월우에  
**김일성**조선의 천만년 미래가  
주체의 이름으로 빛발친다고!...

## 빛나라, 6월 19일이여!

홍현양

날과 날이 세월을 이루고 세월과 세월이 년대를 낳으며 나무가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룬다.

사람들이 태어나 자기의 생일을 가지고있듯이 우리가 잊지 못하는 운명공동체의 날이 세월을 이루고 위인의 자욱이 새겨진 그런 날이 시대를 창조하고 세기와 세기로 이어지는것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수수한 옷차림을 하시고 평범한 날인 주체53(1964)년 6월 19일 그날에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신 그 순간은 주체혁명위업의 밝은 앞날이 그대로 열린 날이다.

위인의 자욱이 찍혀진 날과 달은 시대를 창조하고 세기를 빛내인다.

우리는 그래서 6월 19일 이날을 사랑하고 이날을 잊지 못하며 우리 당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에도 특혜와 특전을 모르시였다.

우리 혁명의 계승은 평범한 날, 평범한 방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며 위대한 오늘을 낳고있었다.

그날에 우리의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신 그 책상과 결상은 다른 일군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우리의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한몸에 안으시고 이렇게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시였다.

그날이 6월 19일이다.

선군의 폭풍치는 새 시대가 창조되고 《고난의 행군》의 피눈물나는 언덕을 넘어선 우리의 자랑찬 새 력사도 이날에 잇닿아있다.

첫썩이 움트는 날을 봄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은 즐긴다.

우리에게 주체의 푸른 하늘과 그 냇을 지니고 사는 이 땅에 사품치는 강물이 떨어지며 전기의 불꽃을 날리는 발전소들과 불빛밝은 아담한 마을들을 가슴뜨겁게 바라보는 오늘을 우리는 그 봄에 비긴다.

어려웠던 고난의 나날 이 나라 집집의 부뚜막 가마앞에서 이 나라 녀인들이 말없이 눈물을 치마폭으로 닦고있을 때 우리 민족의 아픔을 선군의 총대로 가시여준 새로운 정치방식도 이날에 있었다.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 우리의 심장속

에 고이 간직되어있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앉으시였던 그 수수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상과 결상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있다.

력사는 위인이 위인을 잘 안다는 격언을 남기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혁명을 오래 한 나라들에서도 자기 수령의 혁명위업을 말살하고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당활동을 진행하는것을 부정해버리고있을 때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을 대를 이어 곳곳이 걸어나갈수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동지가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과학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그 사상으로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여주는 태양이다.

태양의 이 빛과 열은 태양만이 이어받을수 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의 빛을 이어 받는 후계자의 심장속엔 오직 태양만이 자리잡고있어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모든 사색, 모든 활동원칙을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바치시였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자질과 풍모가운데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수준도 높고 령도에술도 능하며 인민적풍모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김정일**동지는 자신께서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충실성에 대하여 하신 긍지높은 찬가이다.

위인이 위인을 안다는 력사의 격언은 이처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주체조국의 산 현실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혁명하는 당은 혁명하는 인민을 키우고 혁명하는 당의 모습은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에 비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이며 우리 조국이며 필승불패의 우리 혁명무력이다.

천재적예지는 세기를 밝히고 미래를 환히 내다 본다.

이와 함께 천재적지략은 천만군사를 키우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그 어떤 대적도 한손에 거머쥐고 쥐락펴락한다.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그 천재적예지와 지략을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 빨찌산의 아들이시다.

위인의 인격의 높이는 철학과 사상의 높이에 있다.

우리 장군님의 예지와 지략은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빨찌산 우등불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들려주시는 전설이야기들에서 천재적인 슬기와 지혜를 지니시였고 원쑥격멸의 총소리들에서 담력과 배짱을 키우시였다.

락엽이 지는 가을과 꽃이 피는 봄이 수십, 수백번을 이어지고 바뀔다 하여도 우리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슬기와 예지, 백두산의 지략으로 이 모든 자연의 변화를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주체의 요구대로 길들이신다.

세계를 둘러보시라.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이 사람중심의 철학을 발견하고 그 철학에 기초하여 문학과 예술, 경제와 군사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한 그런 려가 있었던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을 찍으신 그날이 있기때문에 우리 조국, 우리 당은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할 수 있었다.

위인의 예지의 빛발로 인류가 이처럼 바라던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봄을 이 땅에 꽃피울수가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우리는 이 봄날의 첫 주인들이라고 당당히 말할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피어린 항

일혁명의 력사는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한 전 인미답의 길을 아로새기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으로 창작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펴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이것은 인류문학사에서 그 누구도 이룩할수 없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개척하실수 있는 영광찬란한 주체문학의 길이다.

거지가 없고 고아의 눈물이 없고 병이 나도 돈걱정이 없고 세금을 모르는 사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지로 평등하게 사는 권리를 주신 위대한 아버지, 이 평등의 모체는 우리 당이다.

이처럼 위대한 당을 창건하신 수령님의 대를 이어 우리 당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출위인이시다.

참으로 위대한 태양을 모시고 사는 우리 사회의 산 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작가는 자기의 수기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누구를 보아도 다 명랑하다는것을 알수 있고 배불리 먹고있으며 사나운 기색이 없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규률이 있다.

내가 보건대 이 규률은 길들여진것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있는것이다.

규률은 뼈와 살로 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동체가 되어 화목하고 규률있게 살고있는 우리 조국의 한 측면을 실감있게 쓴 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집은 기초가 든든해야 만년대계를 담보한다.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쌓으시였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울리시고 새로운 우리 식가극과 혁명연극들을 창조하시여 《20세기 문예부흥기》를 마련하신 그 위업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리라.

선군의 기치가 세차게 휘날리는 주체의 우리 조국도 6월 19일 력사의 이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선군의 첫 자욱으로 다박솔 초소를 찾으신 그 길은 총대로 개척한 우리 혁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단호한 결심이 선택한 선군장정의 길이었다.

이 길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헤쳐넘었고 우리 장군님 타시고 351고지와 1211고지, 오성산의 최전연병사들을 찾아가시였던 야전차와 쥬기밥의 전설도 태어났다.



병사들이 입은 솜옷도 만져보시며 바늘구멍으로 바람이 숨새여들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버지의 병사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우리 장군님처럼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철령도 넘으시고 오성산의 굽이굽이 칼벼랑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리지 않으시고 오가신 최고사령관은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에도 없는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며 나도 인간이다, 그렇지만 나는 모든 일군들과 전체 인민이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있기때문에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다 희생시키고 집을 떠나 온 한해를 차안에서 쪽잠으로 새날을 맞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년 내내 현지지도의 길에 있었다고 하시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실이 울리고 천만인민은 태양의 사상과 인덕을 따른다.

1211고지와 351고지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야전차안에서 소박한 쥬기밥에 무우오가리를 드시며 인민을 위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었다.

어느날 일군들에게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치는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늘 소박하고 검소하게 식생활을 하시었다고, 그렇기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수수하게 살다보니 식찬으로는 다른 반찬보다도 무우오가리를 많이 하였다고 그렇듯 가슴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는 백두산총대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체질화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의 소박한 생활습성은 인민적이며 불같이 뜨거운 태양의 열을 안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사랑은 인민의것이라고 한

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사랑과 은덕을 총대사랑, 병사사랑이라고 긍지높이 말한다.

옛 병법에 이르기를 《무기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게 되며 군사가 쓸만하지 못하면 그 장수를 적에게 주게 된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버리어주신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의 창검은 타격에서 한계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원썬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그 어떤 도발자들도 매장해버릴 백두의 용암을 안고있다.

길이 빛나라, 6월 19일이여.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6월 19일이여!

이 땅을 뒤흔들며 울려퍼지는 혁명군가속에 6월 19일은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계속혁명의 길로 전진하는 선군기치우에 6월 19일은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의 장엄한 울림이 지구를 뒤흔든다.

...

아 세계여 아 들으라

아 조선은 아 말한다

새 세기를 이끄시는 선군태양

그 위업 총대로 떨치리라

아 빛나라

아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이어

## 가사

# 백두산은 3대장군 모습

김경준

성스러운 백두산 우리를 때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웁니다  
조국해방 총대로 이룩하시고  
사회주의락원 세운 영생의 모습

성스러운 백두산 우리를 때면  
어머님의 영상이 안겨웁니다  
결사옹위 붉은기 지켜내시고  
광명성을 안아올린 빛나는 모습

성스러운 백두산 우리를 때면  
장군님의 영상이 빛발칩니다  
주체위업 대를 이어 빛내가시며  
온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의 모습

아 태양의 성산  
백두산은 3대장군 기록한 모습

#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홍철진

우리 삶의 환희처럼  
분수는 창공높이 솟구쳐 오르고  
웃음소리 노래되어 물결 위에 출렁이는  
대동강반을 거닐며  
나는 이 땅이 떠올린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주체!  
부를수록 뜨거워  
그것은 수령님의  
한평생이란 말과도 같아  
우러르면 그 높이에 눈뿌리 아득하고  
다가서면 금시  
수령님 체온으로 이 가슴 후덥구나

젖어드는 눈길 들어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도  
수령님 력사위에 받들린듯 싶고  
강반에 넘쳐나는 밝은 웃음은  
수령님 한생토록 가꾸신  
떨기떨기 아름다운 꽃들만 같구나

그래서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쉬임없이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우러를 때면  
인민을 위해 낮과 밤을 모르시던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만 같아  
귀기울이면 그 박동소리  
들릴듯만 싶어라

그 위대한 심장의 뜨거운 열로  
우리 사는 이 땅이 더웁혀지지 않았던가

그 크나큰 심장에  
천만이 피줄기를 잇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것 아니라

이 탑아래서  
인민의 만복이 한껏 무르익었고  
이 탑우에는  
우리 운명의 천만년 미래를 비껴안고  
맑고 푸른 봄하늘이 펼쳐져있거니

위대한 한평생을  
이 땅에 깡그리 다 바치시고도  
한돌기 한돌기 한평생을 쌓으시여  
우리 운명의 하늘을 떠받든  
기둥을 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

우리 운명도 미래도  
주체의 이 기둥우에 다 있고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며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를  
수령님 아, 우리 수령님

선군태양이  
찬란히 빛뿌리는 우리의 하늘  
그 하늘의 기둥으로  
오늘도 거연히 서있는 주체사상탑!  
이 아래서 영원무궁할  
태양의 력사가 흐른다  
가장 긍지높은 인민의 력사가  
굽이쳐흐른다

주체93(2004). 4. 7

# 물이 흘러 하늘이 흘러

리연희

사품쳐 들끓으며  
췌- 물더미가 쏟아져내리는 소리  
흰 룡무리의 솟구침인듯  
아득히 일어난 대각연제우로

날아오르는 불안개 불안개...  
장쾌한 물결을 내 바래우며 섰노니

연연 400리



물길은 여기서 시작되는가  
정히 두손 잡그어 물을 떠드니  
여기에 다 담기였어라  
성룡강 마탄강 청단천...  
그 맑은 물에 비낀  
가없이 푸르른 저 하늘이

얼마나 기쁨에 넘치시였던가  
12월의 그날에 오시였던 우리 장군님  
얼마나 뜨거운 심중속에 불러보셨던가  
우리 수령님을

그리운 수령님과 함께 걷고싶으시였다  
사연도 많은 연풍호의 물길을 따라 열두삼천리  
사회주의대지로 펼쳐진 원화벌의 물길을  
대대손손 하늘을 우러러 비를 기다리던  
이 땅에 물을 주시려 하늘을 주시려  
수령님 걷고걸으신 그 자욱자욱을 따라

우리 장군님 그 자욱자욱을 이으시여

전선과 전선의 불줄기를 모으시던 작전도우에  
푸르른 강줄기와 물줄기를 모으시였던가  
하늘같은 그 마음을 기울여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신 물길이어

수령님의 소원이라면  
황금으로언제를 쌓아서라도  
천리물길을 내실 우리 장군님  
높은 령 험한 고지를 헤쳐가시는 전선길에서  
물을 이끌어 새 강줄기를 이끌어  
저 하늘까지 안아오시였구나

물이 흘러 하늘이 흘러  
굽이굽이 천만굽이  
수령님의 한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선군시대의 그 환희를 안고  
뜨거이 물결쳐흐르라  
천년만년 굽이쳐흐르라

주체93(2004). 4. 7

## 백두벌의 감자꽃바다

정성환

이랑이랑 천만이랑  
피고피여서  
백두벌 삼천리는  
흰꽃 보라꽃 감자꽃바다

탐스러운 감자꽃 바라보니  
향기는 내 마음에 젖어들고  
목메이는 고마움은 꽃잎을 적시누나  
찬눈을 녹여주신 장군님 자욱우에  
송이송이 놓여서 설레이는 꽃이어

고난의 날 래일의 꿈을 준 꽃  
그이의 마음속에 먼저 피여서  
백두벌을 수놓은 행복의 꽃  
귀한 열매 땅속에 간직한 너를 두고  
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겠구나

우리 장군님 사랑하시는 꽃  
수령님의 유혼 깃들고  
투사들의 땀이 어린 땅에 천만복을 먼저 쌓아  
인민의 무릉도원 꾸려주시려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신 꽃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우리 장군님 헌신의 자욱우에  
활짝 핀 행복의 꽃바다는  
그 사랑을 꽃잎마다 다 담고있구나  
내 마음에 그 사연을 말해주고있구나

아, 이 꽃에 오늘의 애국이 있어라  
이 꽃에 번영하는 우리의 래일이 있어라  
온 나라에 감자혁명 불길을 지펴주신  
그이의 사랑을 안고  
희망찬 앞날을 축복하는  
백두벌의 감자꽃 설레이는 꽃바다

너의 노래 저 푸른 방풍림 너머너머  
천리를 가거라  
너의 웃음 행복의 마을과 마을너머  
만리를 가거라 온 나라의 별로 가거라  
장군님 피워주신 강성대국 트랙의  
사랑의 꽃바다 은정의 꽃바다여!

## 봄의 우리

조상호

## 1

아침이슬을 함뿍 머금은 단풍든 나무잎들은 금시 떠오르는 햇빛을 받자 눈부시게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야전차는 썰판이며 아가위며 오미자며 하는것들이 빨강게 익어가는 산기슭길을 따라 전속으로 달리고있었다. 차안에는 군모밀으로 흰 머리칼이 희끗희끗 보이는 최진석장령이 앉아있었다. 백두산에서 싸울 때 자국이 아직도 퍼릿퍼릿 얼굴에 남아있는 그는 자기 힘이라도 보텔듯 육중한 몸을 지그시 앞으로 내밀다가 운전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속도를 더 높이라구.》

한생토록 눈비와 포연을 헤쳐온 로장의 웅글면서도 석씩한 목소리였다. 긴장해서 차를 몰아가던 치녀처럼 량볼이 발기우리한 운전사가 앞시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안타까운 소리를 했다.

《지금도 너무 과속입니다. 속도계를 좀 보십시오.》

아닌게아니라 속도계의 바늘은 오른쪽으로 힘껏 누워 파들파들 떨고있었다.

진석은 흠-하고 자기도 모를 소리를 내고는 두툼한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손으로는 무릎 위에 놓은 야전가방을 누가 어쩔세라 꼭 그러쥐었다.

이 야전가방속에는 며칠후에 진행할 군부대종합 훈련방안문건이 들어있다.

수령님께서 이번 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다고 인민무력부장인 최현이 몇번이나 강조하였는지 모른다. 진석은 군부대작전일군들과 함께 며칠밤을 꼬박 새우며 훈련방안을 완성하였다. 그리고는 어제 밤늦도록 훈련방안에 빈 구석이 없는가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그이께서 계시는 삼포지구로 떠난것이다. 물론 지금 삼포지구를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는 그이께서 몹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시리라는것을 모르는 진석이가 아니였다. 그이를 몸가짜이 모시고 일하는 리영준은 이제 가면 대뜸 미간에 주름살을 세게나 만들 어세울것이다.

《부대장동지, 지금 그이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알거나 합니까? 당사업, 경제사업, 군사, 외교, 문화... 그런데 부대장동지까지 이러시면 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번 훈련안만은 그이의 가르치심을 꼭

받고싶었다. 그래서 최현대장의 눈이 둥그래지게 하고싶었다. 며칠안으로 내려와 자기가 직접 훈련안을 검토하겠다는데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 완성하였다는것을 알리 없는 그는 어느때 늘 그러하듯 찌플사한 눈길로 무엇인가 못마땅한듯 내려다보다가 대뜸 입이 벌어질것이다. 어깨를 툭 치면서

《이 사람, 수태 발전했구만. 응? 이거 정말 동무 숨씨가 맞아?》 하고 못미더워할것이다.

그때면 난 시치미를 떼며 먼 산만 쳐다보고...

진석은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그렸다.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천품과 안목, 탁월한 령군술과 해박한 군사적식견에 대해서는 새 세대 군사지휘관들로부터 한뼉 총을 들고 싸워왔다는 항일의 백전로장들까지 모두가 경탄하며 손을 내흔드는판이다.

《말도 하지 마오. 김책동지가 괜히 그분을 어리실적부터 <장군> 이라 칭송한줄 아오? 전쟁전에 내가 38경비대 려단장을 할 때엔 이런 일도 있었지.

김석원이네가 자꾸 불질을 하면서 못되게 놀군 하길래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이놈들, 이 최현이 맛이 어떤가 좀 봐라 하고 개성까지 뺏다 쳐나간적이 있었단 말이요. 그때 수령님의 부름을 받고 댁에 가니 어리신 <장군> 께서 김석원이놈을 잡았는가고 물으시지 않겠소. 내가 그때 얼굴이 뜨끈해지더군. 뺏다 쳐나가니 그놈이 도망쳐버렸다고 사실대로 말씀들렸지. 그러자 어리신 <장군>께서는 그놈들을 포위했더라면 다 잡았을건데 하시며 아쉬워하시더군. 순간 나는 입을 딱 벌렸소. 그분의 말씀대로 정말 그때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형성했더라면 몽땅 다 잡아치웠을게 아닌가, 다시는 그놈들이 불질을 못해오게... 난 탄복하였소. 그때 그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오? 조국해방전쟁때에는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수령님의 주체전법을 배우셨지. 중학교와 대학시절에는 세계전쟁사를 다 꿰뚫었고... 정말 이 최현이 같은 사람 백, 천이 있어도 그분을 대신 못해. 별들이 수만개라도 태양을 대신 못하듯 말이요.》

언제인가 군부대장들의 회의끝에 최현이 흥분해서 하던 말이였다.

진석이기도 직접 목격한것이 있다. 언제인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 집무실에 찾아가니 그분께서는 뜻밖에도 《전쟁회상록》을 읽고 계시였다.

집무탁우에는 이미 보신듯 주코브의 《회상과 사색》이란 책이 놓여있고… 피륙 생각되는것이 있어 문이 반쯤 열려있는 책장을 열핏 들여다본 진석은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 책장에는 《미래의 전쟁》, 《전략학》, 《현대무장력과 그의 조직》, 《태평양 전쟁에서의 미국의 항공모함》, 《태평양전쟁사》,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도이칠란드의 제5렬》, 《진주만사건》… 등 군사관계분야의 서적들과 많은 병서들이 가득 꽂혀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탁월한 명군술과 전법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해오셨다는것은 이미 알고있었지만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가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렇듯 방대한 군사서적들을 탐독하고계시는줄은 미처 몰랐던 진석이었다.

그래 자연히 화제는 전쟁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는데 장군님께서 선행고전가들이 내놓은 군사리론과 장구한 인류전쟁사가 남긴 유익무익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시면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들의 독창성에 대해 말씀하실때 진석은 그만 너무 심취되어 당장 가르치심을 받아야 할것이 있다는것도 까마득히 잊고 《강의》를 받는데만 열중했었다. 참으로 그이의 군사적예지는 비범하시였다.

진석은 야전가방을 왼 손에 은근히 힘을 주며 더운것을 삼켰다. 마음은 차보다 앞서 그이께로 달리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찾아오라고 하시였지만 바쁘신분께 짐이 될가봐 지금껏 삼가해왔던 진석이었다. 그이를 오랜만에 뵈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버지를 찾아가는 아이의 마음처럼 기분이 저절로 봉 뜨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 2

《아니, 부대장동지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석이 그이께서 계시는 숙소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활개를 치며 걸어들어가는데 정문앞으로 리영준이 총총히 마중나오며 의아해서 묻는 말이였다. 진석은 자기도 모르게 (허, 또 이 사람한테 걸렸군.)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속으로는 쾅기는것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척 손수건으로 뒤통미의 땀을 훔치며 한손으로 야전가방을 들어보였다.

《급히 가르치심을 받을 일이 생겨서 찾아왔소. 지금 계시겠지?》

영준은 반갑지 않은듯 물끄러미 마주보다가 야전가방에 시선을 주며 아닐세라 량미간에 또 주름살을 모았다.

《그러니 부대장동지도 일때문에 왔군요.》

무척 피로와하고 안타까와하는 그 말투가 예견했

던것과는 또 다르게 들려 진석은 웃음을 겨두었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생겼소?》

영준은 대답대신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불부는 소리로 되물었다.

《꼭 만나보셔야 할 일입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럼 내가 뭐 한담이나 하러왔겠소?》

영준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더니 옆에 잡히는 측백나무잎사귀를 툭 뜯었다.

《사실 그이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그렇니다. 그이께서 지금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압니까? 낮에는 기관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구 저녁에는 일군들을 불러 협의회를 하시구 밤에는 또 문건들과 책들을 보시느라 꼬박 밝히시군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사업을 구상하시는것 같은데… 쉬실 짬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아침부터 련속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침 일찍 부총리동지가 왔다갔는데 이어 외교부에서 오구 또 문화예술부에서두 오구 이번엔 부대장동지까지… 사람들이 무슨문제가 생기면 제 힘으로 풀 생각을 해야지 모두 그이께만 매달리면 글썽 어떻게…》

진석은 갑자기 가슴이 쿵 마쳐오는것을 느끼며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땅바닥에 널린, 영준이 안타까와 자기도 모르게 뜯어놓은 측백나무잎사귀들이 망막을 침질했다. 진석은 슬그머니 야전가방을 뒤로 가져갔다. 낮이 후끈했다.

그렇단 말이지… 하긴 백두산에서 오래동안 수령님을 모시고 싸워왔다는 나까지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자고

일요일도 아랑곳없이 뛰어왔으니…

백두산시절의 전우들은 누구나 다 경애하는 그이를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받들어야 한다면서 그이를 모시는 일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그이의 안녕과 관련된 일에는 더더구나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최선을 다하고있다. 그런데 나는…

(최현동지가 이 사실을 알면 또 노발대발하겠군.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그런데… 중대한 일을 구상하시는것 같다구? 그것이 무엇일가?)

진석은 그이께서 계시는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문학예술혁명처럼 또다시 무엇인가 사변적인 일이 일어날것 같은 예감이 들며 가슴이 뻗뻗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진석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영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깨우쳐주어 고맙소. 내 돌아가겠소. 부탁인데 부디 지도자동지를 잘 모셔주우. 우리 항일의 로병들, 아니 우리 전체 인민이 그이의 안녕만을 바란다는것을 잊지 마오.》

다시한번 장군님께서 계시는 창문쪽을 바라보고는 영준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고나서 뺨 돌아섰다.

그러나 그이를 뵈지 못하고 간다고 생각하니 어떤 지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누를 길이 없었다. 진석은 스펙스적 차있는 곳으로 걸어나왔다.

진석이 차에 막 오르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찾는 소리가 났다.

《저… 부대장동지!》

진석은 발판에 한발을 올려놓은채 뒤를 돌아보았다.

《?》

영준이 조심스레 그러나 급하게 다가왔다.

《저… 부대장동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각별한 사이이지요?》

진석은 그의 새삼스러운 물음에 의아해서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왜 그러오. 우리 산에서 싸운 사람들치고 그분과 각별한 사이가 아닌 사람이 있나.…》

영준은 속소속을 한번 돌아보고나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럼 부대장동지가 좀 말씀드려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편히 쉬실수 있게… 부대장동지 말이라면 지도자동지께서도 들어주실수 있습니다. 낚시질이라든가 사냥이라든가, 오늘은 일요일인데 하루만이라도 부대장동지가 함께 좀…》

무슨 말인가해서 눈을 꺼벅거리며 듣고있던 진석의 주름진 얼굴에 그제야 호합진 미소가 확 피여올랐다.

진석은 영준의 어깨를 툭 치며 장담을 했다.

《좋아, 그 일이라면 내 자신이지.》

그리고는 사기가 나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씨엥씨엥 걸어들어갔다.

### 3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안녕하십니까?》

방금 문화예술부 일군에게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을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이미 보신 문건들을 간중그리시던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진석이 들어서며 인사를 하는 바람에 반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아바이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려던참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군님의 그 말씀에 진석의 입귀가 대뜸 벌어졌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를 만나시려 했더니 그 말씀만 듣고도 무작정 기쁘고 행복스러워지는 진석이였다.

(무엇때문일까? 혹시 영준이 말하던 그 중대한 구상과 관련되는 일때문이 아닐까?)

진석은 저오기 흥분되였다. 그렇지만 오늘은 영준이와 약속한대로 그이께서 휴식을 하시게 《작전》을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온몸을 바짝 긴장시키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신채 진석의 손을 잡아 결상들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였다.

《부인님이랑 집에서는 다 편안하십니까?》

《예, 다 잘있습니다. 우리 손자녀석이 이젠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그 <땅크>랑 <비행기>랑 가지고 방안이 좁다하게 돌아깁니다. 쉬운말들은 제법 잘 번집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몇달전에 장군님께서서는 말손자를 보았다고 기뻐하는 진석에게 장난감들을 보내주시였었다.

《두벌자식이 더 곱다는데… 기다리다 본 손자가 아닙니까. 잘 키우십시오. … 그런데 부대일은 잘됩니다. 종합훈련명령을 받으셨는지요?》

장군님께서서는 진석이 들고 온 야전가방에 눈길을 주시며 물으시였다. 진석은 왜서인지 야전가방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어쭙게 웃었다.

《부대일은 다 잘되고있습니다. 훈련준비도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온것은 그때문이 아니고… 사실 지도자동지께 부탁하고싶은것이 있어서입니다.》

에둘줄 모르는 그의 성미를 잘 아시는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신채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저도 짐작을 했습니다. 아무렴 아바이가 손자 자랑만 하자고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이란 무엇입니까?》

진석은 시무룩이 웃더니 손가락끝으로 관자노리를 슬슬 긁었다.

《글쎄 들어주시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

처음부터 응석조로 나오는 그의 말투가 어이없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허허허 하고 웃으시였다. 어찌된 일인지 항일의 로투사들은 만나기만 하면 곧잘 응석투로 나오곤 하는데 그럴 때면 장군님께서서는 도저히 그들의 정을 거절할수가 없곤 하는것이였다. 응석투로 나오는걸 보니 그 부탁이란것도 사업문제가 아니라 장군님자신에 대한 문제가 분명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을 예감하시였으나 어쩔수가 없으시였다.

《아바이부탁이라면야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집무탁족을 열끗 보시였다. 집무탁우에는 오늘 보기로 작성하신 책들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그리고 또… 부르신 일군들도 이제 연줄 달려울것이고.

《내 그러실줄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다른게 아니고 저하고 사냥경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낚시질경기를 하시던가…》

장군님께서서는 놀라시여 그를 다시 돌아보시였다.

《사냥경기를 말입니까?》

《예… 전 지도자동지께서 총을 기막히게 잘 쏜신다는것을 알게 된 오래전부터 버려어왔습니다. 오

늘은 한번 겨루어보았으면 합니다. 하루동안에 얼마나 잡는가를 말입니다.》

《하루동안이 나 말입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아연하시며 이렇게 반문하시였다. 그러나 진석은 장군님의 시선을 못느끼는척 시치미를 떼며 하루쯤은 사냥을 해야 진짜 실력을 알수 있다고 우기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격솜씨와 겨룰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빨찌산대원들속에서도 명사수로 소문나지 않았겠습니까.》

진석은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또다시 관자노리를 쓸쓸 굽었다.

《글쎄 그때는 꽤 총을 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하구는 겨루고싶지 않고 해서... 사랑준비는 영준동무에게 말해놓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더는 어쩔수 없으시였다. 이 아버지가 이미 물설틈없이 《작전》을 하고나서 로투사로서의 《특권》을 내대고있으니 이런 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것을 아셨기때문이었다. 잃어진 시간을 밤에 보충하실 방법밖에 없었다. 하긴 하루이를 내로 이 최진석을 꼭 만나리라 걱정하시였었으니 마침이기도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패히 승낙하시였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겨루어봅시다.》

#### 4

영준은 모처럼 장군님을 모시고 《사냥경기》를 떠나게 된것이 그리도 기쁜지 운전사옆에 앉아 노상 싱글거리며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차창유리를 반쯤 내려놓으시였다. 시원히 불어들어오는 바람을 맞으시며 단풍이 울긋불긋 무르녹는 산천을 내다보시다가 슬며시 옆자리에 앉은 최진석을 돌아보시였다. 장령모 밑에 삐죽이 내민 흰 머리칼을 보시자 가슴이 별로 아릿해오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최진석이 지금 남다른 《고충》을 겪고있다는것을 잘 알고계시였다.

머칠전 최현은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다가 수염자국이 푸릿한 턱을 쓸쓸 문대이며 《진석동무네가 이번 종합훈련을 제대로 해내겠는지 모르겠군요.》 하고 안심치 않아하는 표정을 보였었다.

최현은 군부대장들중 유독 한사람 최진석에 대해서만은 백두산시절 자기의 대원이였다고 해서인지 각별히 사랑하면서도 로골적으로 로파심을 드러내놓으며 못미더워할 때가 많았었다.

조국해방전쟁때 《호랑이런대장》으로 적들을 벌벌 떨게 한 최진석은 지금껏 이 세상 무서운것이 없었다고 장담하면서도 최현대장앞에서만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군 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왜 그러는가고 물으시니 그는 이렇게 하소하는것이였다.

《정말 너무합니다. 날 보구는 별루 해대지요. 부대에 오기만 하면 <이건 뭐요?>, <저건 왜 저렇게 해?> 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마구 욕을 해대는데... 아, 결함을 찾자구 밝히고 보는 눈이야 안걸릴게 있습니다. 이젠 한개 군부대 사령관이구 나이로 봐두 손자까지 거느렸는데두 아직두 자기의 전령병시절... 아니, 아예 햇내기처럼 취급한단 말입니다.

지도자동지께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억울하면 내가 직접 들이대란 말씀입니까? 에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괜히 삐곡소리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그 범같은 경감한테 무슨 날벼락을 맞을라구요.》

결으로는 이렇게 툄툴거리면서도 최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몸이 불편해하면 진심으로 제일 안타까와하고 약을 얻으러 뛰어다니는것이 바로 진석이었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특이한 관계를 맺고있다. 혁명에 참가한 년대와 그때의 직급관계가 먼 세월이 흘러온 오늘까지도 신성시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상하면서도 불같은 동지관계이다. 혁명선배에 대한 존경과 자기가 산에서 데리고있던 대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려는 숭고한 감정으로 부터 맺어지는 영원한 툄리관계...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뜨거운것인가.

최현대장도 백두산에서 진석을 끼고다니며 총쏘는법부터 배워주던 지휘관의 타성으로 오늘 그가 군부대사령관이 되었지만 역시 마음을 못놓고있고 진석은 진석이대로 최현의 지나친 관심에 어떤 때는 불이 부어올라도 그 자신의 말대로 《삐곡소리》 한마디 못하고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번 종합훈련때문에 틀림없이 최현이 내려와 훈련방안을 검토하며 잔소리를 할것이고 최진석은 그걸 알기에 이번 기회에 최현에게 한번 본 때를 보이려고 누구도 모르게 훈련방안을 토의하러 왔으리라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계시였다. 사실 그래서 장군님께서도 그가 이렇게 제발로 찾아온 기회에 잘 도와주어 최현대장앞에서 《권위》도 높일수 있게 하고 《큰소리》도 칠수 있게 해주리라 걱정하시였는데 오히려 진석은 그에 대해서는 아예 시치미를 떼고 《사냥경기》를 가자고만 하는것이다. 저 영준이가 또 건강이요, 휴식이요 하면서 진석에게 무슨 말을 한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진석은 대뜸 자기 목적은 저 가방속에 아예 집어넣고 영준의 《작전》에 무작정뛰어들었을것이다.

그 마음이 눈물겹게 고마우시였다. 항일의 로투사들은 누구나 이처럼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내세워주려 하는것이다. 그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더욱 분초를 아껴가며 일해야 한다는 자각에 가슴이 후터워지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고싶지 않아 진석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직방 물으시였다.

《아바이,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 가방안에는 지금 훈련방안이 있지요?》

《예?》

흐뭇한 표정으로 차창밖을 내다보며 앉아있던 진석이 장군님의 은근한 말쑼에 대뜸 눈이 커져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가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마주 보시자 허- 하며 손가락끝으로 자기 옆머리를 톡 쳤다.

《역시... 다 꿰들어보시니까 어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는 할수 없다는듯 야전가방을 열고 훈련방안문건과 작전지도를 꺼냈다.

《사실... 이번 훈련방안에 대해서 가르치심을 받고싶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겸허한 미소를 지으시며 훈련방안문건과 작전지도를 받아드시였다.

《제가 로장들의 작전전술안에 무슨 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왕 가져오신것이고 또 수령님께서 크게 관심하시는 훈련인것만큼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장군님께서서는 훈련방안문건을 한장한장 주의깊게 보시고나서 작전지도를 펼쳐드시였다. 진석이 얼른 지도의 한끝을 잡아들고 훈련방안을 설명해드렸다.

《부대참모부에서는 유사시 적들이 이 영천방면으로 공격해오는 경우 방어전선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합니다. 적들의 비행대타격과 미싸일을 비롯한 대구경포들의 타격, 특공대와 땅크집단의 공격 등 립체전을 가상해서 아군은...》

장군님께서서는 진석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다가 지도에 석연치 않은것이 있어서 유심히 들여다보시였다. 그러나 내색은 않으시고 왜 우회포초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진석이 얼굴을 붉히며 방어훈련이어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실토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방어훈련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훈련안이 짚이고 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적인 공격도 다 막아낼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립체적인 방어선형성이 마음에 듭니다.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이 진행되는것만큼 방어역시 립체전을 가상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제 생각을 보충한다면... 이 부대는 이쪽으로 우회시켜...》 하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생각하신 방안을 말씀하시였다. 진석의 눈이 대뜸에 커지기 시작하다가 환희로 번쩍 빛났다.

《그것 참 명안입니다. 한수에 통장이라더니 허허. 리상적인 방어는 적극적인 공격이라는 말도 있

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적들이 공격해오면 우리는 오히려 적후방을 들이쳐서 적들이 좌왕우왕하게 했지요. 소왕청방어전투때도 그랬고 또...》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긍정하시였다.

《웁습니다.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나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활용하신 전법들은 모두가 그 어느 병서에도 없는 주체적인것들입니다. 우리는 훈련에서도 철저히 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방안을 그 각도에서 다시 검토하고 보충하겠습니다.》

진석이 흥분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차는 어느덧 산골짜길로 접어들었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산열매향기가 물씬물씬 차안으로 흘러들었다.

차창밖을 내다보시며 싱그러운 산촌의 공기를 한껏 호흡하시던 장군님께서 잠간 차를 세우라고 하시였다. 저 앞 밤나무아래에서 여라문살 나보이는 대여섯명의 아이들이 병싯병싯 아금이 버그라져 불그레한 밤알들이 드러나보이는 밤송이들을 향해 맹렬히 돌팔매질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사랑스러운 눈길로 한동안 그애들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진석에게 고개를 돌리시였다.

《아무래도 사냥은 안되겠구만요. 오늘은 일요일이 여서 애들이 모두 산으로 펼쳐나섰을겁니다. 산열매들이 한창 익기 시작했으니까.》

진석은 랑패라는듯 입을 찹찹 다시다가 다시 말씀드렸다.

《그럼 뉘시질이라도 합시다.》

폐질을 하는듯 한 그의 말에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시였다.

《난 아바이가 왜 한사코 날 데리고 다니려 하는지 잘 압니다.》

《예?!》

진석이와 영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뒤이어 영준은 당황하여 어디에 눈길을 줄지 몰라 하고 진석은 《허, 이건 정말 실패한 작전이군.》 하며 맹랑한듯 입을 다셨다.

《허허허.》

장군님께서서는 즐겁게 웃으시였다.

《아바이의 그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나 좀 나누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쑼에 진석은 반색을 했다. 사냥이나 뉘시질처럼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공기좋은 곳에서 머리를 식히며 이야기를 나누는것도 하나의 휴식이 될듯 싶은 생각이 든 모양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돌리라고 하시였다.

## 5

영준과 운전사는 밤침대를 하겠노라면서 밤을 따라가고 장군님께서는 진석이와 함께 개울가의 맞춤한 바위우에 나란히 걸터앉으시였다.

발치에선 활짝 핀 연보라빛 들국화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있었다. 한낮의 태양은 따갑게 대지를 달구며 온갖 열매들을 열심히 무르익히고있었다.

《자, 그럼 그 작전지도를 놓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장군님께서 이러시며 손을 내미시자 이제는 훈련안을 빈틈이 없이 훌륭하게 완성할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며 뜻깊은 휴식을 어떻게 조직하여 그이께서 피로를 푸시게 할가 하는 궁리에만 열중하던 진석은 의아해서 고개를 돌렸다.

《예? 작전지도를... 또 보시겠단 말입니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것이 있는것 같아 그렇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자 진석은 눈이 두그래져서 야전가방에서 작전지도를 다시 꺼냈다.

장군님께서 바위우에 작전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이윽도록 들여다보시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가로 저으시였다.

진석은 더욱 의아해져서 전술부호들이 가득 그려진 작전지도를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혹시 작전안에 또 무슨 큰 빈틈이라도?...)

《아바이, 이 지도가 언제 나온것입니까?》

《예?》

진석은 점점 더 아리송해져서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왼손 지시손가락끝으로 방어집단이 차지할 한 고지를 가리키시였다.

《저 고지가 지질구조나 지형학적특징으로 보아 봉우리가 세개쯤 되겠는데 하나로 그려진것이 이상해서 그렇니다. 저 고지가 차지하고있는 쪽으로 보면 절대로 봉우리가 하나일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 차에서 처음 볼 때에는 좀 이상하다고만 생각되었었는데 다시 보니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진석은 대뜸에 눈이 커졌다.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진석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등고선들로 휘감긴 봉우리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 고지는 무인지경의 험산지대에 자리잡고있는 고지였다. 장군님 말씀을 다시 음미하며 여겨보니 어쩐지 지도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기도 했다. 진석은 손으로 턱을 그리쭈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 출판년도가 좀 오래 된것이기는 한데...》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정말 봉우리가 세개라면 방어력량편성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어밀

도를 보장하려면 그 력량을 어디에서... 아니 훈련안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바이, 아무래도 우리 직접 현지답사를 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진석은 몸을 흠칫하며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이제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였다.

《우선 지도부터 정확해야 훈련방안을 잘 세울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곳에 가서 <사냥경기>도 하는겸...》

진석은 펄쩍 뛰며 도리머리를 했다.

《그건 안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마구...》

《그럼 야단이 아닙니까. 지금대로 했다가 만일 진짜 봉우리가 세개이면... 최현아바이한테 경을 치지 않겠습니까?》

진석은 어쭙게 웃으며 볼을 굽으면서도 그런 욕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까짓 ... 무력부장욕은 무섭지도 않습니다. 먼저 알고 방어를 든든히 하면 되지요.》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에 찔찔 웃으시였다. 이럴때 보면 머리 흰 항일의 로장들도 자신앞에서는 어린애들처럼 행동하군 하는것이 어이없기도 하시고 한편으로 마음이 후더워지기도 하시였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타산해서 훈련안을 다시 토의 해봅시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로장들이 현대과학기술이 도입되는 오늘의 현대전에서도 능수가 되도록 그리고 부단히 변화발전하고 부단히 갱신되는 최첨단무기들이 참가할 때일의 실전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싶으시였다.

《그럼 여기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가상하고 력량편성과 훈련방안을 토의해봅시다. 아바이는 봉우리가 세개쯤 되는 경우 어디서 력량을 떼내여 방어

밀도를 보장하면 좋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작전지도우에 훌쩍 뛰어오른 풀메뚜기를 손으로 밀어내시며 진석에게 물으시였다.

진석은 자기도 모르게 훈련안토의에 끌려들었다. 그는 일단 군사작전문제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이여의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는 사람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이런저런 정황을 설정하시고는 진석의 작전안을 들으신 다음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군 하시였다. 해별이 따갑게 내려비치고 풀메뚜기가 때없이 뛰어오르며 선들바람에 자꾸 펄럭거리곤 하는 크지 않은 작전지도우에 제1차, 제2차세계대전은 물론 장구한 인류전쟁사의 크고작은 전투들이 남긴 경험과 교훈들이 죄다 분석되고 재평가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군사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새로운 전법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요긴한 대목마다 한마디씩 띄워주셔서 자기의 전략전술적안목이 툭툭 넓어지는데 성수가 난 진석은 영준이와 운전사가 밤청대준비를 다 해놓고 애타게 뒤에서 서성거리는것도 모르고 손세까지 써가며 흥분해서 말쑤드렸다.

《됐습니다. 이제 무력부장이 제아무리 눈을 밝혀서 흠집을 잡으려 해도 어렵습니다.》

《역시 아바이한테는 최현동지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장군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시자 진석이 손을 내저었다.

《무섭다니요. 내가 지는척해서 그러지… 장기들 때에두 자기가 지면 한번만 더 두자고 졸라대서 얼마나 따분한지 모릅니다. 내가 우정 저주어야지, 허허허… 이제 두고보십시오. 내 군사작전에서두 무력부장이 꼼짝 못하게 하지 않나.》

진석이 이렇게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장군님께서 웃음을 짓으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내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허허허.》

## 6

그로부터 사흘후 장군님께서 진석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시었다.

…최현대장은 최진석이네가 현지답사를 하고 작전일군들과 함께(산봉우리는 장군님께서 예견하신 대로 세개였다.) 훈련방안을 다시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거의 끝내갈무렵에 벼락같이 들이닥쳤다.

《흥, 내 그럴줄 알았어. 아직 훈련방안도 세우지 못한 판이군…》

최현은 짙은 장미를 꿈틀거리며 처음부터 비꼬는 투로 나왔다.

하지만 배심이 든든해진 진석은 배포유한 소리를 했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인차 끝낼테니…》

그 말이 끝나기도전에 최현이 버럭 화를 냈다.

《명령을 받은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조금만이야. 적들이 공격해오는데도 한가하게 그림만 그리고있겠어?》

진석은 여전히 뜬뜬해서 부호자를 지도에 대고 방어선을 그리며 이렇게 대꾸했다.

《훈련에 들어갈 때까지야 계속 수정보충해야지요. 어쨌든 좀 쉬십시오. 참모동무, 무력부장에게 차를 대접해드리라구.》

《이 사람 봐라. 굼벵이노릇 하면서두 할소리는 다 한다. 허… 어디 보자. 이 그림쟁이들이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나 그리고있나…》

작전일군들을 한손으로 활 밀어내고 작전대에 마주선 최현은 찌뿔사한 눈길로 내려다보다가 점점 작전지도우에 웃음을 굽히기 시작했다.

진석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허리를 쭉 폈다. 그리고는 입가에 빙글썩 미소를 그렸다.

《가만 … 이게 뭐야. 음… 흠… 흠…》

굵고 몽툰 손가락끝으로 작전지도의 여기저기를 꺾꺾 짚어대며 검토해보던 최현이 미심쩍은 눈길로 흘깃 진석을 돌아보았다.

《이거 동무네가 생각하고 그런게 맞아?》

진석이 부호자를 들여보이며 우정 시뻘뻘한 어조로 대답했다.

《방금 이 부호자를 대고 그리는것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 합니까?》

《그으래-》

최현은 말꼬리를 길게 끌며 다시 작전지도우에 웃음을 기울였다. 그에게는 작전지도가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것이였다. 작전방안에 완전히 심취되어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최현의 입에서 이런 감탄사가 연이어 튀어나왔다.

《괜찮아. 음… 이럴 땐… 그렇지… 이거 수태 발전했는걸…》

진석은 기분이 흠족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으나 우정 볼부는 소리를 했다.

《아니 그럼 뭐 제가 계속 앓은뱅이노릇만 할줄 알았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어랍쇼. 그으래 … 좋아… 그럼 이런 정황을 생각해보라구. 적들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전면공격으로 이 영천지구로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고있어. 어떻게 하겠소?》

진석은 어렵지 않게 그 대책안을 말했다.

《저쪽부대의 역량을 일부 떼내어 이쪽(진석은 영천지구의 한 룡선을 가리켰다.) 방어선을 보강하구 한개부대는 이쪽으로 쪽 우회해서 적의 엄통을…》

배심이 든든해서 자신있게 설명하던 진석은 최현이 갑자기 짹 뽀 두통한 손바닥으로 작전지도를 뺨내리치는 바람에 흠칫하여 입을 다물었다.

《너 지도자동지께 갔다왔지?》

최현이 소리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고드는 바람에 진석은 가슴이 띵끔해서 짙은 목을 움츠렸다.

최현의 부리부리한 눈이 똑바로 겨누어보고있다. 진석은 아연해졌다. 이 《령감》이 그걸 어떻게 눈치챈올가. 그러나 장군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하셨을수 없다고 생각한 진석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무력부장동지는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그래 이렇게 못할것 같습니까?》

그러자 최현은 교방귀를 뀌었다.

《내가 동무 수를 몰라서?… 바른대로 말해… 동무가 너무 급작스레 발전했던 말이야.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구서는 이럴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도 바쁘신분이신데 도대체 몇시간이나 그분의 시간을 빼앗았어, 영?》

죄인취급하듯 다물어대는통에 기가 죽어 목을 움

츠리고 어쩔줄 몰라하던 진석은 계속 수세에 빠지  
다가는 속옷까지 벗기울수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번쩍 들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난 뭐 모르는줄 아십니  
까? 무력부장동지는 적하면 그이를 찾아가 가르치  
심을 받곤 하지요? 무력부장동지자신이 말하지 않  
았습니까. 최근엔 더하지요. 나도 다 들은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따, 이 사람 봐라.》

진석이 뚝배에도 언성을 높이며 정면공격을 하자  
순간 멍하니 마주 보던 최현이 껍 소리쳤다.

《나하고 동무하고 어디 같은가?》

《왜 다르단 말입니까. 부장동지는 무력부전반을  
책임지구 전 한개 군부대를 맡았을따름이지... 그이  
께선 저보구두 아무때건 가림없이 찾아오라고 하셨  
단 말입니다.》

《뭐? 이 사람이 점점... 허허허... 됐소. 그림이 나  
빨리 마저 그리라구...》

최현은 허구프게 웃더니 뒤집을 지고 작전실안을  
뚜벅뚜벅 거닐기 시작했다.

진석은 어쩐지 속이 후련해움을 느끼며 작전도에  
허리를 굽혔다.

그날밤 침실에 나란히 누웠을 때 최현이 무뚝뚝  
하게 한마디했다.

《동무 정말 수태 발전했어-》

《예?》

진석이 말뜻을 미처 몰라 최현이쪽으로 돌아누웠  
다.

《발전했단 말이야. 군사적으로두 그렇구, 떡떡  
맞서는것두 그렇구...》

최진석은 끔- 하고 돌아누우며 볼부는 소리를 했  
다.

《부장동지가 정 그러시면 난 중요한 비밀을 안대  
주겠습니다.》

《뭐 비밀?》

최현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최진석은 모포를 뒤집어쓰며 우정 대꾸를 안했다.  
최현이 다가와 외락 모포를 벗겨던졌다.

《너 그분한테서 무슨 말씀들었지? 어서 말해. 어  
서...》

최진석은 그가 속상해하는것이 깨고소해서 우정  
원새끼를 꼬았다.

《다시는 저를 전령병시절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는걸 약속하시기 전에는 어림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버럭 성을 내려던 최현은 그래서 《비밀》을  
뽑아낼수 없다는것을 알았는지 허허허 웃었다.

《좋아, 내 안그러지.》

진석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약속했습니다.》

《이 최현일 뭘루 알아. 한번 말했으면 다시...》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진석은 이러며 값을 바짝 올리고서야 할수 없다  
는듯 최현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거렸다.

《이건 그이께서 나한테만 <극비> 에 하신 말씀  
인데...》

...

장군님께서는 진석의 전화를 받으시며 미소를 지  
으시였다. 《극비》라고 한것은 진석이가 먼저 요  
구하여 그렇게 된것이였다.

사흘전 《사냥경기》에 나갔다가 돌아오실 때 진  
석은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했었다.

《지도자동지, 모두가 지도자동지의 건강을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 매일밤을  
밝히셔야 합니까?》

그의 진정어린 목소리에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몽  
클해움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차창밖  
으로 흘러가는 산밭을 내다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  
기셨다가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껏 수령님을 모셔오면서 이미전에 해놓  
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아직까지 못하고있다  
고 생각하면 어찌다 눈을 좀 불이려 해도 잠이 오  
지 않습니다.》

안타까와하시는 그 말씀에 진석이 놀란 눈길로  
장군님을 돌아보았다.

《저... 그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지  
도자동지께서 그 어떤 중대한 사업을 구상하고계신  
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나는 밤잠이 오지 않습니  
다.》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지금껏 심중에 간직하  
시고 시간을 아껴가며 준비해오시던 문제를 그에게  
터놓으시였다.

《언제인가 나는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 사람들의 환영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곳 사회과학원에서 강연회를 하시면  
서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  
거해서 혁명과 건설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하시었을  
때는 폭풍같은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가 장대를 뒤흔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열렬한 지  
지와 공감을 말해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5차당대회때 쏘련공산당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왔던 쏘련공산당 조직비서가 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연설을 듣고는 무릎을 치며 탄복을 했습  
니다.

수령님의 그 연설이야말로 <현 시대의 맑스-레  
닌주의> 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쏘련에서도 제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는 아프리카에서 한 투사가 동지들과 함께 가슴에 고이 품고 싸워왔다는 책자를 보았는데 그것은 수령님의 로작들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늘날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온 세상사람들의 삶과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조국에서 살면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로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는 아직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진석은 너무도 크고 심각한 문제에 맞다든듯 한 긴장한 표정이였다.

《그럼 지도자동지께서 매일밤을 밝히며 책을 읽으신다는것은 그때문에...》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신중하여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최근년간에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해보았습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현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만 할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맑스-레닌주의는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오늘날에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에게 그 뚜렷한 앞길을 밝혀줄수가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복잡하고도 간고한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오시는 과정에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주체의 사상만이 그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공인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계화하고 정식화하는것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류의 앞날을 위하여 제일 급선무로 나서는 사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편히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약간 갈린듯 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도 사회도... 그것은 마땅히 우리당의 최고강령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이 어렵고 방대한 일을 인민군대를 믿고 실현하려고 합니다. 인민군대가 앞장서나아가면 온 사회를 더욱 빨리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수 있습니다.》

진석은 갑자기 받아안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는듯 큰숨을 몰아쉬며 듣다가 감동된 어조로 말씀드렸다.

《저... 이제는 지도자동지께서 어떤 원대한 구상을 펼치려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확 열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민군

대부터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사상적으로두 그렇구, 군사적으로두...》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웁습니다. 인민군대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난 아바이가 군부대내 모든 지휘관들이 이번 종합훈련에서부터 그런 각도에서 작전을 하고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하고 강하게 밀고나갔으면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루이틀사이에 아바이를 만나려했던 것입니다. 아바이네 부대에서부터 기치를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웅당 우리 부대부터... 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

저으기 흥분해진 진석은 야전가방을 공연히 들었다놓았다했다.

장군님께서 왜 오늘 종합훈련안을 놓고 그리도 마음 쓰시며 이런저런 경우를 다 예견하여 그토록 구체적으로 가르치심을 주시였는지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즐기치게 판통하고있는것이 무엇이였고 그것이 그 원대한 구상의 실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이제야 가슴벅차게 느낀 모양이였다.

심장이 금시에 커진듯 앞가슴을 쑥 내밀고 큰숨을 들이쉬던 진석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영준을 흘끔 보고는 바싹 다가앉으며 은근한 어조로 속삭이듯 물었다.

《저, 지도자동지! 우리 인민군대를 믿고 그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말입니다. 우리 무력부장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진석이 묻는 뜻이 갑자기 가늠이 안가시여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인민군지휘일군들을 만나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아바이가 먼저 나를 만났으니 처음으로 들은셈이 되었지요.》

그러자 진석이 무릎을 탁 치더니 장군님의 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그럼 됐습니다. 지도자동지, 그 말씀을 당분간만 <극비> 로 하여주십시오. 내 무력부장에게 한 쭉 넣고싶어 그렇습니다. 지도자동지께서 나에게만 먼저 그 말씀을 하셨다고 슬쩍 귀띔하면 당장에 무력부장 눈이 둥그래질것이고 지도자동지께서 나를 얼마나 믿으시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야 이 진석이를 부러워할게구 그 다음부터는 감히...》

장군님께서서는 그제야 진석의 말뜻이 리해가 되어 찹찹 웃으시였다.

《알겠습니다. 아바이의 <권위> 를 위한 일인데 <극비> 로 지켜드려야지요.》

그러자 진석은 사기가 나서 코노래로 《유격대행진곡》을 흥얼댔었다...

지금 진석은 그 《극비》로 최현을 녹여낸 일을

전화로 자랑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진석의 다음말은 뜻밖이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극비> 를 알려주었는데도 무력부장은 처음엔 흥분해서 방안을 오락가락하더니 대뜸 이렇게 추궁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오. 그렇게 특대사변을 준비하시는분께 동무는 하루종일… 아직 철이 덜들었어.>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석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더니 자초지종 말씀드렸다.

…

최현이 그렇게 돌변하자 진석은 그만 아연해졌다.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볼부는 소리를 했다.

《아니, 부장동지는 방금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최현이 대답을 안하고 방안을 거닐다가 노여운 소리를 했다.

《생각해보라구. 동무는 그이께 휴식을 보장해드린다구 하면서도 오히려 하루종일 그분의 가르치심만 받느라 휴식을 못하시게 하지 않았나.》

그 말에 진석은 더 대꾸할 소리도 못하고 슬며시 눈길을 떨구었다. 금시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바로 《사냥경기》에서 돌아왔을 때 그분을 기다리느라 대기실에 주련이 앉아있던 사람들을 보고 아연해졌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장군님께서 이제 저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려면… 그리고 그들을 다 만나주신 다음에는 또 밤새도록… 기가 막혔었다. 자기도 모르게 장군님의 손을 꼭 잡으며 젖은 소리로 자책의 말씀을 드렸었다.

《지도자동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도자동지께서 휴식을 하시게 한다는것이 오히려…》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히 웃으시였다.

《뭘 그러십니까. 오늘 아주 유익한 휴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 앞으로 토의할 문제가 있으면 어느때든 찾아오십시오. 총대를 친 사람들, 특히 아바이들에게야 오래전부터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진석은 그때의 일을 최현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최현은 잘못을 솔직하게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무척 관대한 사람이였지만 장군님의 안녕과 관련된 일이여서인지 노여움을 풀지 못했다.

《그것보라구. 그러신다구 해서 한뼘 수령님을 모셔왔다는 사람이 그게 뭐가…》

그러더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 열어제꼈다.

서늘로운 가을바람이 확 풍겨들어왔다.

《하긴 내 잘못이 더 크지. 동무를 잘 도와주지는 못하고 추궁하기만 좋아했으니… 허지만 어찌겠나. 내 수준이 그게 단걸 난 동무가 하루동안에 그렇게 <키> 가 쑥 자란걸 보고 정말 놀랐네. 하긴 나도 그렇지. 그분을 한번만 뵙고나면 <키> 가 크는게 알리니까… 그래서 더더욱 뵙고싶어하는것이고… 온 나라 사람들모두가 그러겠지. 그러니 그이께선 정말 얼마나 바쁘시겠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 그러니 우리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서… 온 나라가 수령님을 닮게 하자는건데… 얼마나 원대한 구상인가.… 우리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크시구…》

진석이도 가슴이 찡해움을 느끼며 그의 곁에 다가가 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널려 총총히 여물어가고있었다.

《진석이, 내 언젠가도 말했지. 저 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아도 태양을 대신하지는 못한다고… 그래 태양이 하는 일은 그 무엇도 대신하지 못해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받들어모시자구.…》

진석은 그 밤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전하면서 이런 간절한 청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도자동지, 소원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이젠 주무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였다.

진석의 소박한 말에서 시대와 력사, 조국과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신 장군님이시였다.

그러나 자신을 태양에 비교한것만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우리 수령님만을 인민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부를수 있는것이다. 자신은 그 태양의 위업을 빛내야 할 전사일 따름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수령님의 로작을 펼쳐드시였다. 문득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수령님앞에서 한 시인이 읊었다던 시구절이 생각나시였다.

장군은 바쁘다 바빠야 한다

…

장군님께서서는 시간이 가는줄을 모르고계시였다.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이제 머지 않아 시대와 력사앞에 장엄하게 선포하게 될 위대한 강령의 자자구구가 새봄의 서곡을 알리는 우뢰소리마냥 은은히 울리고있었다.

# 마흔해의 령마루에서

오필천

찬란한 문화와 슬기를 자랑해온  
내 나라 반만년 력사는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그날에 기록하였다

푸르른 6월의 그 아침에  
당중앙청사에 들어서시며  
우리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장군님 그날에 하신 첫 말씀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해가 솟는듯 환하신 미소  
불타는 눈빛  
당중앙청사에 찌렁찌렁 울린  
청년장군의 목소리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레사로운 날에  
그리도 평범하게 울린  
그리도 수수한 말씀이었고  
조용한 음성이었어도

그 목소리  
천리 먼 조국의 최전연초소  
총잡은 병사들이 들었다  
지하 수천척  
막장의 광부들이 들었다

그 마음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그이의 손을 잡았다

탄문은 손 그대로  
물젖은 손 그대로  
기름배인 손들이  
흙문은 손들이

혁명의 첫 걸음을  
동지로 시작하시는  
그 인정미에 매혹되어  
자신의 심장을 주시여  
인민을 뜨겁게 안으시는  
그 동지세계에 이끌려

백만이 뭉치고  
천만이 뭉치여  
일심단결의 성새  
사회주의강성보루가 마련되었거니

가장 소박하면서  
가장 뜨거운 말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위력한 말

아, 나는 다시 외운다  
그 손길 잡고서 올라선  
마흔해의 령마루에서  
우리 당의 혁명실록에  
백승으로 아로새겨진  
혁명의 천하지대본을  
-함께 손잡고 일해봅시다!

## 내 삶의 6월

박천걸

6월의 푸른 잔디우에서  
내 삶의 첫 걸음마 아장아장 뻗 때  
알수 있었으랴  
누리의 해빛이 이 몸을 더 따뜻이 감싸주며  
내 운명의 위대한 어머니품이  
성큼 내앞에 다가오고있었음을

알수 없었다 그 나날엔  
나의 이름 또렷한 건강관리부를 안고  
날마다 찾아오던 의사선생님의 모습이  
유치원의 꽃대문으로 들어서는 나를 반겨  
밝게 웃어주던 처녀선생의 모습이

어머니당의 따뜻한 해살이었음을

가장 뜨거운 인간사랑의 해빛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당중앙위원회에 들어서신 그날부터  
이 땅의 천만자식이 어머니라 부르는 우리 당이  
**김정일**동지의 모습으로 빛나오른 그날부터  
새롭게 변모되는 내 조국의 거창한 현실속에  
내 성장의 자욱이 찍혀지고있었다

배움의 눈부신 층계와 층계를 오르며  
소년궁전의 화려한 극장으로 들어서며  
내 진정 알았던가

《세상에 부럼없어라》 나의 노래가  
6월의 그 푸른 하늘에 비끼여  
내 삶의 앞길에 울려가고있었음을

장군님 지퍼주신 대건설의 열풍속에  
이 아들이 땀을 바쳐갈 때  
희망의 하늘가에 수리개의 꿈을 실어주며  
대학의 교정으로 떠밀어준 우리 당이여  
나를 위해 그대 지새운  
창조의 그 밤들은 또 얼마였던가

잊을수 없어라  
귀여운 내 아들의 출생을 남먼저 축복해주며  
진귀한 보석주단우로 떠밀어준 자애로운 그 손길을  
내 아들이 태어날 땐  
내 안해의 머리말을  
온밤 떠나지 못하고 지켜준 정겨운 그 눈빛을

정녕 6월이 있어  
나에게 새겨진 이 세상 모든것은  
생을 주고 피를 주고 숨결을 준

위대한 어머니 한모습뿐이었나니  
영원한 동행자의 믿음으로  
이 몸을 당기앞에 세워주며  
그리도 소원이던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안겨준 그 품은  
아 이 세상에 오직 하나 내 삶의 영원한 태양

6월의 푸른 하늘에서  
내 밝은 눈동자에 비쳐든 따스한 그 햇빛  
우리 행복을 꽃피운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전선길 천만리를 가시는  
장군님 모습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심장속에 더 깊이 새기나니

아 내 삶에 영원한 행복의 첫줄기를 물려준  
40년전 6월의 그날이 있어  
이 땅에 새겨지는 나의 자서전엔  
사랑과 햇빛만이 가득차 넘치리라  
내 운명의 하늘과 대지엔  
위대한 태양송가의 노래만이 영원히 흐르리라

## 내 마음의 영원한 불빛

최정용

가까이 있을 때나  
먼곳에 가있을 때나  
변함없이 내 마음에  
따뜻이 빛발쳐오는  
우리 당중앙의 정다운 불빛

후더운 이 가슴에 부여안고  
속삭이고싶어라  
그 불빛 가득가득 푸른 잎에 받아안고  
마흔돌기 사연깊은 년륜을 새겨온  
그이 계신 집무실 트랙의 그 정원수들과

정녕 뵈아보고싶어라  
그 불빛 야전차불빛으로 이으시며  
그이 찾고 또 찾으신 공장길과 농장길들  
굽이굽이 령을 넘어  
최전연에 잇닿은 초소길 그 한끝까지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으시며  
우리 조선을 누리에 펼치시려  
협산준령 천만리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40성상 하루같이 낮과 밤을 이어오신  
고귀한 헌신의 그 불빛아래  
날바다를 밀어내며 갑문이 솟아났고  
만리 창공높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호  
가 날아올랐거니

진정 그 불빛 넘치여  
총대가 기둥으로 솟은 선군의 내 나라  
핵폭탄보다 위력한  
일심단결의 성세로 뭉쳐진 내 조국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간들  
우리 잊으랴  
조국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빛발  
우리 삶의 어제도 오늘도  
내 조국의 먼먼 미래도  
다 밝혀주는 그 빛발

아 언제나 그 언제나  
내 마음에 인민의 마음에 빛나리라  
친근하고 위대하신  
우리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으로 안겨오는  
우리 당중앙의 정다운 불빛이여!

#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작가대오로

오늘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터운 사랑과 믿음속에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빛나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 수행과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붓대를 사랑하고 중시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의 기초축성 시기부터 작가들을 혁명동지로 믿으시고 그들에게 선행한 그 어느 력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당문제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선전자, 적극적인 관철자라는 크나큰 믿음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선군혁명동지라는 최대의 신임을 베풀어 주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1960년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의 나날 그 담당자인 작가들을 혁명적으로 키우시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그날부터 오늘까지 장장 40년의 줄기찬 로정은 작가대오를 당의 영원한 동행자 대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의 40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 30일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우리 문학예술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준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기치였으며 우리 작가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혁명문학, 수령형상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총서 **《불멸의 력사》** 창작과정에 발휘된 작가들의 창작기풍을 전국의 작가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시기 창작가들의 회의를 마련하시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여 혁명적작가대오육성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끝없이 수양하고 단련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시기 작가대오의 정치사상적면모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으며 작가들의 주체의 혁명관확립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대에도 작가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시였다.

작가대오를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원한 충성심이 넘치는 집단으로 만들며 주체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은 단계로 올려세워야 할 시대적요구가 나선 이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서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작가들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작가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주시였다.

잊지 못할 20세기 마지막년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식인대오를 혁명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궈주신 뜻깊은 년대였으며 작가육성에서 보람찬 시기가 펼쳐진 력사적인 년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제적으로 반사회주의적광풍이 전례없이 우심하게 불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져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환성을 울리고 혁명정세가 준엄한 국면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지식인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작가들과의 사업을 통하여 지식인문제해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이끌어나가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79(1990)년 12월 27일 작가들에게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보내주신 친필서한은 이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혁명은 류레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작가대오앞에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불려주신 크나큰 신임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자로 앞장서야 할 력사적과제가 나섰다.

혁명의 요구에 맞게 가장 위력한 선군정치로선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제일기둥이며 핵심력량인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작가들이 준엄하고 거창한 혁명투쟁의 시대에 영원한 동행자로서 지녀야 할 혁명적수령관의 높이를 체득



하도록 이끄시었다.

주체86(1997)년 3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 어린 조치에 따라 마련된 전국작가들의 협의회는 작가들이 우리 시대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작에 구현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 작가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동면》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붓대를 총대처럼 틀어쥐고 분연히 떨쳐일어나 장군님의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따라 나섰으며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불러일으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의 행군으로 추동하는 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령도로 바쁘신속에서도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시, 가사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보내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우리 작가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문학작품들을 그 어느때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왕성하게 창작할수 있었다.

참으로 지나온 40년세월 우리 문학을 줄기차게 심화발전시켜온 위대한 령도의 로정은 우리 작가들의 걸음걸음을 영원한 동행자의 세계에로 이끌어올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령도로 빛나는 로정이었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작가대오는 선군정치의 절대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 선군혁명동지가 되어 붓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나가는 혁명대오로 더욱 억세게 준비될것이다.

## 장군님은 우리의 생명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살아서 옥문을 나서리라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통일에 바쳐진 삶은  
떳떳한것이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흘러흘러  
수십년 고독속에  
추위에 떨고 더위에 찌눅으며  
장작처럼 묶여  
살인적인 고문에 터지고 찢겨지는  
그것 어찌 삶이라 하랴만  
우리는 그 삶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놈들은 날마다 지껄여댔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식물인간이라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숨쉬는 화석들이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인간아닌 짐승들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장에서  
머리를 추켜들고 떳떳이 웃음짓는 우리들을  
놈들은 영원히 알수 없을것입니다

이름없는 전사들이 겪는 고생을  
누구보다 가슴아파 생각하시며  
수백수천밤을 지새우신분  
꺼져가는 우리들의 생명을  
소중히 안아 보석처럼 빛내주시는  
위대한 성인이 우리에게 계셨으니

교도소의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태양의 빛은 막을수 없듯이  
우리 생명 지켜주고 보살펴주신  
그이는 다름아닌 **김정일**장군님  
그이 계시여  
정의란 말이 그렇듯 소중했고  
사랑이란 말이 그렇듯 따뜻한것 아니겠습니까

비전향장기수 우리 생명은  
장군님 주신겁니다  
장군님 아니시면 우리도 없고  
장군님 아니시면 통일도 없는 이 진리를  
민족이 알고 세상이 알았습니다

장군님 꺾어주신 금방석우에서  
세상의 만복 누리며  
빛나는 우리의 삶  
해바라기처럼 끝까지  
장군님만을 따르렵니다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의 꽃으로 활짝 피렵니다

# 백두산으로 가는 길

하복철

푸르른 이깔이며 분비들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는 길이다  
저 멀리 백두산이 넓은 품을 펼치고  
어서 오라 뜨겁게 마중하는 길이다

항일전의 그날처럼  
붉은 기발 펄펄 날리며 가는 길  
선렬들의 그 숨결에 나의 박동을 맞추고  
그 보폭에 발걸음도 나란히  
백두산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우리의 **김정일** 동지  
별써 10 대에 개척해주신 대통로  
수령님의 업적을 감히 덮어보려는  
온갖 잡귀신의 무리를 쳐갈기시며  
뒤엎킨 가시덤불 걷어내시며  
한몸 내대시어 열어주신 길이다

그이 아니시였다면  
세월의 눈비속에 력사의 이끼속에  
그만 묻혀버릴뻔 했던 길  
그래서 이 길은 굵이굵이여도

나의 가슴엔 **김정일** 동지께서 열어주신  
혁명전통의 끈은 길로 안겨온다

오, 이 길이 없었더라면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우리는 갈길 잃고 헤매이다  
쓰러졌을수도 있었으리  
이 길은 너와 나 우리의 명맥  
주체의 사회주의명맥이었다

그렇다 이 길은  
**김일성** 민족의 운명의 피줄기  
허리치는 생눈길도  
에돌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할  
우리 혁명의 피줄기

천대만대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다 담보해주는 **김일성** 조선의 승리의 길이어  
백두의 눈보라에 붉은기 날리는 이 길에서  
나는 내 심장의 박동이  
무엇을 위해 뛸뛰여야 하는지 푹푹히 알았다

## 막장길 20리

로경철

우리 당이 걸어간  
그 길은  
여기에도 뻗어있었다  
20 리 이 막장길에

광부처럼  
쓰신것은 수수한 버들안전모  
광부처럼  
타신것은 들추는 인차...

오, 우리의 **김정일** 동지  
금골의 막장을 찾아오셨던  
20 리 이 막장길엔  
얼마나 숭엄한 걱정이 흘렀던가

석수가 쏟아진다고 막아나서는 광부들을  
가볍게 가볍게 나무라시며  
그이 막장길을 가실 때  
크나큰 감격에 젖던 우리 마음

못잊어라  
수고가 많다고 보고싶었다고

돌가루 묻은 손을 오래오래 놓지 못하시던  
인자하신 그이의 영상이여

인민이 누리는 행복에서 락을 찾으시며  
인민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 험한 막장길도 즐겁게 이어가신  
우리의 **김정일** 동지!

그이 수놓아가신 막장길은 20 리에 끝나도  
두고 가신 그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어  
광부들의 가슴속엔 충성의 천만리로 뻗어갔어라

밝은 해빛 다 모아 여기 뿌린들  
이 길을 장식할수 있으랴  
우리 당중앙의 거룩한 자욱이  
막장으로 흘러간 력사의 길이어

억만의 보화를 찾아  
우리 천리로 만리로 이어갈 막장길에  
위대한 사랑과 령도의 빛발을 뿌려주며  
우리 당이 걸어온 천만리길에 뚜렷이 새겨진  
금골의 20 리 막장길이어!

## 몸소 지으신 두벌농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주체53(1964)년 6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한 일군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계시는 저택으로 갔다.

정원에 들어선 일군은 류다른 풍경에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상상했던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있었기때문이다.

관상용나무들이나 꽃나무들, 푸른 잔디들이 있리라 생각했던 정원에는 뜻밖에도 경계림이 우거져있는가 하면 꽃밭대신 자름자름한 빼기포전들에서 곡식들이 자라고있었다.

벼, 강냉이, 콩, 밀 등의 알곡작물들과 여러가지 공예작물들 그리고 배추, 무우, 쑥갓 등 남새류들과 지어 집집승먹이풀들까지 자라고있는 포전들이 려 달려있었다. 포전마다에는 거기에 심은 품종에 대한 설명판들이 있었다. 마치 어느 농업연구소의 시험포전을 방불케 했다.

일군은 그러한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문득 어느 한 포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몸소 시험포전을 가꾸시는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의 가슴은 한없는 걱정과 뉘우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밀 뒤그루로 콩을 심고계시다가 일군을 보시고 매우 반가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기에 호미가 있으니 그것을 들고 밭에 들어오라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호미를 들고 경애하는 그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뜻밖에도 장군님을 모시고 콩심는 일을 하게 된 일군의 가슴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이런 농사일까지 하시는데 대한 감동이 밀물처럼 서려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뒤그루로 심는 콩은 잎이

작게 나오기때문에 촘촘히 심어도 햇빛을 잘 받는다고 하시면서 일군에게 될수록 씨앗을 배게 심으라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몸소 콩그루사이 간격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장군님을 따라 씨앗을 묻어나가며 자기나름대로 이렇게 콩을 심으면 적지 않은 수확을 거둘수 있을것 같다고 아뢰이는 일군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보다 더 예견하고있다고, 그래서 앞그루와 뒤그루를 합치면 높은 수확을 낼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밭농사에서는 외벌농사가 기본이였고 두벌농사를 하는 경우에도 높은 수확을 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일군에게 자신께서 몇해째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쌀보리와 밭벼, 쌀보리와 그루조, 쌀보리와 콩 등을 두벌농사작물로 정하고 시험재배해보았는데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는 커다란 예비는 두벌농사, 밀식농사에 있다고 일군들에게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경지면적이 제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벌방지대에서는 한해에 두벌농사를 하고 중간지대에서는 두해에 세벌농사를 해야 하며 모든 곡식을 배게 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알곡증산의 기본열쇠를 안겨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의 가슴은 저택의 정원에 꾸러진 이 포전들이 단순한 시험포전이 아니라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원종장이라는 생각으로 후덥게 달아올랐다.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시려고 그토록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야말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 투사들의 녀원이 꽃핀 땅에서

장선홍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뜻이 어린 삼지연군을 찾은 나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인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항일유격대원들의 력사의 발자취가 력력히 숨배여 있다. 이 성스러운 고장에 오늘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백두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천지원, 배개봉국수집, 봇나무거리 그리고 여러 지구들...

이름도 새로운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백두산지구의 천고밀림과 어울려 절경을 이루었다.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된 뽕죽지붕도 이채롭지만 배개봉에서 부감하면 활짝 핀 **김일성** 화와 **김정일** 화로 련상된다니 그 매력 또한 크다.

이 아름다운 화폭은 군소재지만이 아니라 리명수로동자구며 하늘아래 첫 동네로 불리우는 무봉로동자구며 포태동관의 중흥농장 제대군인마을에도 펼쳐졌다.

20여년전 대학생답사행군대오의 한 성원으로 백두산지구를 편답한적 있는 나는 반아안은 충격이 더욱 크다. 그때는 여기에 단층집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전변이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으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깊은 감회에 잠긴 나에게 전국당선전일군돌격대 중앙기관사단의 한 돌격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저희들도 짧은 기간에 백두산지구를 이렇듯 훌륭하게 우리 힘으로 일떠세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갖 이겨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왜 삼지연지구 건설장으로 우리들을 부르시였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여기로 달려왔고 눈무지를 헤치고 언땅에 착공의 첫 삽을 박았습니다. 눈우로 발구를 끌며 <마대전>도 하고 언강냉이를 한알한알 씹으며 기초를 쌓고 집을 일떠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습니다.

저기 백두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천백배의 힘이 솟을것입니다.》

나는 심장을 쿵 울려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번쩍 들고 천리수해를 거느리고 푸른 하늘높이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문득 전당사상 일군대회의 연단에서 엄숙한 자연조건을 이겨내며 백두산천지에 화강석돌계단을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성하여 세상을 놀래운 인민보안성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해 전하던 어느

한 구분대정치일군의 토론이 생각났다.

《수십톤이 넘는 화강석들을 백두산정우로 끌어올리며 우리 건설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린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두산천지에 돌계단을 완성하고 백두산지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것은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고 우리 건설자들의 철석의 신념입니다.》

백두산지구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것은 장군님의 의지이고 우리 건설자들의 신념...

그의 말을 되새기는 나의 귀전에는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삼지연못가에서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이 물을 량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하자고, 혁명이 승리한 다음 여기에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사령관동지의 그 말씀에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며 해방된 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신 항일의 녀성 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녀투사들의 눈물젖은 모습도 눈앞에 어려왔다. 삼지연의 맑은 물에 손을 잠그니 행군의 실참에 우등불가에서 사령관동지께서 나아린 전령병에게 조국이 해방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물으셨다는 이야기도 떠오른다.

건축학을 배워 훌륭한 집을 많이 설계하여 인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게하고싶다고 대답올리자 수령님께서서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그 꿈을 실현할 날이 꼭 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기에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삼지연을 찾으실 때마다 항일선렬들의 넋이 어린 경치 좋고 물맑은 이 고장에 인민의 명승지, 휴양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그리도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투사들의 그 소원을 누구보다 심장속깊이 간직하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삼지연군을 찾으신 그날에도 인민들을 백두산지구의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혁명선렬들의 넋이 어린 백두산지구를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 혁명전적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혁명전통교양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

로 진행할 구상도 하시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의 첫해에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옮기시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을 백두산지구건설에 불려일으키시었다.

그리고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바쁘신 나날에도 백두산지구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일일이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었고 건설자들의 적은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장군님의 그 령도의 손길아래 백두산지구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전변되었으며 하여 우리 혁명의 피줄기는 더욱 역세어졌다.

이 나라의 장구한 역사를 안고 천길지심에 뿌리박고 역세계 서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장엄하게 솟아있는 백두산은 바라볼수록 숭엄해지고 온몸에서 혁명적열정이 뿜게 한다. 혁명의 길이 멀고 간고해도 끝까지 가리라는 결심이 굳어진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무리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악랄하게 날뛰어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리라는 신념이 굳어진다. 세계정세가 복잡한 오늘 백두산지구건설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가 가슴에 뜨겁게 안겨온다.

항일의 선렬들이 바라던대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

선경을 펼치고 후대들도 백두산형의 혁명가들로 키우기 위해 선군혁명령도의 머나먼 길을 이어가시며 불면불휴의 헌신을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백두산장군이시라는 생각이 다시금 심장에 굳게 새겨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천지에 돌계단이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믿으시고 우리 건설자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최상의 평가를 주시었다.

오늘 온 나라에 펼쳐지고있는 사회주의선경은 우리 장군님의 그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뇌리를 친다.

그렇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줄달음치는 조국땅위에 이룩된 눈부신 전변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김일성**조국의 일대 번영을 안아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굳은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었다. 말은 건설과제를 끝마친 전국 당선전일군돌격대원들의 한 대오가 새로운 건설장으로 떠나고있었다. 가까운 앞날에 그곳에서도 또다시 천지개벽이 일어날것이다. 나는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뜻이 어린 백두산지구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훌륭한 문학작품을 써낼 결심을 품고 그들과 함께 취재길을 이어갔다.

## 세기를 넘어 울리는 총소리

심재훈

오늘도 울려오다  
보천보 밤하늘에 울리던 총소리  
년대와 세기를 넘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쳐온다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던 세월  
피멍진 가슴마다에  
피를 흘려주고  
희망을 안겨준 총소리

울려온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민족의 넋을 심어주던 총소리  
빨찌산 김대장의 총소리

그날의 그 총소리 들으며  
이 땅의 천만병사들이 자랐다  
그날의 그 메아리  
오늘 선군병사들의 가슴에

멸적의 폭풍을 부른다

폭풍쳐 내닫는 선군의 대오  
그앞에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서계신다  
빨찌산 김대장 추켜드셨던 그 총을  
오늘 빨찌산의 아들이신 장군님께서 높이 드셨나  
니

이제  
우리 장군님 총소리 울리시면  
예순일곱해전 그날처럼  
원췌의 아성은 무너지리라-  
력사에 길이 아로새긴 총소리

아, 이 땅 천만가슴에  
세기를 넘어 끝없이 울려오는  
총소리 총소리  
빨찌산 김대장 높이 울린  
보천보의 총소리여!

## 염분진전설

함경북도 경성군 룡현리에 가면 아름다운 바다기슭에 염분혁명사적지가 있다.

옛날부터 소금을 구워낸 곳이라 하여 염분이라고 부르는 여기 포구는 바다가에 잔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 일명 《잔자개》라고도 하였다.

염분진포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다녀가신 뜻깊은 고장이다.

이곳에는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끼끼 바위우에 오르시여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신 뜻깊은 사적이 있다.

오늘 이고장 사람들은 그이께서 오르셨던 이 바위를 룡마바위라고 부르고있다.

이 룡마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퍼그나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 어디나 다 그러하지만 출렁이는 푸른 바다를 끼고있는 염분진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아침해는 솟아올라 오붓하게 들어앉은 이 마을을 먼저 비쳐주었고 지는 달은 푸르른 바다를 은빛으로 단장하며 마을을 뜨기 아쉬워하였다.

사람들 또한 로인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화목하게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에는 신기한 일이 생겼다.

아침해가 솟아오르는무렵, 하늘에 오색채운이 서리고 북소리같은 우뢰소리가 한동안 울리더니 말울음소리와 함께 난데없는 룡마 한필이 네굽을 안고 훨훨 날아내려오는것이였다.

무술을 익히던 젊은이들과 도래굴이에서 섬을 따던 아낙네들 그리고 모래동을 쌓던 아이들과 장미에 서리가 불린 로인들이 모두 모여들어 룡마를 구경했다.

룡마는 발통 하나가 동이만큼이나 크고 옆구리에서 쪽 꺾어진 두날개는 어찌나 넓은지 작은 배 두척은 실히 올려놓을듯 하였고 그 울음소리 또한 장쾌하여 산을 울리고 수평선에 메아리쳤다.

마을의 좌상로인이 가슴노리에까지 드리운 수염을 쓸어내리며 기쁜 어조로 말했다.

《룡마는 하늘이 보내준것이 틀림없네. 이 룡마를 타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것이니 생각있는 무사는 누구든 올라보라.》

이때 키가 구척이고 몸이 장대한 무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한번 올라보겠소이다.》

좌상로인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모여선 사람들은 모두 웅성거렸다.

마을에서뿐아니라 아근에는 그만한 무사가 없는 즉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무사는 심호흡을 하고 룡마에 다가섰다.

한손으로 룡마의 고삐를 잡은 그는 동자를 밟고

말잔등에 뛰어오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이 룡마는 어찌나 갈개는지 도저히 오를수가 없었다. 그는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룡마에서 맥없이 물러서는 무사를 바라보며 마을사람들은 저으기 아쉬워하였다.

다른 젊은이들이 또 몇명 나섰으나 그들은 룡마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 소문은 삽시에 온 나라에 퍼졌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에 타보려고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이름난 장수들이 염분진바다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풍이 늘어진 염분진 백사장에는 모여온 장수들로 날마다 흥성거리였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술한 장수들이 룡마를 타보려고 했지만 끝내 그 누구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어느날.

장수들은 룡마앞에 모여섰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올라보겠소이다.》

한 장수가 나섰다. 그 장수는 여러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나이지긋한 장수였다.

《어서 타보게.》

모여선 장수들이 자기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라도 룡마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 장수는 룡마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제까지 키워온 힘과 재주를 다 해볼양으로 이윽히 룡마를 바라보더니 땅을 차고 뛰어올랐다.

그러나 그 장수도 룡마의 잔등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모여선 장수들은 모두 혀를 찼다.

《안되겠군.》

《룡마의 임자가 이 나라엔 없소그려.》

이때였다.

한 장수가 나서며 《내가 오르겠소.》하고 웨치는것이였다.

모두 돌아보니 그는 키가 자그마한 암팡진 몸에 쇠장식을 가득 단 이웃나라 장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멀리 이 이웃나라에까지 퍼졌던것이다.

이웃나라 장수는 그쯤한 룡마에도 못오른다면 무슨 장수냐는듯 자신만만해서 룡마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룡마의 고삐를 잡았다.

그 순간 룡마가 갑자기 천둥이 우는듯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머리를 휘둘렀다.

룡마의 고삐를 잡았던 이웃나라 장수는 날새마냥

하늘에 뿌러지더니 돌덩이처럼 모래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와-하-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룡마에는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고 말았다.

장수를 만나지 못한 룡마는 몇달동안 《오호흥-오호흥!》 안타깝게 울어대더니 그 자리에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몹시 아쉬워하였다. 하늘에서 룡마가 내려는데 탈 장수가 없이 바위로 굳어지게 하였으니 한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하였으나 어찌는 도리가 없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염분진에 내린 룡마에 대한 이야기는 한갓 옛말로 남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이었다.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이곳 염분진에 오시었다.

마을사람들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떨었다는 항일녀장수이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마을에 모시였으니 왜 그렇지 않으랴.

감격으로 들끓던 어느날 아침이었다.

바다가로 나가신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니님과 함께 룡마가 굳어져 바위로 되었다는 그 룡마바위로 다가가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룡마바위를 올려다보시며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바위로 오르시었다.

마을의 한 로인이 간밤에 꾸 꿈이 하도 이상하여 아침 일찍 바다가로 나왔다가 뜻밖에도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저 룡마가 바위로 굳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가? 그러면 백두산의 어린 장수께서 룡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시련만...

그는 룡마바위에 전해오는 전설을 생각하며 이런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린 장수께서 룡마바위에 오르시자 갑자기 금빛 서기가 어리더니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더니 《오호흥! -》 하는 말울음소리와 함께 룡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봄우뢰마냥 장쾌한 그 말울음소리는 산을 울리고 바다를 흔들며 수평선 한끝으로 멀리 메아리쳐갔다. 바위가 룡마로 변한것이였다.

《영?》

그는 지난밤 꿈이 너무도 신통하여 입을 벌리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룡마는 바다위를 날으는데 그 기상은 장엄하지 이룰데 없었다.

하늘가득 노을은 불타고 바다는 끓어번지는데 날으는 룡마의 갈기는 무지개마냥 찬란하고 네굽에는 구름발이 걸려있었다.

어느덧 룡마가 바다기슭에 날아내려왔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룡마의 곁으로 다가가시었다.

어머님께서 말을 쓰다듬어주시며 룡마에서 내려시는 어린 장수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이때 수평선에서는 아침해가 장엄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분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는 경탄하여마지 않았다.

《여로부터 룡마는 제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파시 천만군사를 거느릴 명장이 하늘에서 내려도다. 우리 민족은 만복을 받아안았구나.》

로인은 허연 수염을 내리쉴며 기쁨에 넘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렸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자 룡마는 다시 바위로 변하였다고 한다.

지금 염분혁명사적지에 있는 룡마바위는 그날에 바위로 굳어진 룡마라고 한다.

김우경

## 가사

# 통일 6. 15

곽명철

우리 맞고 보내온 날과 날중에  
온 겨레가 환희속에 맞은 6. 15  
분렬의 고통을 기어이 가실  
우리 민족 의지비끼 통일 6. 15

긴긴세월 끊어진 혈맥을 잇고  
우리 민족 힘을 합쳐 빛낼 6. 15

외세없는 내 나라 내 조국땅을  
후대들께 물려줄 통일 6. 15

통일의 이정표 세워왔으니  
통일축포 올릴 날도 멀지 않았네  
민족의 밝은 태양 우러러보며  
길이길이 노래하자 통일 6. 15



## 붉은기수호의 철령에 대한 시의 철학세계

-서사시 《철령을 넘어》에 대하여-

김덕선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한 선군철학, 정치철학을 안고있는 선군시대에 대한 시는 마땅히 그가 가지고있는 깊은 철학적정서세계에 의해서만 시의 훌륭한 사상에술적 높이에 오를수 있다.

서사시 《철령을 넘어》 (김만영작)는 선군시대를 향도하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에 대한 깊은 철학적세계를 정서적으로 일반화한 또 하나의 명작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서사시 《철령을 넘어》는 시인에 의하여 발견된 시의 철학세계, 정서세계에 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선군혁명위업과 함께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인생관, 혁명관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에 대한 진실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철령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천명하고있다는데 그 형상의 높은 경지가 있다.

### 향토와 조국, 사랑과 승리의 의미

서사시는 종군기행시형식을 띠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로정을 따라가면서 시인의 서정을 통한 장군님의 사상정서세계를 펼쳐보이고있으며 그것을 깊은 철학적정서세계로 일반화함으로써 선군령장이 지닌 사상의지와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훌륭히 시화하고있다.

서사시의 제1장은 《야전장군과 마라초담배》이다.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신 거룩한 선군의 자욱을 따라 1211고지에 오른다. 시인의 사색은 태양절에도 휴식을 미루시고 병사들을 찾아오시여 그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경건히 우러른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시인의 사색은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 사색의 세계를 따라선다.

《1211고지방위자들은 모두다 영웅들》이라고 하시며 조국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친 영웅전사들의 넋을 안고 조용히 시를 읊으시는 세계를 통하여 1211고지방위전사들

을 잊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숭고하고도 숭엄한 정서세계를 펼쳐보이며 문득 마라초담배를 찾으시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에 시적환상의 나래를 펼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이하여 마라초를 찾으시는가. 이에 대하여 시인은 전투를 치른 다음 마라초를 돌려가며 피우던 1211고지용사들과 그들의 위훈을 잊지 못하시여 추억하시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를 파고들며 《1211고지에서 마라초를 피우니 / 참 별맛이라고/ 지금도 화선용사들이 피우던/ 구수한 마라초냄새가 풍기는것 같다고》 하시며 장군님께서만이 느낄수 있는 야전미에 대한 철학적사색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마라초 너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땅이였고  
고향이였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였다  
...

변절자 비겁분자들이  
수치를 걸머지고는  
결코 맛볼수 없는 마라초의 진맛  
그것은  
향토의 맛  
승리의 맛

그리하여 우리의 장군님께서 그 누구도 느낄수 없는 마라초의 진미를 느끼시는것이다.

시는 이와 같이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1211고지용사들을 추억하시는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통하여 그 조국의 운명을 지켜야 할 령도자의 사명감으로 깊은 사색에 잠기시는 장군님의 정서세계를 더욱 승화시켜나가고있다.

그에 대한 시적형상은 전화의 날 지혜산에 오르시여 1211고지전투를 지휘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을 생각하시며 《수령님의 한생은/ 시련에 찬 전장에서 의 한생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수령님의 총대위업을 총대로만 빛낼수 있기에 전선시찰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를 이렇게 토로한다.

수령님 넘겨주신  
우리 공화국 우리의 사회주의는  
최전선에서만 지켜낼수 있기에  
철령을 넘어  
야전사령관이 되신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

이 얼마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대철학이 심오히  
비껴있는가.

조국의 운명을 수호해야 할 정도자의 사명을 그  
리도 깊이 간직하고계시는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  
서는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며 그들이 피우는 마  
라초담배도 허물없이 찾으시는것이다.

시는 향토와 조국, 사랑과 승리의 의미를 담은  
1211고지의 마라초담배의 향기의 진맛을 느끼시는  
장군님의 정서세계를 통하여 장군님의 조국수호를  
위한 선군위업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시의 형상을 위한 이 자그마한 마라초세부는 그  
얼마나 깊은 철학적정서세계에로 독자들을 이끌어  
가는가.

이리하여 서사시의 제1장 《야전장군과 마라초  
담배》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사상감정을  
마라초라는 시적세부로 형상함으로써 고향과 조국  
을 사랑하는 병사만이 승리할수 있다는 삶의 진리  
를 심오하게 보여주고있다.

시는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애  
국애민의 넓고도 심원한 정서세계를 마라초에 귀착  
시켜 노래함으로써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보여주는  
높은 시적형상을 낳고있다.

여기에 시의 발견이 있고 철학세계가 있으며 생  
활진리의 깊은 의미가 있다.

## 사생결단의 인생관과 혁명관

인생관에 대한 문제는 장구한 세월 문학이 탐구  
해 온 미학적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생관은 무엇에 기초하고있으며 어떤 인  
생관이 아름다운것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군시대 우리 장군님의 인생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심오한 철학적사색이  
없이 밝혀낼수도 없는 시형상의 어려운 탐구과제  
이다.

서사시는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무게를 가진 시형  
상의 탐구과제를 제2장 《사생결단》에서 감명깊  
게 형상하고있다.

《사생결단》에서는 시의 처음부터 《사생결  
단》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시인의 호소로  
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늘 써오고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것은 이 《사생결단》이라는 말속에 선군  
시대의 선군철학, 정치철학이 있으며 인생철학이  
있기때문이다.

서사시는 이 《사생결단》이란 말이 담고있는 깊  
고도 심원한 세계를 선군령장이 지니고계시는 사상  
의지를 심장으로 깊이 체험하고 그 세계를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장군님과 선군시대  
군대와 인민이 지닌 인생관, 혁명관에 대한 참다운  
대답을 주고있다.

《사생결단》이란 말 그대로 사는가 죽는가 하는  
갈림길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지니  
는 신념과 의지이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  
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장군님의 이러한 사생결단의  
각오가 가지는 철학적심오성은 단순히 인간이 살고  
죽는 문제로가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  
되는 문제라는데 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우리 조국과 인민이 어떤  
길로 나갈것인가 세계가 우려하고있을 때 시대와  
력사, 혁명의 요구를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민족앞  
에, 세계앞에 거연히 서신분은 바로 우리의 장군님  
이시였다. 조국을 수호하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 사  
생결단의 길이며 이 길은 군대를 믿고 군대를 찾아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로부터 시작된것이다.  
그리하여 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거쳐 철령을 넘으시는 빨찌산장군의 야전생활에 대  
하여 사색을 펼치며 이 길우에 바쳐진 장군님의 선  
군위업을 심장으로 격찬하는것이다.

그이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에서  
보고도 받고 명령도 내리며  
전전선을 통솔하실수도 있으리

하나 그이는 다르시다

작전지도도  
위장망을 친 전방감시소에서 보시는분  
한손에 쌍안경을 드시고  
대공에 옷자락 날리시며  
적정에 대한 보고도 받으시고  
산발이 켑-켑 울리게  
온 전선에 명령을 내리시는분

시는 전선길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세계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구체적이고도 생  
동한 생활적화풍으로 펼쳐줌으로써 사생결단의 길  
이 어떤것인가를 시적형상으로 보여준다.

눈내리는 전선길에서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어깨로 밀고 오르시기도 하고 더는 차가 오를수 없게 되자 차가 못가면 걸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시며 눈덮인 얼음길을 걸어가시는 장군님의 형상은 사생결단의 길이 그 얼마나 시련에 차고 험난한 길인가를 보여주고있으며 이 길로 가신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말해주고있다.

...

전선길이 천리면  
위험도 천리  
전선길이 만리면  
사생결단도 만리

한번 내짚은 걸음은  
설사 그앞에 천길나락이 있다해도  
결코 돌아설줄 모르시는분  
한치의 예둬도 없이  
순간의 쉬임도 없이  
수령님 헤쳐오신 빨찌산행군길을 이어  
곧바로만 곧바로만 걸어오신  
선군혁명의 길

서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의지와 함께 백전백승의 전략가로서의 지략을 까치봉에 오르시여 적진을 굽어보시는 그이의 안광과 명장에 대한 신화적이고도 낭만적인 시적환상으로 보여주고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사를 전선에서 주도하시는 선군명장의 위력을 《선군주먹》에 비유하여 형상하고있다.

시는 선군명장의 지략을 《칼집》세부에서 더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서사시는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날뛰는 미제와의 싸움에서 《칼집》을 버리고 판가리결전장에 나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생결단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쉽게 외우지 말라  
사생결단이란 말을  
그것은 단순한 언어도  
그 어떤 상징의 대명사도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책임진  
위대한 혁명가만이 내릴수 있는  
목숨과도 같은것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승리와 미래를 띠관하는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만이 지닐수 있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생관이며 혁명관인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사생결단으로 자신의 한몸서슴없이 내대며 조국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여기서 기쁨을 찾으시고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 장군님의 인생관, 혁명관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는 이 세상에 없다.

서사시는 바로 이러하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세계를 《사생결단》이라는 짧고도 명료한 시어에 담아 형상하고있다는데 이 시의 형상이 가지는 철학적깊이가 있다.

## 사랑의 시찰, 믿음의 시찰

서사시 제3장 《류다른 시찰》의 시적내용이 가지는 철학적인 정서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이 사랑의 시찰, 믿음의 시찰로 하여 류다르다는것이다.

장군님의 전선시찰이 가지는 그 내용의 깊은 철학적의미는 우리 장군님의 전선시찰 그자체가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에 대비할수도 없고 또 찾아볼수도 없는 류다른 시찰이라는것이다.

과연 어떤 시찰이기에 그 시찰이 류다른것으로 되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 류다른 시찰을 통해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사시는 이러한 시적형상을 부각하기 위하여 1960년 대에 적들의 《경호함 56》호를 바다속에 수장시켰던 해안초소에 우리 장군님께서 오시여 이 초소를 지켜선 초소장과 그의 어머니와의 상봉을 마련해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전설적이고도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해안초소병사들의 생활을 보고받으시며 병사의 집주소를 적어두셨다가 병사의 어머니와 아들의 뜻깊은 상봉을 마련하여주신 이러한 전선시찰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었던가.

서사시는 이러한 우리 장군님의 류다른 시찰로 하여 철과 철이 맞부딪치고 섬광이 번쩍이는 엄엄한 최전연이지만 초소마다 전호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는 전연초소로 감수하게 하며 어머니와 아들과의 상봉으로 독자들을 이끌어간다. 인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 이것은 우리 병사들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우리의 장군님께서만 하실수 있는 시찰인것이다.

눈이 와도 얼지 않고  
비내려도 씻기지 않는  
아버이의 정이 굽이쳐흐르는 길  
밤이 와도 어둠이 덮이지 않는

가장 밝고 따스한  
해빛이 내리는 길

그래서  
평양에서 최전연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천리로 수천리로 멀고멀건만  
최전연병사들과 평양은  
그처럼 가까운 지척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바로 우리 장군님과 전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혈연적사랑이 있으며 믿음의 있다. 이러한 혈연  
적사랑과 믿음으로 하여 우리 병사들은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전연초소에 있건만 언제나 최고  
사령부와 함께 있다는것이다.

서사시는 이를 통하여 장군님의 류다른 시찰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는바 그것은 바로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시찰, 믿음의 시찰이라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시찰이 류다른것으로 되  
는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총대의 주인인 우리 병사  
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이 그 어떤 원쑤와의 싸움  
에서도 죽음을 모르고 오직 승리만을 아는 무적의  
병사들로 자라나게 한다는것을 확신하신것이며 이  
러한 병사들이야말로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더 강  
한 우리의 억제력으로 된다는것을 보신것이다. 여  
기에 서사시의 3장 《류다른 시찰》이 가지는 시의  
철학세계가 있고 전선길에 계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에 대한 형상의 높이가 있다.

## 선군길에서의 필연적인 법칙

서사시의 매장마다에는 참으로 깊은 철학의 세계  
의 것들어있다.

서사시 제4장 《인연인가 행운인가》는 우리 장  
군님과 병사들이 만나는것은 그 어떤 인연, 행운이  
아니라 법칙이라는 철학세계이다. 시는 바로 이러  
한 심원한 철학적정서를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끝없  
는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차례지는 기쁨과 행복  
또는 사변적인 일을 두고 그 무슨 인연이든가 행운  
을 론하며 그러한 인연, 그러한 행운은 쉽게 차례지  
지 않는것으로 말하는것이 범상한 일로 되고있다.

그러나 서사시 4장 《인연인가, 행운인가》에서  
는 장군님과 병사가 언제나 만나는것은 그 어떤 인  
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이라는것을 노  
래하고있다.

법칙은 필연성을 띠고있으며 영구성을 띤다. 시  
는 이러한 법칙을 전선길에서 찾고 우리 장군님과  
병사들이 만나는것이 왜 법칙으로 되는가 하는 철

학세계를 정서적으로 형상하고있다.

최전연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병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병사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결같이 장군님을 그리워하며 그 그리움을 안고산다.

시인은 그러한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숨결소  
리》, 《장군님의 발자욱소리》를 들으며 영웅이 수  
많이 배출된 군부대에 이른다.

여기서 무엇을 통하여 이 법칙에 대하여 말할것  
인가 하는것이 시의 형상적과제였다. 시는 이러한  
심오한 문제를 론리와 설명이 아니라 병사들의 생  
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으로써 해답을 주고있다.

그것이 《꿈》에 대한 세부의 발견이다. 그에 대  
한 시적형상은 오종흙7련대칭호를 쟁취하고 장군  
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린 부대여서인지 장군님께서  
오시는 꿈을 자주 꾀다는 병사들의 진실한 생활속  
에서 꿈에 뵈던 장군님을 이 전선길에서 정말로 만  
나뵈게 되는 시적계기를 설정하게 되었다.

시는 이러한 《꿈》의 세부를 펼치고 그 꿈을 부  
정하는 정서적감정선을 시의 기본정서적흐름으로  
전개 해나가고있다. 이리하여 장군님을 만나뵈게  
되는것은 꿈이 아니라는것속에 언제나 최전연에 계  
시는 선군령장의 품모가 있다.

정녕 우리의 장군님께선 그 언제나 최전연에 계  
시기에 전연의 전사들과 만나는것은 꿈이 아니며  
이것은 우연도 행운도 아닌 필연적인 법칙이라는것  
이다.

이에 대한 시적주장을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한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휘날리시며  
장군님 가고가시는 전선길을 따라  
신심에 넘쳐 걷는 종군길  
그이는 언제나 전선에 계시기에  
이 길에서 또다시  
그이를 가까이 만나뵈게 되리

이는  
그 무슨 우연도  
그 어떤 행운도 아닌  
야전장군과 선군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의 필연  
하나의 법칙

서사시에서 시인이 발견한 이 법칙은 우리 장군  
님께서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기에 장군님  
과 병사들이 만나는것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필  
연적인 법칙으로 된것이다.

이 시가 안고있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은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과 병사들이 생사고  
락을 같이 하는 혼연일체의 운명체를 이루고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구우에 그 어떤 모진 광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조선에서만 있는 하나의 영원한 법칙이다. 이러한 법칙속에 선군혁명 이 있으며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철학이 있는것이다.

자연과학분야에서 그 어떤 법칙을 찾아 사회적진보에 영향을 주는것도 귀중하지만 오늘 선군시대의 사회정치적생명체에 대한 법칙을 한편의 시에 담고 이를 사람들의 심장속에 심어주는것은 그 어떤 과학적법칙에 대비할수도 없는 거대한 힘을 낳는다. 그것은 이 법칙이 곧 조국수호의 법칙으로 되기때문이다.

여기에 시인의 사색깊은 철학성이 있고 정서적체험의 깊은 철학세계가 있는것이다.

서사시 제4장에서의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형상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선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진실하게 펼쳐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야전생활에 습관되었기에 이 야전생활이 아니고서는 밥맛도 잃으시고 잠도 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선 가마치와 길가의 샘물을 달게드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시는것이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장군님의 야전생활을 놓고 참으로 심오한 철학세계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폭풍치고 우뢰우는  
천리 먼 최전연에  
장군님의 집이 있다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자주의 궤도로 역사를 떠밀어가는  
세기의 사령탑  
최고사령관의 집무실이 있다

그이의 생활은  
야전생활  
그이의 령도는  
야전령도  
아, **김정일**장군 -그이는  
한평생 최전선에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백두의 야전사령관  
불세출의 야전장군

이렇듯 시의 철학세계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떤분이신가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리하여 서사시 《철령을 넘어》는 이 철령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과 떼어놓을수 없는 《민족운명의 철령》, 《붉은기수호의 철령》, 《**김정일**승리의 철령》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이렇듯 매장마다에서 독자적인 철학세계가 깃든 심오한 생활적인 이야기와 시적세부들을 형상의 바탕에 깔고 그것을 종군기행시형식의 감정조직에 일관하게 하나로 꿰어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면불후의 선군위업을 다면적으로 폭넓고도 심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철학세계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 점 검

### 권래여

원주의 포화에  
무너진 전호  
흙사태를 털며 일떠서는 전사들  
하나 둘...

소대장은 점검을 한다  
누가 있고 누가 없는가  
부상자는 그리고 탄약은...

소대장의 불같은 호명에  
쓰러진 전우 대답없는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대답했네  
죽어도 떠날수 없는  
조국의 고지 《나의 고지》에서  
전우의 더운 피 식기도전에  
어찌 그 이름 지을수 있단 말인가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어  
살아도 죽어도 함께 있는 그 이름들과 같이  
복수의 총부리를 천만으로 곱해든  
멸적의 싸움터엔 빈 전호가 없기에

## 맑은 하늘

조승찬

전선정황은 각일각 팽배해졌다. 그 팽배성은 사단지휘부로 분주히 오르내리는 참모일군들의 여느 때없이 서두르는 모습에서 그리고 군사지휘관들의 심각하고도 굳어진 표정에서 뚜렷이 느껴지고있었다. 더더욱 뚜렷한 조짐을 보인것은 여직껏 여기저기서 그칠새없이 벌어지던 적아 쌍방간의 고전이 똑 그치고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며칠째 계속되고있는것 이었다.

사단장 최무현은 감시소를 내리자 승용차에 올라 제2세대인 칼봉뒤꼴짜기로 향하였다. 지금 그곳에서는 32련대 8중대동무들이 스무날 가까이 203. 7 고지습격전투에 대한 모의훈련을 맹렬히 벌리고있었다. 그 고지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사단총공격명령을 내릴수가 없었다. 벌써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해 보았으나 번마다 실패하였다. 놈들은 고지말에 2중 3중의 가시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매설해놓은 데다 그 아래로는 근 100여메터가 넘는 자갈밭이 펼쳐져있어 도저히 은밀하게 접근해갈수 없었다. 그래 32 련대 8중대의 모의훈련에서는 측면공격을 시도해보았는데 그 가능성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인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측면공격시 만약 적들에게 로출되는 경우 습격조의 전원은 전멸을 면치 못하게 된다. 측면으로 돌파하자면 적구로 들어가 40여리 수림속을 헤쳐야 하고 그곳에서 높이 100메터가 넘는 벼랑길을 뚫아올라야 한다.

모험이 아닐가. 수십명 병사들의 생명을 내걸고 모험할 권리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하여 최무현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칼봉뒤꼴짜기 입구에 들어서는데 풀숲에서 송아지 한마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뒤따라 까까머리에 흰내의바람인 한 병사가 뛰쳐나오다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승용차를 보고 우뚝 멈춰섰다.

최무현은 차를 세웠다. 병사는 뜻밖에 나타난 사단장을 보고 흠칫 굳어지더니 차렷자세를 취한채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열에 널끔살이나 되었을가, 코밑에 숄털이 보시시하고 불이 능금알처럼 빨간 애어린 병사였다. 내의며 바

지도 맞지 않아 후령후령했다.

《동문 왜 대낮에 내의바람으로 돌아다니오, 군대가?》

최무현은 차안에 앉아 엄하게 물었다.

《오늘은 휴식일이여서 개울가에 빨래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송아지가 콩밭에 들어갔더니...》

《콩밭에?》

최무현은 벌써 길건너편 저쪽에 가서 유유히 물을 뜰는 애된 송아지를 바라보았다. 엿저녁 참모회의에서 32련대 8중대동무들에게 오늘 휴식명령을 주라고 지시한 생각이 났다.

《동무도 8중대요?》

《예.》

《그런데 콩밭은 웬거요?》

《이곳 샘골마을사람들이 심었던것인데 지금은 모두 덕산리로 소개되어가서 주인이 없습니다. 이제 사단작전이 끝나 전선이 남으로 이동해가면 곧 주인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짹짹이 중대동무들이 콩밭김을 매주었는데 후방부 달구지가 오면서 따라왔던 송아지가 그만...》

《중대장동무 있소?》

《저희들이 내려올 때 중대부에 있었습니다.》

(흠, 콩밭김을 매주었다? 괜찮은걸!)

최무현은 32련대 8중대장 한병호를 이미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싸움에서 용맹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지휘관이였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그가 32련대 8중대에 사단작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습격전투의 임무를 주어 20일 가까이 모의훈련을 하게 한것은 이곳 중대가 싸움에서 전투마다 승리의 기록만을 가지고있는 중대라는데 있었다. 중대장이 몇차례 교체되고 대원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통만은 변함없이 고수해오고있었다.

그런데 이곳 중대동무들이 훈련의 그 바쁜속에서도 짹을 내며 주인없는 콩밭김까지 매주었다니 마음이 혼 혼해지며 여직 무겁던 가슴이 다소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내색않고 엄하게 한마디했다.

《그래도 병사는 어디서나 복장착용은 단정해야

지. 송아지가 콩밭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단속하오.》

《알았습니다.》

병사는 곳곳이 선채 대답하였다.

승용차는 다시 발동을 걸어 중대부로 올라갔다. 사단장 최무현이 차에서 내리자 한병호중대장이 황급히 뛰어나와 영접보고를 하였다.

《쉬엇하오.》

최무현은 손을 들어 그의 인사를 받고는 금줄이 간 장령모를 슬쩍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송림이 우거진 둔덕우를 올려다보았다.

《중대동무들이 휴식한다지?》

《예, 스무날만에 처음으로...》

《훈련은 잘되오?》

《잘됩니다. 병사들은 당장이라도...》

《싸우고싶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명령만 주십시오.》

한병호는 자신만만한 기세로 힘차게 대답했다.

《싸움준비를 좀 볼가. 무기고는 어디 있소?》

《병실안에 있습니다.》

《탄약은 다 받아왔겠지?》

《예, 매 병사들에게 한정량씩 공급할수 있습니다.》

《어디 돌아보지요.》

최무현은 한병호를 앞세우고 중대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의 출현은 온 중대를 부쩍 긴장시켰다. 쉬쉬하며 돌아가는것이 금시 전투명령이라도 떨어진다고 예측하고있는듯 싶었다. 어떤 병사들은 벌써부터 흥분하여 눈망울에 열기를 띠고 번뜩였다. 오래간만에 휴식명령을 받고 개울가로 빨래하러 내려갔던 병사들도 비상소집명령이라도 받은듯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수군거리고있었다.

하지만 최무현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듯 태연한 표정으로 일반적인 전투준비상태만 대충 훑어보며 병실주변을 돌아보고있었다. 그는 아직 40전의 나이이지만 전사들속에서는 흔히 《아바이》로 불리우고있다. 백두산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그는 혈전만리를 헤쳐온 백전로장으로서 성격이 호방하고 소탈한 장령이다. 그는 전사들과 틀을 차리고 간격을 두는것을 제일 싫어하였으며 어디가나 그들과 잘 어울렸다. 하지만 일단 사업에 들어가는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융화를 모르는 엄격한 지휘관이였다. 그가 가장 성이 났을 때 하는 욕은 《동무도 군인이요?》 하는 말이었다. 군복입은 사람들

두고 군인이냐고 따져묻는것은 그의 행동, 그의 차림, 그의 말투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품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나무라는 호된 비판이였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사단장에게서 그런 추궁을 받을때면 누구나 낯색이 새까맣게 질리곤 하였다.

최무현이 앞서고 그뒤로 한병호중대장이 따르고있었다. 그들보다 몇걸음앞에서는 사단장의 부관이 그림자처럼 붙어서있었다. 로송 몇그루 서있는 둔덕에 오르자 거기에는 중대 야외휴식장이 있었다. 그 휴식장 한가운데 눈길을 주었던 최무현은 《웁?!》 하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것은 놀람이라기보다 환희에 가까운 탄성이였다. 거기에는 한개가 어른들 주먹만큼 커다란 장기쪽이 놓여있는 대형장기판이 설치되어있었던것이다. 참나무를 잘라 썰고 다듬어서 만든 그 장기쪽은 어찌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마치 이름난 공예가가 만든 공예품같았다. 장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앞을 그냥은 못지날만큼 호기심을 끄는 멋진 장기판이였다.

최무현의 눈에 웃음이 피여오르며 입귀가 벅글췌해졌다.

사실 최무현은 평소에 남달리 승벽이 센 장령이었는데 그가 제일 즐기는것은 장기였다. 사단관하에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을만큼 소문이 자자했다. 성미가 불같은 그는 장기 한판을 두는데 5분이상 걸리지 않았다. 시종 공격을 위주로 하는 그의 장기는 상대방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속도경기, 완력경기였다.

《괜찮은걸, 여유가 있소. 누가 만들었소?》

최무현은 장기쪽을 집어 이쪽저쪽 옮겨잡아 손맛을 가늠해보며 물었다.

《3소대 2분대장동무가 만들었습니다.》

《재간이 있구만!》

《그 동무의 아버지가 소문난 대목이었답니다.》

《그래? 중대장, 한판 돌가. 8중대장이 32련대에서는 손꼽히는 장기명수라면서?》

시까스르는데 한 사단장의 어조는 분명 걸고드는 투였다. 중대장도 장기라면 누구한테 지는 성미는 아니여서 점잖게 픽 웃었다.

《그만두십시오. 괜히 전사들앞에서 사단장동지의 체면만 깎입니다.》

《오라, 제법 큰소리걸!!》

최무현은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이쯤 되고보니 휴식장옆에 서있던 병사들도 입가에 웃음을 짓고

두 지휘관의 악의없이 이죽대는 모습을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긴장감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좋아, 중대장 앉으라구!》

최무현은 먼저 장기관에 마주 앉으며 굵은 금줄이 간 장령모를 이마위로 더 쑥 올리였다. 이것은 사단장의 기분이 대단히 좋다는것을 의미한다.

《정 겨루어보잡니까?》

《큰소린? 어서 앉으라니까.》

《좋습니다.》

중대장은 마치 못해하듯 그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러자 사단장의 부관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레 말하였다.

《사단장동지, 시간이...》

《일없소. 8중대장이 제법 호기를 부리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가만 있을수 있소? 그냥 지난다면 군복을 벗어야지. 허풍쟁이들은 제때에 기를 꺾어놔야 해!》

최무현은 장기쪽을 올려놓으며 집짓 으름장을 놓았다. 중대장도 득의만만한 웃음을 짓고 사단장의 공박해 승수해나섰다.

《누가 허풍쟁이인가는 두고봅시다. 공연히 단정부터 앞세우지 마십시오.》

《허, 중대장배짱이 괜찮다. 월슨이나 손병욱이 들으면 꽤나 놀라겠는걸!》

월슨은 사단과 맞서있는 적사단장 미군고문이고 손병욱은 남조선군대 사단장이다. 지금 그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며칠째 계속되고있는 적아 쌍방간의 무시무시한 정적... 적들도 부단히 새 병력을 투입하는것으로 보아 조만간에 반공격으로 나올수 있다. 사단의 총공격은 그전에 단행해야 한다. 엿저녁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적들도 끊임없이 정찰을 들여보내 우리의 의도를 탐지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있다.

이때에도 최무현의 머리속에는 이런 생각이 콕 들어차있었으나 그것을 알리 없는 전사들은 사단장과 중대장의 장기시합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법석 떠들며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뭐, 사단장과 중대장이?...》

누군가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서며 숨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쉿, 조용하라구!》 또 누군가가 그의 말허리를 꺾으며 주의를 주었다. 담을 이룬 전사들은 숨을 죽인채 저마끔 긴 목을 빼들고 장기판을 들여다보았다. 장기시합은 곧 시작되었다. 두사람 다 자신만만

하고 여유있는 태도였다.

《쓰십시오.》

장기쪽을 올려놓자 중대장이 먼저 상급앞에서의례절을 지켜 깎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중대장이 먼저 쓰라구.》

최무현도 태연한 표정으로 옷사람으로서의 체모를 지켜 점잖게 사양하였다.

결국 중대장이 첫수를 썼다.

처음 몇고래는 장기쪽이 순조롭게 이쪽저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최무현이 갑자기 면상앞에 나와있던 차로 상대방의 면포를 까버리고 뒤이어 익측의 포를 상대방의 중심깊이에 들이박으며 《장훈이야!》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른후부터는 편속 불같은 독촉을 들이댔다.

《중대장, 뭘해. 써야 장기지!》

《예, 씁니다.》

《뭘 그렇게 오래 구물거려?》

《...》

《자, 어서 쓰라니까.》

중대장의 얼굴에선 점차 웃음이 가셔졌다.

《자, 이거 답답하다. 중대장 어디 갔어?》

최무현은 전사들을 둘러보며 자못 흡족한듯 씩긋 웃었다. 게다가 그 다과대는 소리에 중대장은 통 정신을 차릴수 없는듯 갈팡질팡거렸다. 흥이 난 사단장의 청높은 목소리만이 휴식장을 들썩하게 흔들어놓았다.

전사들은 떠들썩하게 소란을 피우며 중대장을 수세에 몰아넣는 사단장의 흥에 겨운 모습이 재미있어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중대장은 얼른 궁을 돌려놓았다.

《그럼 차를 먹겠어!》

최무현은 귀사를 넘어 이번에는 반대편의 차를 겨누며 엄포를 놓았다. 그의 장기수는 다양했다. 어떤 때는 궁앞을 지키고있던 면상이 하찮은 졸을 먹자고 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포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과 서슴없이 바꾸기도 하였다. 중대장은 최무현의 왕창같은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였다. 철통같이 진을 쳐놓았던 방어선이 삽시에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몇분 못가 사태는 엄중해졌다. 최무현의 5줄이 전부 살아서 상대방의 최종방어진을 한걸음한걸음 좁히며 무서운 기세로 육박해오고있었다.

전사들은 사단장의 높은 장기수에 탄복했다.



중대장의 얼굴에 초조와 불안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나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형세를 돌려세울수는 없었다. 중대장은 어떻게 되어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수 없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며 줄곧 장기관만 들여다보았다.

《중대장, 안써?》

《이제 씁니다.》

《동문 씁니다, 씁니다만 하지 어디 써? 자, 장훈이를 받으라니까. 잘은 둘러댄다. ... 그럼 이 상장훈인 어떻게 하구?》

첫판은 몇번 떠보지도 못하고 중대장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최무현은 금줄이 간 장령모를 또 한번 이마위로 쑥 올리밀며 기분이 좋아 벌쭉거렸다. 여지없이 참패당한 중대장은 전사들앞에서 망신당한것이 분한듯 거친 숨을 내뿜며 다시한번 놓자고 제기하였다.

최무현은 손을 저으며 입을 싹 씻었다.

《아니, 난 한번밖에 안해! 싸움에서 한번 지면 다시 뽀수없는 이악네들처럼 불귀가며 싸움할가. 군대가!》

《이제 뭐 싸움과 같은겁니까? 국제경기들도 3회 2승이라든가 5회 3승으로 판정하지 어디 첫판에 끝나는게 있습니까?》

《그건 그래도 우리야 군대가 아닌가. 군대는 무엇을 하든 단방치기야! 8중대장이 련대에서 소문난 장기수라기에 어떤가 했더니 이제 보니 영 형편없구만. 좀더 련습해야겠어!》

최무현은 느물느물 웃으며 중대장의 약을 부쩍 올려주었다. 중대장은 얼굴이 익은 수수떡처럼 시뻘개가지고 다시한번 겨뤄보자고 졸라댔다.

이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온 식당직일관이 중대장의 귀에 대고 식사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렸다. 중대장은 좀 기다리라 하고는 사단장을 향해 돌아왔다.

《국수가 풀어집니다.》

걱정이 담긴 식당직일관의 독촉에 중대장은 벌컥 화를 내었다.

《기다리라지 않소!》

그리고나서는 《사단장동지, 정 이러시겠습니까? 한번만 다시 합시다.》라고 투정조로 떼를 썼다.

《중대장이 꽤 검질긴데. 집요하구만!》

최무현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며 병시병시 웃었다.

《다시 하면 이길것 같은가?》

《이겁니다.》

《그럼 꼭 한번이요?》

《예.》

《5분간이요.》

《좋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대장은 최무현이 응할것 같은 기색에 그가 요구하는대로 뭐나 선선히 접수하였다. 그 모습이 재미있어 전사들은 입을 싸쥐고 키득거렸다.

2회전이 시작되었다. 경기는 더욱 치열해지고 긴장해졌다. 중대장은 처음부터 단단히 방어진을 치고 장기쪽을 심중히 옮겨놓으며 역습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무현이 첫 몇수를 쓰기 바쁘게 불같은 독촉을 들이대자 그는 사색이 형클어지는듯 당황해하였다.

《답답하구만. 벌써 3분이요!》

최무현은 시계를 내보이며 팔목을 흔들었다.

《중대장, 뭘 그렇게 꾸물대? 오래 생각할게 있는가. 써야 장기지!》

휴식장은 떠들썩했다. 가뜰이나 청높은 사단장의 목소리가 한껏 흥에 떠있다보니 주위가 소란했다. 중대장은 혼란된 사색을 수습하지 못한채 성급히 장기쪽을 옮겨놓았다. 그러자 최무현이 지체없이 말을 쓰고는 또다시 재촉하였다.

《벌써 5분 지났소!》

《...》

《왜나 오래다. 중대장 없는가?》

그 성화에 잔뜩 신경이 곤두섰던 중대장이 한수를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비길듯 하던 장기가 이번에도 중대장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야- 하고 전사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역시 사단장이 다르다는 존경과 선망에 찬 눈빛들이 최무현을 향해 날아갔다.

《안되겠군! 중대장수준이 이 정도라면 32련대도 알만 해!》

최무현은 흡족한 기분으로 물러앉으며 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꺽꺽 눌러 닦았다. 땀을 쌓고있던 구경군들도 기분이 좋아서 하나둘 물러섰다.

이때였다. 사람들의 뒤편에서 목을 빼들고 넘겨다보던 나 어린 병사가 최무현앞에 한걸음 나섰다.

《사단장동지, 저하고 한번 겨뤄보지 않겠습니까?》

《영?!》

당돌하고도 엉뚱한 전사의 제의에 최무현은 놀랐다. 그 놀람이 더욱 커진것은 그 병사가 다름아닌 아까 풀안문어귀의 길가에서 만났던 맨머리바람의 나어린 병사라는데 있었다. 방금 자리에서 일어서던 중대장이며 흩어져가던 병사들도 모두 아연하여 그를 놀랍게 돌아보았다. 그는 이제 입대한지 불과 4개월밖에 안되는 신입병사였던것이다.

《동무가?》

《예, 한번 거뿔봅시다.》

《자신있소?》

분명 알잡아보는 사단장의 물음이었다.

《자신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거뿔봐야 하지 않습니다니까?》

《그렇다?》

최무현은 전사의 대답이 흥미있었다. 어디서 이런 엉뚱한 녀석이 나타났는가. 그러나 중대장은 전사의 돌발적인 도전에 아연하여 난처해하였다. 자칫 하다가는 그로 하여 중대의 망신을 당할가봐 저어하는듯 싶었다. 중대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서 식당에 국수를 해놓았으니 어서 그리로 가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여직 말한마디 없이 초조한 기색을 짓고있던 부관도 급히 다가와 귀속말로 속삭였다.

《사단장동지, 오후엔 련대지휘부에 들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밤에도 꼬박 새우시고는…》

《가만들 있소.》

그들의 청을 일축해버린 최무현은 전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 자신있단 말이지?》

《…》

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중소, 전사동무 앉소.》

전사는 언짢게 흘겨보는 중대장을 피곳 쳐다보고는 장기판앞에 공손히 마주 앉았다. 한병호는 할수없이 장기판옆에 엉겨주춤 서버렸다. 부관도 돌아서서 나직이 한숨을 지었다. 사단장이 일단 결심한 이상 그를 돌려세울수 없었던것이다. 어서 빨리 한판이 끝나기를 바랄뿐이었다.

전사들은 와-하고 다시 장기판에 모여들었다.

이번에는 사단장과 코흘리개같은 애어린 전사와의 대결이었다.

최무현은 장기쪽을 판우에 올려놓으며 오금을 박듯 엽포를 놓았다.

《일수부동이요?》

《예.》

《한번밖에 안해?》

《좋습니다.》

《자, 쓰오.》

《먼저 쓰십시오.》

《약자가 먼저 쓰는 법이야!》

《그럼 제먼저 쓰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자는 아닙니다.》

전사는 무척 긴장되어있는듯 하였으나 속대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이 친구 제법인걸! 중대장, 아주 피짜로구만!》

최무현은 중대장을 돌아보며 찢찢 웃었다. 한병호도 그제서야 비죽이 따라웃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최무현은 종전처럼 면상을 놓고 5줄로써 방어진을 철통같이 구축한 다음 량차와 량포를 가지고 련방 공격으로 넘어갔다.

《전사동무, 뭘하오?》

《…》

《어서 써야지!》

례의 그 불같은 최무현의 독축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사는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없이 얼굴을 수긋하고 장기판만 들여다보고있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없었다. 얼마후 그가 장기쪽을 옮겨놓자 최무현은 지체없이 포를 넘겨가며 《장훈이야!》 하고 벽력같이 소리쳤다. 정신을 가릴수 없게 하는 드세찬 공격이었다. 전사는 갈팡저러 지는 마음을 다잡기 어려운듯 긴숨을 조용히 내뿜고는 줄곧 장기판만 들여다보았다.

《궁을 돌리라우!》

누군가 옆에서 참다못해 혼수를 들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겨끔내기로 떠들었다.

《상으로 막아도 되잖아.》

《그럼 줄은 공짜가 아닌가.》

《귀사로 막는게 좋겠어!》

그래도 전사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최무현은 기다리기에 지쳐 속에서 번열이 일어 목 단추를 끌러놓으며 어서 쓰지 않는다고 야단을 쳤다.

《전사동무, 어떻게 된거요. 있긴 있소? 어서 장훈이를 받아야지!》

흥이 난 최무현은 이미 먹은 장기쪽을 이손저손으로 옮겨잡으며 절꺼덕거렸다. 그리고는 구경군들을 향해 눈을 꿈쩍해보였다. 구경군들도 썩긋썩긋 웃었다. 그때 전사가 구석쪽에 박혀있던 차를 가져

다 앞을 막아놓았다.

《이건 뭐야. 그러니 차대하잔 말이지. 시시하구만. 이건 완전히 완력경기 아닌가?》

《필요한 때야 차라도 아끼지 말아야지요.》

《그래?》

위기는 간신히 수습되었다. 그 순간 최무현은 전사가 던진 그 한마디 말이 가슴을 쿵 울리며 뇌리를 쳤다. 필요한 때는 아끼지 말란 말이지. 옳아, 이제 전사가 차를 쓰지 않았더라면 방어진은 여지없이 허물어져내렸을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제때에 결심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사단총공격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고 따라서 전 전선에 걸친 최고사령관 동지의 작전적의도실현에 큰 지장을 주게 될것이다.

그런데 습격조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물론 전쟁에서 희생이 없앨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금싸래기같이 아끼시는 병사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것이 혁명군대지휘관으로서의 과연 옳은 결심이겠는가. 피는 적게 흘러면서도...

최무현의 사색은 계속되었다. 그러면서도 장기의 공격속도는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그가 쪽을 옮길 때마다 상대편에서는 왕청갈은데서 빈 구멍이 생기고 위기가 조성되곤 하였다.

《자, 이번엔 포가 걸렸어!》

최무현은 또 한번 다우쳐댔다.

《옳지, 그렇게 한다? 이건 어떻게 하구?》

그는 좌측구석에 있던 차를 내왔다.

전사는 얼른 줄을 쓸었다.

《그럼 이건?》

공격은 참으로 그칠새 없었다. 차가 나오고 포가 넘어왔으며 량쪽 말이 파죽지세로 밀려나왔다. 나중에는 면상앞에 진을 치고있던 5줄이 기동하기 시작하였다.

《자, 어서!》

최무현의 거듭되는 독촉속에서 수세에 빠져 찢찢매던 전사는 대담하게 익측에 있던 포를 상대측 중심깊이에 들이박으며 역습장훈을 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갑작스러웠던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최무현은 한참이나 장기관을 들여다보다가 귀사를 돌려놓았다. 그찰나 전사는 반대편 구석에 있던 귀사를 훌쩍 먹어치웠다. 마치 병아리를 채가는 독수리와 같은 날쌔 동작이었다.

《저런!》

최무현은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두눈만 껌적거리

며 얼없이 앉아있었다. 작전문제에만 음해있다보니 기묘하게 반격해오는 전사의 역습을 미처 가려보지 못하였다. 중대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전사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전사는 의기가 양양해서 장기에 온 운명을 걸기라도 한듯 정신을 쏟고있었다. 상대가 사단장이라는 관념은 꼬물도 없었다. 결국 상대방의 량포에 걸려 귀사 하나를 꼼짝 못하고 공짜로 때웠다. 버쩍 정신을 차려야 했다.

《제법 수를 볼줄 아는걸!》

귀사를 공짜로 때우고도 최무현은 그를 칭찬하였다. 이때 또다시 무엇인가 섬광처럼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이거야! 때를 놓치지 않고 들이대는 역습... 203. 7고지에 대한 측면공격을 실현하자면 바로 이런 역습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해. 그러자면 1참호와 2참호계선에서 적들에 대한 부단한 허위공격을 들이대어 그쪽으로 놈들의 시선을 끌게 하고 버랑을 툴아올라 3참호를 후면에서 불의에 기습해야 한다. 그 다음 정면공격과 배후타격을 배합한다면 영낙없이 적들의 방어진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져내릴것이고 고지는 손쉽게 타고 앉게 될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그는 흥분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 흥분속에 오래도록 잠겨있을수 없었다. 장기관의 형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상대방의 장기쪽들이 련속 반격으로 나오기 시작한것이었다. 방어진에 틀고앉아있던 전사의 차가 공격으로 이전하자 사태는 더욱 엄중해졌다.

전사는 차와 포를 엇갈아대며 련속 장훈을 부르다가 포를 반대편으로 슬쩍 넘기며 펄장을 불렀는데 그 찰나 상대편 중심깊이 들어갔던 최무현의 차가 걸려들었다.

《영, 그렇게 되였는가. 가만!》

그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뻗치며 물리려 하였다. 그러자 전사는 입이 뿌루통해서 《일수부동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딱 잡아땀다. 최무현은 흠칫 굳어져 그를 번히 바라보다가 껌-하고 입을 다시켰다. 기분이 언짢았다.

《좋아, 그까짓 차 없다고 내 장기 못두겠어.》 그는 속이 울컥하여 물리기를 단념하였다.

중대장도 낮빛이 새까맣게 질려 몸둘바를 몰라했다. 주위의 공기도 매우 험악해졌다.

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형세는 건잡을수 없이 기울어져 최무현의 장기쪽들이 추풍락엽으로 떨어져 지나갔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앞에 앉은 전사가

결코 허술히 대할 만만한 적수가 아니라는걸 깨달았다.

결국 첫판 경기에서는 최무현이 여지없이 패하였다.

《괜찮아! 수를 대담하게 쓸줄도 알고 제법 역습도 들어댈줄 알거든. 장기는 어디서 배웠나?》

그는 전사를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농자고 하였다. 전사는 사단장을 이겼다는 장한 생각으로 으쓱해하면서도 그의 칭찬에 쑥스럽고 민망하여 뒤머리를 긁적거리며 《배우기야 뭐...》 하고 입안의 소리로 웅얼거렸다. 옆의 동무들이 그가 일곱살적부터 할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장기를 배웠다고 알려주었다.

《력사가 깊구만! 할아버지는 뭘하오?》 하고 최무현은 또 물었다.

《농사를 짓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니, 그건 무슨 소리요?》

《지난해 겨울 미국놈들의 폭격에 돌아갔습니다.》

《그럼소? 그럼 집에는 누가 있소? 부모님들은 뭘하고?》

최무현의 관심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할머니 혼자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잘못되구...》

《그랬었구만!》

최무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됐소. 내가 공연히 동무의 아픈데를 물어와서... 이름은 어떻게 부르오?》

《안창덕입니다.》

《안창덕? 자, 쓰오.》

사단장은 화제를 돌렸다.

장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고간 이야기는 어떤든 두번째 경기는 서로가 다 단단히 속으로 버리고 있었던것만큼 시작부터 몹시 긴장되어있었다. 구경군들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있었고 선수들도 숨소리 하나없이 장기판만 들여다보았다. 이런 침묵속에서 이손저손으로 옮겨잡는 장기쪽소리만이 한결 또렷하고 야무지게 울렸다.

최무현이 얼핏 고개를 드니 중대장이 전사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눈짓신호를 하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분명 저주라고 하는것 같았다. 그러나 전사는 중대장의 눈짓에 수긍할수 없는듯 못본척하고 고집스레 장기판에만 정신을 쏟고있었다. 승벽심이 여간 센 녀석이 아니었다.

최무현은 사색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

고 장기에 집중했다. 그리고는 처음과 같이 련속 독촉을 들어댔다. 그러나 그 불같은 독촉도 암시가 담긴 중대장의 눈짓도 전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최무현은 이번에는 전술을 달리했다. 기동성있는 차나 말보다 상대적으로 기동이 완만한 상과 말로써 이쪽저쪽으로 옮겨놓으며 장기속도를 약간 늦추었다. 심지어 궁앞에 나란히 진을 쳤던 5줄을 한걸음 두걸음 전진시켜 상대편의 방어진을 향해 육박해갔다.

안창덕은 사단장의 의도를 간파 못해 잠시 주춤하였다. 어쨌든 정면으로 돌입해오는 5줄의 공격을 막아야 했다. 그는 줄을 모아 사단장의 5줄의 앞길을 차단하면서 필요하면 줄싸움을 시켜 줄과 줄을 바꾸려고 하였다.

최무현은 그 줄을 먹지 않고 옆으로 비켜섰다. 기여이 상대편의 방어진을 뚫고 종심깊이로 들어가려는 심산이 었다.

안창덕은 줄을 그대로 전진시켜 상대측 방어진으로 육박해갈것인가 아니면 돌입해오는 사단장의 줄의 앞길을 차단할것인가 망설이는듯 하더니 후자의 길을 택하였다.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해도 상대방의 줄이 자기 진지에 박혀 들어오면 예상치 않은 사태를 빚어낼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는 줄을 쓸어 상대방의 앞길을 막았다. 그러자 최무현은 바로 그것을 노렸던듯 말이 튀어나오며 전사의 상을 흠뻑 먹어치웠다. 그 순간 안창덕은 본격하여 차로써 상대방의 말을 까치웠다. 그때였다. 《장훈이야!》 하는 벽력같은 소리가 울리면서 최무현의 상이 불쑥 튀쳐 나왔는데 그 잘나 상대방의 차가 최무현의 포에 걸려들었다. 피할길 없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이것은 첫 접전시 전사가 한번 써먹었던 전술이었다. 달랐다면 그는 역경속에서 대담하게 반격으로 넘어가 대방을 수세에 몰아넣었다면 최무현은 줄과 말로써 그를 슬슬 유인하다가 불의적인 기습으로 타격을 가한것이었다. 안창덕은 때늦게 실책을 깨달았는듯 허둥거리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반대편에 있던 차를 써서 궁수비를 강화했다. 공짜로 떼우는것은 떼우는것이고 이제라도 사태를 역전시켜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엄중한 결과를 빚어낼수 있다고 타산한것 같았다.

최무현은 전사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보면 안창덕은 확실히 수가 높았다. 이 순간 그의 머리속에 작전계획이 또다시 떠올랐다

(유인전술, 역습공격! 그래, 어떻게 하나 이 배

합작전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쪽에서 허위공격으로 적을 유인하는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중요한것은 이곳 8중대 습격조동무들이 적구를 은밀히 뚫고 들어가 100여메터의 벼랑을 밤사이에 극복하여야 한다. 꽤 해낼가?)

이때 그의 눈앞에 아까 송아지를 따라 뛰쳐나오던 안창덕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가 들려주던 말이 새로운 의미로 되새겨진다.

주인들이 버리고 간 콩밭김을 매준 전사들, 이제 사단공격이 성사되어 전선이 남으로 이동한다면 마을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 전사들의 가슴엔 벌써 승리의 래일이 자리잡고있지 않는가. 게다가 안창덕전사는 원수의 폭격에 무참히 희생된 부모들의 원한을 가슴속에 안고있는 병사이다. 이들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내가 누구를 믿겠는가.

가슴이 설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기쪽만 절커덕거리며 태평스레 이죽거렸다.

《남의 말을 무작정 먹더니만 혼썰났지. 이게 바로 유인전술이란거야. 유인전술에 걸리면 누구나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거든.》

구경군들도 흥이 나서 씩긋긋 웃었다. 안창덕은 피가 달아오르는듯 굳어진 표정으로 장기판만 뚫어지게 지켜보고있었다. 여간 침착하지 않았다. 옆에서들 또다시 혼수들이 시작하였다.

최무현도 기다리기 답답하여 어서 쓰지 않느냐고 독촉하였다.

안창덕은 여전히 꿈쩍을 안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쪽을 옮겨놓았다.

《또 역습을 해오자는거야. 어림없어. 짐승도 한 번 빠졌던 함정에는 두번다시 안빠진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런 실책을 또 저지를가.》

그는 줄을 올리밀었다. 이렇게 장기쪽들이 몇고 꽤 오갔는데 안창덕의 면상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먼 포가 걸렸다. 그걸 피하느라 한 노릇이 그만 상대편이 반격해올수 있는 길을 띄워주었다. 엄청난 실수였다. 안창덕은 거침없이 사단장의 줄과 말을 끌어버리며 무서운 기세로 육박해왔다. 사태는 엄중해졌다. 안창덕은 어깨가 으쓱하여 긴장이 어렸던 얼굴에 웃음을 피여올리며 꼭 졸라뻤던 목단추도 끌러놓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병호중대장의 얼굴이 흠뻑으로 더욱 어두워졌다. 최무현은 사태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알았다. 아무리 들여다봐야 수습하기는 어려웠다.

《종소. 내 오늘은 졌소! 이만 하기로.》

그는 판우에 장기쪽을 털썩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이상 장기에 흥이 나지 않았다. 야! 하고 전사들속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안창덕은 사기가 나서 병글거리며 일어섰다. 사연은 어떻든 그는 사단장과의 대결에서 2:0이라는 압도적인 승부로 이기고 중대의 명예를 빛내인것이었다. 전사들모두가 그를 선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 앞단추를 풀어헤친 안창덕을 본 최무현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짓고 《전사동무, 단추를 채우오. 외모가 그게 뭐요?》하고 가볍게 나무랐다. 안창덕은 낮빛이 굳어졌다. 그제서야 동무들도 사단장의 기분이 대단히 엄해졌다는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중대장은 끝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가 최무현이 다시한번 장령모를 눌러쓰며 돌아서자 황황히 다가와 식사준비가 다되었다고 알리었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소.》 최무현은 단마디로 거절했다.

그가 몇걸음 걸어나가자 한병호중대장은 안창덕을 보며 눈을 흘기었다. 안창덕은 억울해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겁니까. 장기라는거야 이기자고 하는게 아닙니까?》

《됐어, 됐소!》

중대장은 최무현이 들을가봐 겁내는듯 억눌린 소리로 이렇게 눌러놓고는 쓴입을 다시었다.

그 찰나 최무현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전사동무, 뭐라구?》

그도 어느새 안창덕의 말을 귀결에 엿들은것이였다. 전사는 부동의 자세로 그를 바라볼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다시한번 말해보오. 이기자고 하는게 장기라고?》

안창덕은 잠시 주저하는듯 하더니 어쨌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듯 그대로 내뱉었다.

《사단장동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라는거야 이기자고 하는건데 애초부터 지자고 할바에야 무슨 재미로 합니까?》

불만어린 그의 대답에 최무현은 펍 놀라는 기색이였다. 금시 웃음이 피여날듯 싶은 호기심어린 눈은 이것봐라, 어디서 이런 엉뚱한 친구가 나타났어 하고 말하는듯 싶었다. 그러나 그는 속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엄한 표정을 짓고 엄포를 놓았다.

《동문 상관앞에서 영 버릇이 없구만, 응?》

《...》

《두번다시 그해보오. 그때는 정말 용서치 않겠소. 가보오.》

안창덕은 차렷자세로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어쩐지 속이 내려가지 않아하는 기색이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최무현은 놀리췌던 장령모를 이마우로 버쩍 들어올리며 곳곳이 서있는 중대장에게 한결 명랑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장동무, 식사준비가 다 됐다구?》

《예.》 중대장은 머리를 들며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국수를 했는지?》

《예. 메밀국수입니다.》

《중구만! 이런 때는 시원한 국수가 좋지. 가보시오. 중대살림살이가 어떤가.》

최무현은 중대장을 앞세우고 가벼운 걸음으로 식당을 향해 걸어갔다. 안창덕은 사단장의 기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돌변했는지 알수 없는듯 의아쩍은 눈길로 멀어져가는 그의 뒤모습을 멍히 바라보고있었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중대장은 중대전원이 모인 가운데서 습격전투에 나갈 전투원들을 선발하여 발표하였다. 뜻밖에도 그 영예로운 명단에 안창덕의 이름이 있었다. 더구나 그는 습격조에서도 제일 어려운 벼랑돌파조였다.

안창덕은 환희와 격동에 휩싸였다.

임무를 받고 떠나기 직전 최무현은 매 병사들의 손을 잡아주고나서 안창덕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전사동무, 꼭 성공해야 하오. 동무네의 성공여부에 의해서 사단총공격이 개시되오. 배후를 불의에 치자면 쉽지 않을거요. 장기는 시합에서 지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다시 할수 있지만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오. 싸움에서 지는건 곧 죽음이요. 알겠소?》

《알았습니다.》

안창덕은 힘차게 대답했다. 사단장의 그 말은 전

투의 순간순간 때없이 안창덕의 머리속에 떠올라 백배의 힘을 주며 그를 돌격의 첫 서렬에 서게 하였다. 그는 벼랑을 맨 처음 뚫아올라 습격조의 돌격로를 개척케 하고는 중상을 당한채 쓰러졌다.

전투가 끝난 다음 최무현은 한병호중대장을 데리고 안창덕이 후송되어 입원해있는 사단군의소로 찾아갔다.

《장하오!》

최무현은 안창덕의 전투위훈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장차 훌륭한 군사지휘관이 될것이라며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창덕은 최무현사단장과 허물 없는 사이가 되었는데 한번은 그가 어떻게 되어 입대한지 4개월밖에 안되는 자기를 것처럼 중대한 습격전투에 내보낼 용단을 내렸느냐고 물은적 있었다.

《담력이었지.》

최무현의 대답이었다.

《담력말입니까?》

《그래, 어떤 정황하에서도 끄떡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색을 흐트리지 않는 그 배짱, 그 담력이 마음에 들었거든. 게다가 동무는 원수들에게 희생된 부모들의 원한을 가슴에 안고있는 병사가 아니었다. 그런 복수심과 배짱이 있어 동무네는 주인없는 콩밭김까지 매주었던거구.》

사실 그런 배짱, 그런 담력은 산에서 싸울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백두산기질이야. 동무를 보며 나는 그 기질을 다시한번 상기했고 여직 결심을 못내리고 망설이던 203. 7고지습격전투를 단 행하기로 하고 사단총공격시간을 최종적으로 확정 했더랬소. 그래서 그날 그렇게 기뻐했던거요.》

백두산기질, 이것이 우리 혁명의 1세이며 항일혁명투사였던 최무현사단장이 전사 안창덕의 가슴에 심어준 담력에 대한 그의 지론이었다.

그날도 전선하늘은 맑게 개여있었다.

# 동행자들은 말한다

##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40돛이 되는 오늘 나의 가슴은 깊은 감회에 젖어있다.

그 감회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수령형상창조문학이 걸어온 력사의 나날들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당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라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주체문학건설의 주타격전선으로 정해주시고 이 사업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인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 벌써 새로운 혁명문학건설구상을 안으시고 작가들을 아버지수령님의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사에 대한 장시간의 회고담을 들을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그리고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에게 새로운 혁명문학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수령형상창조는 우리 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부문에서 수령형상문학건설문제를 제시하시였다.

이렇듯 현명한 령도자를 모심으로 하여 우리 문학은 자기의 주타격전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처음으로 되는 혁명문학을 건설하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생소한 초행길이었다. 처음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어떤 형식의 소설로 형상하겠는가 하는 근본문제부터 풀지 못해 모대졌다. 다부작소설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일대기 형식이나 년대기식으로 쓰자는 작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

령님의 방대한 혁명력사를 다 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대기식이나 년대기식, 다부작소설형식으로도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오직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체계성있게 그리고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으며 총서체계안에서 매개 작품들이 소설로서의 자기 특색을 갖추고 문학적인 감화력을 높일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명철한 가르치심에 눈앞이 확 트이였다. 작품형상의 방도가 뚜렷해지자 우리 작가들에게는 소설권들을 어떻게 배열하며 매권들을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풀리였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1932년》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바쁘신 나날 밤새워 읽어주시고 깊은 밤 장거리전화로 소설의 우결함을 지적해주시면서 수정방향과 대안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완성된 첫 소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0돛에 아버지수령님께 올리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아버지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이로써 우리 문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폭넓게 반영하는 혁명문학창작의 력사적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 이후 련이어 창작되는 총서작품들을 매편마다 여러번씩이나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면서 수령형상문학창작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체계화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한 총서작품에서 수령형상의 품격과 정중성을 보장하는 문제, 력사적사실과 허구의 호상관계문제, 작품 호상간 인물과 사건들의 통일과 계승성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창작실천적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혁명문학건설을 하여오는 과정에 체험한 가슴뜨거운 사연은 많지만 그중 한가지 사실만 더 말하려고 한다.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총서형식의 작품으로 형상하는데서 제일 난점으로 제기된것은 해방후편 창작문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해방에로 우리 인민을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으로 형상하였다면 해

방후편에서는 독립국가의 수반으로,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형상하여야 하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해방 후의 수령의 활동영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그 포괄범위가 비상히 확대되어있다.

해방전편은 어느한 역사적사변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창작되었지만 순서별로 보면 년대가 한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해방후편에서는 한 년대에도 여러가지 사변들이 중첩되고 여러가지 영역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권편성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문제로 하여 우리들이 암중모색할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기별체제와 주제별체제를 통일시켜 시기별로도 빠짐없고 주제별로도 빈틈없는 가장 합리적인 권편성원칙을 밝혀주시고 수령형상에서 제기되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의 주체적혁명문학건설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주시고 몸소 우리들의 청사를 찾으시여 온갖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4.15문학창작단 창작가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창작성과도 크게 보시고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을 비롯한 로력영웅, 높은 급의 국가수훈을 아낌없이 안겨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을 끝없이 위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이 앓을 때에는 외국에까지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믿음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불타는 충성심을 안겨주었다.

하여 우리 4.15문학창작단 전체 창작가들은 높은 창작적열정을 안고 지난 기간 수많은 수령형상문학작품을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선군혁명문학의 제1선에 선 작가집단답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더 높은 창작성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해나가며 선군시대를 빛내어나갈 일념에 불타고있다.

4.15문학창작단 단장 **《김일성상》** 계관인

**김 정**

## 마흔번째 6 월을 맞으며

6월 19일, 40년전의 그날은 너무도 평범한 날이여서 사람들은 미처 몰랐다. 이 평범한 날이 우리 당력사에서 뜻깊은 날로 될줄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의 그날, 그날부터 우리 혁명은 보다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설수 있었다. 이 땅의 모든것에 그이의 사상과 예지, 사색이 번득이고 그이의 감정과 정서가 깃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보람찬 창조로 수놓아온 40년세월을 돌이켜보는 우리 시인들의 마음은 류다른 감회속에 휩싸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때로는 시인도 되고 작곡가도 되며 영화예술과 무대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창작가도 되고 연출가도 되며 음악평론가도 되고 지휘자도 되며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훌륭히 지도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믿음,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열정으로 돌기돌기 쌓으신 우리 시문학의 자랑찬 40년은 우리 문학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일관하게 구현하고 발전하도록 이끌어주신 불멸의 문학령도업적의 40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시문학이 백두산의 암반을 초석으로 위대한 사상과 심오한 철학, 아름답고 장엄한 우리 시대를 노래한 수령의 시문학, 당의 시문학으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설수 있었으랴.

감회도 새로운 1970년대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헌시창작을 지도하여주시면서 손수 가필도 해주시며 걸음걸음 작가들을 이끌어 주시였다.

일찌기 **《우리 교실》**, **《우리의 수령》**, **《조상화》**,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조국의 품》**,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 들을 창작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의 나날 가사 **《충성의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심으로써 우리 시인들에게 시가창작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하기에 1970년대에 가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서정시 **《나의 조국》**, 가사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비롯한 명시, 명가사들이 나올수 있었으며 서정시 《어머니》,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시작된 1980년대에는 풍성한 명작풍년을 펼쳐놓을수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 주신 믿음의 년대였고 그로 하여 우리 시문학발전에서도 획기적전환을 일으킨 창조의 년대였다.

어찌 상상이나 하였으랴.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우리모두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은 누구나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운명적인 체험을 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떠메고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나섰다.

력사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기록된 그 시기 우리의 행군은 힘겨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활력을 부여주시였다. 우리 시인들의 가슴은 천백배의 힘과 용기, 선군혁명문학의 창조자라는 긍지로 차넘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평가하신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가 나왔던 그날의 격동을 잊을수 없다.

장군님께서 국가와도 같다고 하신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90년대의 적기가 《높이 들자 붉은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우리의 김정일동지》,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선길 자욱자욱을 따르며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장군님의 감정과 숨결로 호흡하고 심장으로 노래를 불렀다.

선군시대의 시문학은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서사시, 장시, 서정서사시의 전성기였고 명가사의 전성기였다.

언제나 우리 작가들을 선군혁명동지, 선군정치の大변자들과는 크나큰 믿음을 부여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시문학이나갈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작품이 나오면 높은 평가와 믿음을 안겨주시고 우리 작가들의 건강을 위해 친부모도 줄수 없는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주시였다.

그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김일성상》 제관인

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오늘도 애국렬사릉에서 많은 시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시인으로 영생하고있다.

령도자를 잘 만나 작품도 빛나고 인생도 빛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6월은 우리의 모든 나날에 깃들어 미래에로 이어지고있으며 세기와 세기에로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우리의 머리우에 6월의 태양은 찬란하다.

가닥가닥 눈부신 태양의 빛발을 받아 만발한 억만 꽃송이와 같은 시들로 꽃바구니를 엮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 드리고싶어라.

우리의 장군님은 오늘도 전선길에 계신다.

우리 시인들은 붓대를 총대처럼 거머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명작창작으로 받들어 나가는 시대의 나팔수로서 선군혁명천만리를 역세게 걸어갈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장  
《김일성상》 제관인

백의선

## 선군혁명문학령도의 자욱을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로부터 40돛이 되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혁명적문학예술 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나의 가슴은 세찬 충격과 뜨거움, 환희로 불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 인민군대안의 창작집단에서 작가로 사업해온 나에게 있어서 지난 모든 나날들은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그이께서 지니신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절감해온 나날들이였다.

일찌기 5대혁명가극창조의 나날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창조사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주인공의 성격적해를 바로 취지못해 고심하는 우리들에게 이 작품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신을 넣어야 한다고 절절히 깨우쳐주시고 밤을 지새우시며 몸소 가극의 주제가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지으시여 가극의 사상예술성을 완벽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주시

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군인창작가들에 대한 세심한 사랑과 지도는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혁명적인 시가 문학이 노는 중대한 역할에 대하여 깨우쳐주시면서 명가사대풍을 마련해가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들의 작품을 지도해주시면서 주체문학건설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에도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가요 《내 삶이 꽃피는 곳》과 같은 명작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청년들을 교양해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날 나는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자꾸만 그 격동의 나날 우리들의 미숙한 작품들을 지도해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깊은 영상이 떠올라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의 종자를 찾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친히 가필도 해주시면서 그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우리 군인창작가들은 가사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가사 《수령님 밤이 껍 깊었습니다》를 비롯하여 많은 명가사들을 창작하였다. 뿐만아니라 혁명적인 소설문학창작에서도 장편소설 《태백산줄기》, 장편소설 《전선》, 장편소설 《순간과 영원》 등을 성과작으로 창작해 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붓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군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선군정치를 붓대로 받드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더욱 빛나게 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우리 혁명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선군혁명문학예술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실 구상을 안으시고 줄기찬 령도의 낮과 밤을 보내시었다. 그 귀중한 력사의 자욱들을 더듬는 나의 눈앞에는 비뿌리는 오성산, 눈보라치는 철령의 험한 령길이 떠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전선을 누비시는 야전차안에서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에서 형상한 군가들을 한곡

한곡 품들여 지도해주시면서 가사의 종자와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선군시대 혁명적인 문학예술창작의 넓은 길에 나선 군인창작가들은 뜨거운 심장을 안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하여 가요들인 《친근한 이름》, 《조선로동당 만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의 장군》, 《전선길 추억》, 《내가 지켜선 조국》, 《우리는 잊지 않으리》, 《축복받은 나의 삶》,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강성부흥아리랑》, 《열정의 노래》 등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시대의 대표작들을 련이어 창작해내었다.

어찌 그뿐이라, 선군문단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서사시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서사시 《승리의 7. 27은 선언한다》, 서사시 《철령의 선군찬가》와 합창조곡들인 《선군장정의 길》, 《백두산아 이야기하라》가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었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작가가 소설창작을 끝내었을 때에는 그 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대의 명작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주시면서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과 믿음속에 군인소설가들은 높은 창작적열정을 안고 선군시대를 더욱 빛내이는 여러편의 중장편소설들과 단편소설집들을 짧은 기간에 품위있게 창작완성해내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선군혁명문학건설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고 위대한 결실을 이룩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도 우리들에게 작가들이 군인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파고들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소설을 써낼수 있으며 이름있는 소설가가 될수 있다시며 선군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울수 있는 인민군대안의 영웅들의 이름과 성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작품의 종자까지 밝혀주시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인창작가들에 대한 사람과 믿음은 끝이 없다. 언젠가는 전선시찰의 길에 한 군인작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선군혁명동지라는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병사출신작가들을 사랑한다시며 우리 군인작가들 모두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아끼지 않고계신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발전하여온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오늘 군인들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당의 선군혁명사상을 결사관철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었다.

우리의 선군문학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오늘의 선군시대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나갈것이다.

조선인민군문예창작사 《김일성상》 계관인

박 윤

## 우리 소설문학의 40년을 더듬어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체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은 우리 주체문학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되는 력사적인 날이었다. 그때로부터 우리 문학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빛나는 발전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한 나라 문학의 높이와 발전수준은 주로 소설문학의 사상 예술적높이에 따라 평가된다.》**

소설은 인간과 그 생활을 반영하는 폭과 깊이에 있어서 다른 문학형태들에 비해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한 나라 민족문학의 발전수준을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우리 소설문학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지지 못하고있었으며 우리 문학을 대표할수 있는 웅대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벽찬 투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를 정면에서 폭넓게 형상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낡은 경향이 근절되지 못하고있었으며 형식에서도 고루하고 진부한 고정격식화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과 지향을 담지 못하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대의 전형들을 그려내지 못하였다.

소설문학부문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편향들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설문학에서 혁

명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명실공히 혁명에 이바지하는 소설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이 소설로 옮겨져 혁명적소설문학의 본보기적작품으로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인 소설창작과정이 곧 작가들의 혁명화과정으로 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으며 몸소 작품의 종자도 잡아주시고 창작방향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여러차례의 장중편 소설 100편창작전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우리 소설문학발전에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우리 소설가들의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어 주체소설문학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우수한 소설가집단을 키워낸 성장의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설문학발전의 합법칙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우리 소설가들에게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과제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의 주제와 제목, 종자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주시고 우산장창작실을 거점으로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를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작가들의 창작과정에 사소한 애로라도 있을 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소설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첫 100편창작전투기간에만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장편소설 《영원한 미소》, 《생명수》, 《새봄》 등 수많은 시대의 명작들이 태어났다.

그후 여러차례의 100편창작전투에서 우리 인민의 혁명적투쟁을 반영한 훌륭한 소설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번 장중편소설 100편창작전투과정에 진행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창작은 선군시대 혁명적소설문학창작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중의 하나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창작은 현시기 우리 인민들을 혁명적신념을 지니도록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 창작가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장편소설을 창작할 과업을 받아안았을 때 주

저하였다. 사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60여편의 장편소설을, 그것도 비전향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창작한다는것은 소설창작에서 류례가 없는 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살아온 생활경위와 투쟁경력이 서로 다른만큼 그 원형을 잘 살리면 모든 소설이 자기의 개성과 특색을 가진 소설로 될수 있다고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창작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으며 창작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형상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소설가들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들을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창작완성하여 강성대국건설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소설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과업만 주시면 그 어떤 소설도 능히 창작할수 있다는 배짱을 지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지난 40년동안에 우리 단편소설문학의 화원도 이채롭고 화려하게 꽃피어났다.

특히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가 단편소설의 주류를 이루며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형상에 바쳐진 단편소설 《천암산》, 《진리의 탐구》, 《따뜻한 눈》,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 《고요》, 《생의 축복》,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단편소설 《오늘도 살아계시다》 등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수많은 단편소설들이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혁명적수령관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단편소설 《백두산바람》, 《한 분조장의 수기》, 《뫓강냉이》, 《버드나무》 등 현실물주제의 단편소설들이 왕성하게 창작발표되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

정녕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이신 **김정일**동지를 모시였기에 우리 소설문학은 언제나 시대의 앞장에서 대중을 선도하며 빛나는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우리 소설가들은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장군님을 신념의 기둥으로 믿고 선군혁명문학으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장군님의 작가, 장군님의 붓대가 될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덕철**

## 명언해설

**《세계의 명곡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우리 나라의 노래를 대신할수 없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정서를 반영한 주체조선의 노래보다 더 훌륭한 명곡이 있을수 없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세계에는 명곡들이 많다. 그러나 그 명곡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을수는 없다. 우리 인민에게는 남달리 우아하고 섬세한 우리의 노래와 음악이 제일이다.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정서적으로, 생동하게 표현하는데서 그 어떤 다른 나라 음악도 우리의 민족음악을 따를수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고유한 사상감정과 정서를 반영한 우리 나라의 노래보다 더 훌륭한 명곡이 있을수 없다.

나는 제대되어 승기계공장에서 몇년간 일한적이 있었다. 그런 관계로 공장구내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다는것까지, 주물직장 강아바이네 식솔이 몇이라 는것까지 환히 꿰뚫고있었다.

지금도 역시 같다.

공장 경비원아바이까지도 내가 찾아가면 《기자 선생이 또 왔군.》 하고 《무사통과》 시키군 한다.

그런데로부터 기계공장에서의 생활체험에 기초 하여 많은 글을 쓸수 있었다. 시와 수필들... 공장생활은 창작의 비옥한 토양이었다.

더우기 이 공장이 정든곳으로 된것은 군사복무도 함께 하고 공장생활도 함께 한 병사시절 전우들이 이제는 지배인, 기사장, 직장장으로 자라났기때문 이기도 하였다.

하루종일 글쓰던 피로도 풀고 생각이 잘 떠오르 지 않을 때는 자주 찾곤 하는 나의 옛 일터.

어스름이 깃든 저녁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용선로 쪽에서 풍겨오는 특유한 쇠비린내가 가슴을 시원하 게 한다.

나는 지배인을 만나러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방은 비어있었다.

옆방 통계원처녀에게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도리 길이다. 구내길에서 만나는 로동자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르겠다고 한다.

이때 마침 구내길로 걸어오던 주물직장장 박동무 가 나를 반겼다.

《또 글문이 막혔나. 내가 도와줄가.》

언제봐도 덜렁덜렁한 성미 그대로였다.

《지배인을 못봤나?》

《음, 지배인 말인가. 지금 한창 고민하고있을거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고 비판을 받았네. 모두 새 기술도입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데...》

《아니, 동지들을 위해선 불같은 사람이 웬일인가?》

《세월속에 그 불이 식었지. 이젠 뜨겁지 않은 불 이야.》

《거참 모를 일이군.》

《저 양어장옆에 있는 버드나무숲에 가보라구. 교 민을 본격적으로 하고있을걸세.》

그러고는 한눈을 찡긋해보인다.

그쪽으로 가는 나에게 박동무는 침을 놓는다.

《따끔히 일깨워주라구. 옛 병사시절처럼...》

양어장버드나무숲에 가니 지배인은 정말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었다. 물고기가 침병대는 양어못기슭 결상에 어깨가 처져 앉아있는데 측은한 생각까지 들었다.

《뭐 고민시간이라면서...》

그는 나에게 옆자리를 내주었다.

《상사 김정수동무,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옛 병사시절 군사칭호를 부르는걸 보니 교양 사업을 할 잡도리군.》

《그렇네. 병사시절 부상당한 혁명동지를 위해 피 와 뼈를 바치던 동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확실히 내 심장이 식었어. 이젠 지배인이 되었다고 눈앞에 생산만 보면서 호령질이나 하고 로동 자들의 창발적의견까지 무시하고... 비판을 받아 싸 지 싸... 내자신이 과학기술의 시대에 따라서지 못 했으니까.》

그는 침울한 기색으로 버드나무숲을 바라보았다. 한참후에야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기 버드나무밑등을 좀 보게. 푸른 린팡이 번 뜍이누만. 그것이 나였네. 뜨거움이 없는 불!》

나는 그의 자책의 말에 점점 침취되어갔다.

《그리구 저기 주물직장쪽을 보라구. 용선로의 불 길은 얼마나 뜨겁고 화광이 충천한가.》

출선이 시작된 모양인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 며 불보라를 튕겨올리는 용선로의 불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장쾌한 풍경이었다.

《버드나무밑의 린팡과 저 용선로의 화광. 같은 불같지만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 하나는 뜨거움이 란 전혀 없는 차디찬 불아닌 <불> 이고 다른 하나는 세찬 열기를 뿜어내는 뜨거운 불, 진짜 불이지. 그런데 나는 강성대국건설의 이 벽찬 현실속에 살 면서 뜨거움이 조금도 없는 린팡같은 불이 되고 말 았네. 빛같은 요란하게 번뜩이고 뜨거움은 조금도 느낄수 없는 차디찬 불.》

자책감에 잠겨 몸부림치는 지배인의 말을 듣고보 니 참으로 생각되는 점이 많았다.

(버드나무 린팡과 용선로의 화광)

평범한 생활의 대비속에 얼마나 깊은 생활의 진

리가 담겨져있는것인가.

그는 제대되어 공장에 와 처음 작업반장, 직장장을 할 때까지만 해도 뜨거운 불을 안고사는 사람이였다. 자기 일보다 동무들과 집단의 일을 안고 뛰고 또 뛰었다. 한 노동자의 창의고안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어 끝내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또 누구네 집에 불이 잘 안든다면 밤을 밝혀가며 온돌수리를 하고 아궁에 불을 지펴주고야 마음이 개운해했다. 자기 작업반원의 병에 쓸 약을 구하려 휴가를 바쳐 산발을 헤매이다 벼랑에서 떨어져 다리골절까지 되었던 그였다.

그러니 작업반, 직장은 한마음한뜻이 되었다. 누구나 그를 《작업반장형님》, 《우리 직장장》이라 친근하게 불렀고 결혼식이나 60돛 생일 등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먼저 찾곤 하였다.

뜨거운 마음이 오가고 진심으로 감정이 통하니 일이 안될리가 없었다. 월계획, 년간계획을 매년 남보다 먼저 앞당겨 끝내곤 하였다.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현대화하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가공직장에 최첨단설비로 장비하는 어렵고도 아름찬 과제가 나서자 그는 주춤거리었다. 현행생산이 바쁜 때이니 기술혁신안 실현문제는 좀 참고 견디라면서 래일모레로 미루고... 그러다나니 사람들속에서 《래일모레지배인》으로 불리우고 눈앞의 생산밖에 모르는 생산실무자, 심장이 뜨겁지 못한 일군으로 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 공장일이 잘될리가 없고 그럴수록 호령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대중의 마음속 문을 열지 못하고 호령이나 해가지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거둘수 없고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일군을 대중은 따르지 않는다. 불빛을 따르는 곤충들도 열이 없는 린광에는 모여들지 않는다.

가슴속에 뜨거운 불을 안고살지 못하는 일군, 대중을 위해 자기를 바칠줄 모르는 그런 일군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속에 열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는 길에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일군,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대담하게 뚫고나가며 가슴속에 뜨거운 불을 안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군만이 우리 선군시대의 참된 일군으로 될 자격이 있는것이다.

《나는 이번에 동지들의 진정어린 비판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것을 깨달았네. 이제부터라도 대중과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일군, 저 린광처럼 차디찬 불이 아니라 용선로의 불길처럼 진짜로 뜨거운 불이 되겠네.

용선로의 뜨거운 불길이 서로 다른 성질의 쇠불이 들을 녹여 한덩어리의 강철로 만들듯이 뜨거운 불로 대중의 마음속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진짜배기 일군으로 일해나가겠네.》

지배인의 자책어린, 그러나 확고한 결심이 담겨져 있는 목소리였다.

주물직장장이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왔다.

《아직도 고민인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으로 가세. 결함이란거야 고치면 되는거지.》

우리는 용선로에서 비쳐오는 붉은 불빛속에 서로 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나는 우리 시대 일군들이 간직해야 할 진짜 불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며 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

《수령은 당이고 당은 곧 수령이다.》

《수령이 없는 당이란 사령관이 없는 군대와 같다.》

《당의 모습은 당이 키워낸 인민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 매혹된 심장의 노래

최길상

당의 기초축성시기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노래한 첫 시집 《2월의 송가》를 창작하였다. 20여편의 서정시가 들어있는 시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겸허하신 만류로 하여 수십년세월이 흐르는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시집 《2월의 송가》는 그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시인들의 가슴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충동과 열망에 의하여 창작된 량심과 의지의 산아이다. 문학창작은 고도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사업이다. 시집의 매 갈피마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혁명위업의 진두에 우러러 모신 진정어린 감정이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

참다운 문학의 가치와 의의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법이다. 문학발전사에서 30년이란 그리 긴 세월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시집 《2월의 송가》의 서정세계를 음미하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시인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에 넘치고 열광적이었는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매 시편들은 순정이었고 량심이었고 매혹된 심장의 노래였다.

### 1

시는 시대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예리하고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시는 시대의 념이다. 위대한 시대가 있어야 그 시대정신을 구현한 위대한 시가 태어날수 있다.

시집 《2월의 송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 위에 의의있는 시기인 1970년대가 낳은 시대정신의 빛나는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부문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앙양이 이룩되었습니다.》**

원래 위인송가는 력사의 격류속에서 창조된다.

우리 혁명력사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된 항일의 20성상과 우리 당의 조직사상

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진 1970년대는 다같이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년대들이었으며 수령에 대한 수많은 아름다운 시가들과 송가들이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우러나온 충성의 년대들이다. 항일의 20성상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하여 《조선의 별》과 같은 불멸의 혁명송가를 낳았고 빛나는 1970년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하여 항도의 태양에 대한 수많은 충성의 송가들을 낳았다.

우리 인민은 일찌기 만경대의 해돋이에서 민족의 태양을 맞이하였고 정일봉의 해돋이에서 태양위업의 영원무궁함을 확신하였다. 아, 백두광명성솜아 민족의 대통운이 났다고 천년푸르른 거목에 신념의 글발을 새겨넣은 혁명의 첫 세대들의 심장에서 태양위업송가는 한편한편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이 197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실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양양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모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혁명적채부가 더욱 빛을 뿌리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모든것, 우리 인민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실현을 위한 길에서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려왔던 모든 소망이 세월을 앞당기며 천백배로 이루어졌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충성의 신념은 반석같이 다져졌다. 조선은 더욱 강대해지고 위대해졌으며 보다 빛나는 미래를 가진 조국으로 빛났다.

이 위대한 전변과 생활을 반영한 시집 《2월의 송가》는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둔 시대감정의 울림이었고 폭발이 었다.

시집 《2월의 송가》에 수록된 시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존엄과 승리의 기치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번영의 향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을 감격에 겨워 노래하고있다.

력사의 그 아침

승업한 백두의 설령우에

아, 조국은  
태양의 아드님을 높이높이 받들어 올렸거니  
이 나라 강산은 정기를 내뿜고  
하늘땅에 서기는 넘치었어라

시 《그날의 흰눈이 내린다》(림호권)는 조국이  
질은 구름속에 잠겼어도 새봄을 그려보며 마중가던  
세월에 조국의 밝은 미래 향하여 백두밀영의 창문  
이 활짝 열리던 잊을수 없는 그해 2월의 아침에 내  
리는 눈송이에 추억을 실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에 대한 전민족적인 환희의 감정을 노래하고있  
다.

백두밀림에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총을 잡은 어머니의 탄피에 불을 비비며  
빨찌산의 혁명가요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그이는 자라시였다

아,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고  
혁명의 불길속에서 자라나신 그이

시 《그이는 백두산에서 탄생하셨다》(리선을)  
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백  
두산에서 타오른 혁명의 불길을 안으셨기에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넘쳐흐르시고 백두의 정기를 타고  
나셨기에 천재적예지로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이의 사색의 심연은 천지의 깊이를 담아 끝이 없  
다고 노래하면서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 그이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무궁  
토록 행복하고/ 그이 계심으로 하여/ 내 조국은  
영원토록 번영하리라!》고 환희에 넘쳐 걱정을 터  
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향도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조선의 영광을 노래한 시들에  
일관하게 굽어치고있는 사상정서는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위업  
의 빛나는 계승자로 우리 혁명을 이끄시기에 민족  
번영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확신의 감정이며 그  
것은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태양같이 빛나시라고 아드님  
을 키우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칭송의 감정이다.

시 《친애하는 그이의 영상을 우러러》(리광근)  
에서는 맑고 푸른 천지의 정기를 담으시여 예지에  
넘치신 그이의 안광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으  
로 빛나 내조국의 희망찬 미래가 비껴흐르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 눈내리는 들길, 비오는 구내길을  
수령님따라 걸으시는 그이의 자욱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하나로 이어져 고통치고있다고 하면서

아, 우리의 행복으로  
이 나라의 자랑으로 한마음 따르며  
정정한 조국의 모습으로 받들어 모신  
그이는 인민의 녀원, 조선의 미래

위대한 아버지수령님 모시여  
한없이 행복한 이 땅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시여  
우리의 앞날은 더욱 찬란합니다

라고 확신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희망넘친 확신의 감정은 조선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흠  
모의 정으로 승화되어 뜨겁게 일렁이고있다.

시 《2월의 노래》(리택)는 2월의 그 성스러운  
아침에 조선이 간직한 영원한 축복의 노래를 깊은  
서정으로 펼치면서 성에 불린 군복깃을 여미시며  
아드님을 안으시고 불을 부비시던 김정숙동지의 인  
자하신 모습을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우러  
르며 아버지수령님의 높이신 뜻 받들어 어서 커서  
태양같이 빛나시라고 불러주시던 자장가의 노래를  
유정한 정서로 은은히 울려주고있다.

아, 어머니의 그 마음  
조선의 녀원을 지니시고  
수령님을 받들어가시는 지도자동지  
충성의 그 모범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진두에 서계시기에  
이 땅우엔 언제나  
따사로운 봄빛이 깃들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모두 받아안았습니다

시 《이 노래 영원하리라》(김조규)는 김정숙  
동지께서 즐겨부르시던 《사향가》의 그윽한 선률  
에 시상을 펼치면서 조선의 미래를 안아키우신 위  
대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아, 이처럼 김정숙어머니는  
공기와 물과 해와 달에도 비길수 없는  
어머니사랑과 굳은 신념과 믿음으로써만  
위대한 조국의 미래를 안아키우신것 아니라  
어리신 그이의 깊고깊은 정서의 바다우에  
별빛 찬란한 노래의 보석을 뿌려주시었으니

영명하신 지도자동지의 가슴속에서  
심장의 노래되어 세계의 하늘로 날으는  
조국의 선률이며, 위대한 주체의 노래여



.....

참으로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조선의 낯,  
조선의 슬기, 조선의 기상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한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위  
대한 태양이시거늘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그이  
그이는 인민, 그이는 세계, 그이는 우리의 지도자  
지구를 휘감은 주체의 빛발은  
이 땅우에서 더 찬연히 빛납니다  
영명하신 그이 계시여!  
영명하신 그이 계시여!

(시 《그이는 인민, 그이는 세계, 그이는 우리의  
지도자》, 박세옥작)

라고 온 세상을 향해 환희에 넘쳐 희열을 터치는  
것이다.

시집 《2월의 송가》는 백두산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힘있게 전진한 위대한  
전변의 시대, 1970년대가 낳은 위인칭송의 정서적  
결정체이다.

## 2

시집 《2월의 송가》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  
나는 계승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완전히 매혹된 심장의 고동  
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위인의 품격과 자질에 대해  
흔히 문무와 인덕을 놓고 말했다. 역사에는 학문으  
로 이름난 위인도 많고 무술이나 군사적지략으로  
이름난 위인도 많으며 인덕으로 이름난 위인도 많  
다. 하지만 우리의 **김정일**동지처럼 인간이 지닐수  
있는 이 모든 품격과 자질, 지성과 재능, 예지 등 승  
고하고 아름다운것을 천품으로 지닌 그런 매혹적인  
위인은 없었다. 그이의 예지가 빛발치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가 붉은 기폭으로 휘날리고 그이의  
세련된 령도의 손길이 닿으면 대자연개조의 력사가  
펼쳐지었다.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이 자주적인 인간의 운명개  
척의 길을 밝혀주며 인류리상의 언덕에 메아리친다.  
그이의 담력과 기상, 군사적지략은 천만대적도 혼  
비백산케 하는 필승의 전법이다. 사랑과 믿음에 원  
천을 둔 숭고한 인간애, 뜨거운 인정이 차넘치는 그  
품을 찾아 사람들은 기쁨 때나 괴로울 때나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것을 의논하며 힘과 지혜, 신심을 얻  
고 시련도 난관도 헤쳐나간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가장 고결한 인간애를 완벽하게 겸  
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만민이 우러러 따르는

절세의 영재이시다.

시집에 고동치고있는 위인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은 이 모든 생동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  
한 사람들이 그이께 사상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히 매혹된 충정의 발현이다.

빛나시는 예지와 불타시는 정열  
인자하신 사랑과 깊고깊으신 믿음  
언제나 젊음이 넘치시는 결연하신 안광  
숭엄하고 자애로우신 그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는 영원한 조국의 청춘을 바라봅니다

엄숙한 존엄과 강대한 힘  
뜨거운 사랑과 용기와 지혜  
언제나 높이 솟아 온 누리에 빛날  
조국의 청춘을 바라보며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처럼 시 《조선의 행복》(정문향)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위인상에 매혹되어 그이를 모  
시고사는 한없는 행복의 노래, 젊음에 넘치는 조선  
의 노래를 가슴벅차게 엮었다.

황철의 용해장과 강남벌의 솟는길을 헤쳐오신 그  
피로도 푸실새없이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  
피우시기 위해 또다시 한밤을 지새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당중앙창가의 불빛에 어린 그이의 모  
습을 목메이게 우러르며 시 《새날이 동튼다》(차  
승수)에서는 저 한가닥의 불빛이 용광로에 흘러들  
어도 쇠물빛 화광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농장벌에  
흘러들어도 눈서리밑으로 봄빛이 푸르려간다고 감  
동에 젖어 노래하고있다.

비범한 문학예술적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를 모시고 창작하며 형상세계를 탐구해나가는 시인  
들의 티없이 깨끗한 흠모의 감정은 인자하고 자애  
로우시며 정열에 넘치신 스승의 모습을 뵈옵는 력  
사의 순간에 더욱 뜨겁고 열렬하게 분출되었다. 주  
체61(1972)년 9월 6일 우리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주체문학건설의 휘황한 리정  
표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녔다.

이 행복한 날을 두고 시 《언제나 그날에 서있으  
리라》(조빈)에서는 《몸가짜이 그이를 뵈옵던/  
그날의 맹세속에 우리 살고있거니/ 우리의 한생이  
그이의 믿음으로 남도록/ 세월은 가고가도 우리의  
마음 그날에 서있으리라!》고 충정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위대한 스승의 비범한 예지의  
빛발을 받으며 주체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해나가는  
보람찬 창작생활의 갈피마다에서 고래치며 흘러넘  
친것이니, 평범한 노동자를 시인으로 키워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읊은 시 《노래》(김우협)에도 감동깊이 출렁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천재적지략과 예지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30대에 령장의 슬기를 온 세상에 펼치시였다.

시 《초소에서》(정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연초소를 찾아주신 력사의 그 순간에서 시적계기를 잡고 폭풍치는 혁명과 투쟁의 불길속에서 새 조선의 력사와 함께 누구도 갇출수 없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예지를 지니신 30대령장의 모습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시형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전연초소를 찾아주신 그 아침, 말없던 나무도 감격에 설레이고 련련산발들도 기쁨에 들먹거렸다. 병사들의 폭풍같은 환호에 해빛같은 웃음을 보내시며 총검의 숲을 이룬 방선천리길을 그이께서 걸어가신다. 굽이진 전호 멀리 바라보시는 그이의 근엄하신 안광, 그 안광에는 수령님의 뜻을 빛내여갈 의지를 키워가시던 그이의 백두준령에 새겨진 어린시절의 자욱이 새겨있었고 조국의 운명이 준엄한 시련에 부닥쳤던 1950년대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천재적지략과 예지를 그대로 안으신 빨찌산의 아들, 위대한 령장의 모습이 빛발치고있었다.

폭풍치는 혁명과 투쟁의 불길속에서  
새 조선의 력사와 함께  
그 누구도 갇출수 없는  
강철의 의지와 담력  
예지로운 해안과 총명을 지니시고  
인민의 진두에 서시였어라

준엄한 시적화폭에 우렁치 안겨오는 위대한 령장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제 선군정치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며 우리 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주도해나가실 1970년대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다. 이미 신비로운 예지로 도래할 혁명의 폭풍우를 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핵심으로하여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가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달리는 함선우에 불리시던 그 옷차림새로/ 활주로의 이슬을 밟으시던 그 걸음으로/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시는 혁명의 길을 / 오늘은 여기 초소길에 이으시며/ 30대의 령장, 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강철의 무력을 사열하시는 것이다. 시는 위대한 령장의 슬기로운 모습을 웅건한 정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면서 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일당백의 대오가 뜨거운 충성의 맹세를 안고 서리찬 총창을 창공높이 추켜든 미더운 모습을 감동깊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결구를 맺고있다.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이께서는 두손 높이 드신다  
제국주의 마지막지탱점을 눌러던고  
해돋이 조선의 래일을  
강철의 무력앞에 선언하시였어라

이것은 조선의 기상이었고 시대의 의지였고 념원이었고 신념이었다.

참으로 시 《초소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총대중시,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받드시고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감명깊게 노래함으로써 30년세월이 지난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감회롭고 의미심장하게 메아리치고있다.

매혹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론리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로 체험되고 심장으로 감수하였으며 넘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에 대한 끌리는 정이며 사랑과 믿음의 인력이다.

문학예술혁명의 나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으며 우리 시인들이 하루하루 체험하고 느끼는 그 모든 전설같은 사실들은 위인에 대한 그지없는 매혹으로 되었고 그것이 곧 시줄들에 옮겨졌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령도자의 한없이 깊고 뜨거우며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해주는 어느해 가을 발칸의 하늘아래에서 있었던 일이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예술단이 외국공연으로 발칸반도의 어느 한 도시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 소슬한 가을바람에 추위를 느낄세라 예술단성원들에게 매 사람의 이름을 써넣으신 외투를 보내주셨던것이다.

이 전설같은 이야기가 시 《조국을 떠나 멀리에서》(김성조)의 형상세계에 펼쳐졌다.

눈길은 백두밀림에서  
선개의 가루봉지를 안고 목메이던  
그 마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일의 불바람에 역세여진  
투사들의 주먹우에 떨어지던  
그 뜨거운 눈물이  
여기에 흘러내립니다  
아, 조국을 떠나 이국땅 멀리  
외국공연의 길우에서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이여

그처럼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안은 감격의 흐느낌이 마음과 마음들에서 그대로 소용돌이치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또 전사들에게 새해의 년

하장과 선들을 몸소 보내주시니 시 《충성의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며》(안정기)에서는 한 일보다 할 일이 더 많고 아직 은 글귀조차 서투른 시인의 이름을 언하장우에 손수 적으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을 그리며 《한평생 품고살 이 존귀한 글발은/ 제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대하이고/ 힘과 열정을 끓여주는 삶의 용광로》이고 《앞길을 밝혀주는 마음의 등대이고/ 죽어도 못잊을 믿음의 산악》이라고 노래하고있다. 시 《선물》(최진용)은 남 녀땅에 고향을 둔 시인에게 새해선물을 보내주신 위대한 스승의 사랑에 목이 메여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 새해의 이 아침 보내주신 은혜론 열매는/ 통일된 조국의 고향땅에/ 행복의 열매로 주렁지울것》이라고 감격에 북받쳐 심정을 토로하였다.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랑이야말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품어주는 어버이 스승의 사랑이라는것을 절감하였기에 시 《은혜로운 사랑의 품》(김시권)에서는 부모처자도 줄수 없었던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여 병상에 누운 몸을 청춘으로 소생시켜주시고 혁명가의 영예높이 살게 해주신 영원한 삶의 은인을 우러러

아, 천만번 목숨바쳐도 못다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저의 은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원증을 안은 저의 심장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이 떨어 때까지  
충성의 불덩어리로 영원할것입니다  
충성의 불덩어리로 영원할것입니다

라고 심장의 맹세를 터치는것이다. 척추완전골절에 하반신마비로 죽은 육체나 다름없던 한 영예군인시인이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신임으로 병상에서 조선로동당원증을 수여받은 날에 터친 이 격정은 그 어떤 리론이나 원리로도 풀이할수 없고 무엇으로도 그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친애하는 그이의 인정에 끌린 매혹, 가장 순결한 사상감정이다.

바로 이것이 시집 《2월의 송가》의 사상정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견결한 신념과 의지로 다져져 위대한 선군령장에 대한 청송의 노래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 우리는 하나

리호근

하나  
그것은 시작의 산수  
하나  
그것은 뿌리의 력사

하나  
그것은 단결의 노래  
하나  
그것은 승리의 철학

그래서 우리 노래부른다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 주먹 흔든다  
《둘이 되면 못살 하나》!

아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력사

하나로 뜨거운 우리의 말  
우리의 피

하나 하나 아아 하나!  
우리 하나로 하나를 찾으리  
우리 하나로 오직 하나인  
우리 태양만을 떠받들리

그리고 그 태양아래서  
우리 하나의 행복 누리리  
아아, 하나! 오직 하나뿐인 생명  
통일 내 조국을 펼쳐가려니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고  
일찌기 우리 장군님 깨우쳐준 진리  
너 나의 가슴에 하나로 새겨져있거늘!

## 당과 수령앞에 고지식한 사람이 되자

비전향장기수 최대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미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에로 치달는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싶어 펜을 들었으나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안타깝다.

나와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이 이미 나간 수기들에서 내가 하고싶던 말을 다 하였다. 거기에 내 나름의 주장을 더 보태고싶은것이 있어 몇마디하자고 한다.

그것은 투쟁에 대한 이야기이기전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자기 동지들과 가족들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간적품성에 대한 문제이다.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덕에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동지애만이 아닌 여러가지 품성이 있다. 겸손성과 소박성, 청렴결백성, 아량과 리해력, 양보와 헌신 등...

나는 이 글에서 그 모든 좋은 품성들에 하나와 같이 관통되고있는 고지식한 품성을 두고 내 심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나이에 비해 젊은이들처럼 행동이 아주 활발하고 락천적이라고들 한다. 그런가 하면 고지식하다고도 한다.

35년만에 만난 안해조차도 나를 보고 《감옥이 당신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아내지 못했군요. 너무나도 고지식하여 천천해보이는 그 품성은 첫선을 보던 총각때나 같아요.》 하며 웃음을 짓곤 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듣는것이 싫지 않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앞에서 무한히 고지식한 사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줄 모르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걸어온 인생행로는 고지식한 품성을 키운 성장과정이었고 35년간의 감옥살이를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검증받는 과정이기도하였다.

고지식하다는것은 거짓과 변심을 모르는 정직하고 순결한 끝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서는 부모앞에, 자라면서는 당과 수령, 동지들과 조직앞에 자기를 숨길줄 모르고 처지에 따라 변할줄 모르는 그런 끝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지니

면 인간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역세게 살수 있다.

### 해빛속에서 찾은 진리

나의 추억속에서 해방전의 어린 시절은 어두운 그늘에 덮여있다.

부모들은 나에게 정직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세상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였다. 옳은것을 옳다 하고 그른것을 그르다 하고 싫은것을 싫다고 하면 벌을 주고 못살게 굴었다.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가난한 처지에서도 나의 부모님들은 주체33(1944)년 4월에 나를 학교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어 인차 실망과 불만을 느끼게 되었고 공부와 거의나 담을 쌓게되었다. 제일 질색은 우리 말을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것이였다. 그따위 학교에는 정말 다니기 싫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는것 같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는 차마 하지 못하였다.

우리 학급에서는 면서기 아들이 조선말하는 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노릇을 하였는데 어느날 나는 그 면서기아들놈에게 걸려들었다.

지루한 일본말시간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자 나는 저도 모르게 《야, 밖에 나가 놀자!》하고 소리쳤는데 이 말을 들은 그놈이 나에게 다가왔다.

《자식! 잘 걸렸지. 오늘 번소청소!》하며 나의 목에 벌패쪽을 닦고 걸어주고는 히히덕거리였다.

나는 벌패쪽을 벗어 그 자식의 얼굴에 던지며 우리말로 소리쳤다.

《야, 이 왜놈의 똥개야, 난 잘못된게 없어. 이따 위건 너나 가져라!》

그러자 면서기아들놈은 도끼눈을 해가지고 으르렁댔다.

《잘못한게 없어? 이 거짓말쟁이야! 너 이자 조선말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자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놈의 상판을 주먹으로 냅다 갈기고 턱을 발로 걸어차며 소리쳤다.

《난 거짓말을 안한다. 난 조선말이 좋아. 일본말은... 싫구... 조선말이... 좋다. 종단 말이야...》

이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때리었고 또 처음으로 벌을 섰다.

어쨌든 그 저주론 사회에서는 정직하기만 해가지고서는 살수 없었다.

나도 거짓말을 배워야 했다. 외우기 싫은 일본말을 억지로 배워야 했고 《수신》 시간의 지루한 설교도 들어야 했다. 《산술》 같은 자연과목만은 거짓말을 안해도 되니 좋아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야 가슴이 탁 트이여 풀어놓은 송아지처럼 살 수 있었다.

드디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찬란한 해빛이 우리 마을에도 비치었다. 어린 마음에 고향의 하늘이 더 밝아진것 같았고 산은 더 아름다와 보였으며 늘 나가 미역을 감던 압록강물도 무척 더 맑게 생각되었다.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은 내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늘을 싹 가져주었다.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가슴펴고 살았다.

좀 드세찬 성격이던 나는 공부보다도 장난질에 정신이 쏠려 압록강에 나가 고기잡이도 하고 강을 헤엄쳐건너가고 건너오는 경쟁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잃다보니 학과성적은 그리 높지 못하였지만 마음만은 끈게 자랐다.

선생님들과 부모에게서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었지만 절대로 한짓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는것을 안다고 속일줄은 몰랐다.

학교를 졸업하는 날, 담임선생님은 술한 동무들과 학부형들앞에서 뜻밖에도 나를 칭찬해주는것이였다.

《태국학생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량심적이고 솔직한겁니다.》

나는 선생님의 칭찬에 어리둥절하였다. 량심적이고 솔직하다는 평가가 얼마나 값있는것인지 알수 없었던 나는 선생님이 그때 해준 말의 의미보다도 육대신 칭찬을 들은 부끄러움이 더 컸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면 정직하고 성실해진다. 나는 그후 중학교를 다니고 상급학교를 다닐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애썼다. 물론 체육을 무척 좋아해서 거기에 적지 않은 시간을 바친 나로서는 시험때마다 좀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시험지를 넘겨다보거나 《글도적질》 하는 노릇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일가운데서 그보다 더 비루한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학생때 시험에서 요행수를 바라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점수벌이를 한 사람은 일생을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런 사람은 조국과 인민앞에 불필요한 존재로 되고만다.

처세술을 모르고 대바르게 키워진 이 성품은 군대에 복무할 때나 조국통일성업에 몸바쳐 나섰을 때나 언제나 내가 조국과 동지들앞에서 오직 량심으로 살고 의리로 살게 해준 귀중한 밑천으로 되었다.

나는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군사복무를 하게 되었다.

군대에서 나는 명령앞에서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고 그뒤엔 역시 무조건적인 집행밖에 모르는 끝은 자세를 배웠다.

총대는 속이지 못한다. 실탄은 겨누대로 날아가는 법이다. 그러므로 총대를 잡은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끝아야 하고 훈련에서나 전투에서나 명령주의와 거짓, 구차한 변명을 몰라야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명령앞에, 한번 다진 자기 결의앞에 끝없이 충실한 전사-이런 전사만을 조국은 믿어주고 사랑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지휘관들은 나를 두고 《명령앞에 고지식하고 집행력이 강한 우수한 병사》라고 평가하면서 대중앞에 내세우곤 하였다.

군사복무시절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된것은 내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 뵈게 된 크나큰 감격의 날이다.

오매불망 그립고 뵈고싶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부대를 찾아주신다는 기쁜 소식에 접한 우리의 가슴은 환희와 걱정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나는 내가 맡은 배의 기관실의 정비상태를 수십번 검토하고 또 검토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오신다는 현실적인 감정은 나의 가슴을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고 다른 한편 뵈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우려심도 불쑥불쑥 갈마들게 하였다.

얼마 지나서 만세의 합성이 터져올랐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배에 도착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배에서 기본심장은 기관이라고 하시면서 기관실을 찾아오시여 우리들을 만나주시였다.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들의 손을 잡으세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기관의 성능과 연료소비정형, 그 마력에 대하여 세세히 물으시였다.

우리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근무를 서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가 알아보시고 이런 배를 많이 만들어 해군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의 훌륭한 전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나는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고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언제나 변심을 모르는 충직한 전사가 될것을 굳게 속다짐하였다.

그후 해상에서 원수들과 전투를 할 때에도 가정을 이루고 단란한 생활에 온몸이 젖어들 때도, 감방에서 목숨을 내대고 원수들과 치열한 대결전을 할 때도 나의 눈앞에는 이날에 뵈옵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고 가슴깊이 새겨넣은 심장의 멍새가 더욱 불타오르곤 하였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비인간적고문과 굴욕을 당하면서도 나는 늘 마음속으로 웨치곤 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구줄 아느냐.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운 사람이다.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 믿음만은 배반할수 없다.》

그러면 고통도 가셔지고 외로움도 사라졌다. 나는 늘 **김일성** 장군님 품속에 있었다. 내 심장깊이 간직한 장군님모습은 내 생명이었다.

## 비전향의 의미

원썬들은 나에게 무서운 고문을 들이대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면서 그 기나긴 나날 지독하게 전향을 강박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통과 시련속에서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묻으며 죽을 각오를 하고 비전향의 길을 굽힘없이 걸어왔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비전향장기수로 되게하였는가?

다른 동지들이 다 이야기한것처럼 그것은 물론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한걸음 더 들어가서 내 나름의 인간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당과 수령앞에서 끝없이 고지식한 품성이 나를 끝까지 비전향의 길로 이끌어 가게 했다고 말하고싶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전향서》요, 《준법서약서》요하는것은 다 종이장에 불과한것이고 속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지 않는가고 하면서 제판에는 《거짓전향》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아닌게 아니라 어떤 교회사놈은 나를 보고도 비밀을 지켜줄테니 손도장 하나만 찍으면 마음속엔 그 무슨 사상을 가지고 살든 상관하지 않겠노라고 한적도 있었다.

자칫하면 그 달콤한 유혹에 끌려들수도 있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속에 없는 거짓말이라면 죽어라고 싫어하는 나의 끝은 성미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아무리 목숨이 귀중하다고 해도 량심이 허락치 않는데 어떻게 전향하겠다고 거짓말할수 있겠는가. 주체62(1973)년 초겨울 어느날이라고 생각된다.

며칠전에 전향을 거부한탓으로 깡패들의 몽둥이에 맞아 운신하기조차 힘들었던 나를 놈들은 또다시 교무과로 끌어냈다.

푯낮이나 아는 전담반의 책임교회사놈이 제법 《인자한 웃음》을 띠고 나를 맞이하였다.

《수일(남조선에 있을 때의 나의 이름)씨, 속털어 놓고 말 좀 해보지요.》

나는 자리에 앉은채 무언으로 그자를 뚫어지게

마주보기만 하였다.

《사상전향한다고 큰일날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북에서는 수일씨가 죽어 없어졌을것이라고 여기고 지금쯤은 그 누구도 생각하는이가 없을터인데 펜스레 제 혼자서 신념이요, 량심이요 하면서 피벅스레 뻔대누만. 우리 피차에 편안한 길을 택하자구요.》

《편안한 길이 내가 전향하는 길이요?》

《그거야 자명한 일이지.》

나는 한참이나 그자를 바라보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그걸 편안한 길이라고 하는데 난 최대로 불안한 길이요.》

《어째서?》

《난 아직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그자앞에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나 마디마디 쪼아박듯 힘주어 말해주었다.

《네앞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보라! 난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운 사람이야! 내 한번 장군님의 믿음을 받아안은 이상 열백번 죽는다구 해두 그걸 저버릴수는 없는거야! 부모를 속이면 불효가 되지만 수령을 속이면 뭐가 되는지 아는가?》

그때 그놈은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뇌까리었다.

《세상천지에 당신같은 고지식한 바보가 있다는 건 기적이요. 정말 살줄 모르는 끝은목이구만. 1자가 때에 따라서는 2자로도 될수 있지 뭘 그래...》

나는 소리없이 웃으며 대꾸했다.

《1자가 2자로도 될수 있다는 그것때문에 당신들은 참된것이 무언지 모르고 한생을 마치는 인간 쓰레기로 될수밖에 없는거요. 그만하지요. 난 진실과 담을 쌓은 당신들과 더 할 말이 없소!》

놈은 살기편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후 나는 더 모진 고문과 시달림을 받았고 수십 번이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우리 배에 찾아오시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바위처럼, 강철처럼 억세게 느껴지던 그이의 손과 팔을 다시금 잡아보는 심정이였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는 마음속깊이 다짐했다. 《고지식한 바보》, 《살줄 모르는 끝은목》... 그렇다. 내 수령님앞에서는 영원히 고지식한 사람으로 끝게 살리라.

(**김일성** 장군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그리구 룡녀, 당신두 이 고지식한 남편의 변함없는 진심을 믿어주오!)

나는 비로소 그때에야 조국이, 수령님께서 나를 얼마나 끝은 인간으로 키워주셨는가를 알게 되었고 영원히 그것을 버리지 않는 신념의 강자로 살도록

내세워주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감방안에서 고향에 대한 추억에 잠길 때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매일처럼 가슴속에서 떠날줄 모르고 외롭고 힘겨운 나와 더불어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준것은 사랑하는 안해였다.

비록 소식은 듣지 못해도 어버이수령님품속에서 예전처럼 억세게 보람찬 일을 하며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것이였다.

(룡녀, 아무때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거든 나를 대신해서 내 인사도 꼭 올려주오. 수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계실거요. 내 그이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리다.)

그러면 금시 내 눈앞에 헤여지던 그때처럼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함없이 꽃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안해가 나타나 약속의 표시로 정겨운 눈길을 보내는것 같았다.

나는 나의 체험을 통하여 서로 남남으로 태어나서 자라난 두 남녀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의미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그것은 녀이 하나로 된다는말이 아닌가. 내 녀의 반쪽이 사회주의조국에서 나를 기다리며 속을 태우고있다는 그 자각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다른 길을 걸을수가 없었다.

놈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감방에 끌려들어와 쓰러진날이면 나는 안해와 만나던 날들을 추억하며 아픔을 잊곤 하였다. 특히 전향하면 고은 안해도 얻어주고 남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주책도 호화판으로 마련해주겠다는 회유를 뿌리치고 놓여나온 날이면 사랑하는 안해가 못건디게 그리워 《룡녀!》하고 그 이름을 뜨겁게 불러보곤 하였다. 그러면 그처럼 행복하고 즐거웠던 해방후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는것이였다.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제대되어 고향에 간 나는 어느날 저녁, 누이의 소개로 백룡녀를 알게 되었다. 약간 겁먹은 눈으로, 그러면서도 정차게 바라보는 그에게 무작정 마음이 끌리였다.

그도 역시 내가 싫지 않았던 모양이다.

우리가 약혼식을 하던 날이였다.

아직은 녀치 못한 살림이었지만 처녀의 집에서는 닭도 잡고 밥도 짓고 국수도 눌렀다.

나는 내 그릇에 담긴 국수가 너무 많아 못다먹고 남기였다.

그런데 이때 나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안해될 처녀인 룡녀가 내가 먹다남긴 국수를 자기앞으로 잡아당기더니 그것을 다 먹는것이였다.

(아니? 저 사람이?!)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후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약혼음식을 남기면 사는 도중에 불행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대신 다 먹었어요. 헤여지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싶어서...》 하는것이였다.

그의 대답에 나는 웃기는 했으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곱이 뜨거워났다.

얼마나 소박하고 진실한가. 정말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모르는 맑고 순박한 녀성이였다.

이런 녀인을 혹시 불행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없지 않았다.

(룡녀, 내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테요!)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룡녀와의 그 약속을 지키는 길에 수십년간의 감옥살이, 그것도 정든 모든것을 다 포기하고 전향하라는 강박이 가로놓일줄이야...

하지만 나는 그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35년만에 다시금 안해와 만났다.

만약 나의 마음속 한모퉁이에 거짓말전향을 하고서라도 일시나마 고통을 덜어보려는 리기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영광과 행복을 몇몇이 누릴수 없었을것이다.

나는 당과 수령, 조국이 키워준 고지식한 성품 그대로 끝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성실하기 위해 애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소한 변심도 없이 끝은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를 끝없이 결백한 사람으로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빈말을 모른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세상을 제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고 호언장담하는 미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한테만은 움작도 못하고 코꺾은 송아지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하는것을 보고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경탄해마지 않고있다.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허리띠를 조여매면서도 이악하게 마련한 강한 군력의 힘이라고만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대미결사전에 나선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핵무기보다도 위력한 이 일심단결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나는 그 대답을 내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내나름으로 찾아보게 된다.

조국에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진심의 룰리가 있다.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서로 진심을 나누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데서 오직 순결한 믿음과 헌신

만을 아는 고지식한 성품으로 얹혀있는것이다.

나는 짧지 않은 생을 살아오며 세상에서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썩어빠진 세상에서는 그 무슨 《선거》 때마다 인민들앞에 다지는 그들의 《공약》이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결 같이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거짓말을 잘해야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돈을 모으는것이 남조선현실이다. 그러니 인민들이 그들을 믿을리 없다. 《선거》 때면 그 어떤 민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에 눌리고 돈에 끌리어, 혹은 행여나 하는 미련에 속아서 속에 없는 지지표를 던진다. 이런 판국에 정치라는것이 온통 허위이고 위정자와 인민사이엔 오직 대립이 있을뿐 심장을 합치고 운명을 합친 단결이있을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조국에는 수령과 인민사이엔 진심이 통하고 민심이 얹혀있다.

사상도 품도모 지략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인민들과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위대한 태양의 그 미소, 다심한 정이 어려있는 그 부드러운 눈빛에 흘러넘치는 무한한 매력의 비결은 인민앞에 홍금을 툇 더놓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고결하신 덕망에 있는것이다.

우리 장군님같은신분 이 세상에 없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인민들을 생각하시며 늘 쉼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였고 소박한 인민들을 찾으시여 가파로운 령길로 눈에 빠진 승용차를 어깨로 손수 밀며 가시였으며 자신께 드린 그 값진 선물들을 고스란히 민족의 재부로 남겨두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앞에 인민이 어찌 진심을 바치지 않을수 있고 시련이 겹친다고 한번 다진 맹세를 저버릴수 있겠는가.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거짓을 혁명의 원수, 인간에 대한 최대의 배반으로 증오하신다. 잘못은 용서할수 있어도 거짓말은 용서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지라고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거짓과 변태를 모르는 총대를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것으로 인민들과 혁명전사들을 혁명의 총대가 되도록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 당 선군정치의 참된 위력이 있다.

선군혁명의 붉은 기발을 따라나선 우리 인민은 오직 당의 선군사상만을 믿고 따른다. 굶어도 쓰러져도 다른 길은 모른다. 위대한 선군령장과 총대와 인민은 완전히 하나이다.

남쪽의 감옥에서 고생을 한 우리를 가리켜 《비전향장기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장군님의 전사들, 우리 인민들모두가 다 신념과 의지의 투사들

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절대로 빈말을 모르신다. 우리가 남에서 그리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수 있는것도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 6.15북남공동선언의 조항에 우리의 송환문제를 기어이 쏘아박아넣어주신 그 진정의 결실이다.

내가 조국의 품에 안기기 얼마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단 한번만이라도 직접 보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고싶어 늘 울곤 했다면 나의 딸애를 앉혀놓고 안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 우리 장군님께서 6.15북남공동선언에까지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를 박아넣어주셨으니 분명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실거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들어오실때 지팽이를 짚고 오시면 네가 업어라. 지팽이 없이 들어와도 네가 업어라.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력한가를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고 크게 소리쳐보자.》

력사적인 주체89(2000)년 9월 2일, 우리들이 조국땅에 들어서던 날, 나의 안해는 《장군님! 장군님은 우리가정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한생 남편과 헤어져서도 오직 당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온 녀인의 심장이 령도자의 그 진정을 모르겠는가!

그것을 알기에 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받들고 따르는 한길에서 사소한 동요도 모른다. 령도자의 말쑤이면 절대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이면 벼랑끝에서도 주저없이 앞으로 내달는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는 까닭이다. 자기 령도자앞에서 그 지없이 고지식하고 잠시도 탄논을 팔줄 모르는 이런 인민이 있어 우리는 《고난의 행군》 도 이겨냈고 오늘은 미제의 무분별한 핵소동에 당당히 맞서 나가고있는것이다.

내가 홍안의 시절 헤어졌던 안해를 머리에 흰서리이고 다시 만났을 때 나를 제일 감동시킨 사실의 하나는 우리 서로 몸은 떨어져있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수십년세월 당비를 고스란히 보관하여 왔다는것이였다.

안해는 매달 남편의 당비몹을 꼭꼭 계산하여 따로 소중히 모아두었다고 한다.

수십년세월 누가 시킨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일 이지만 안해는 당에 바치는 진정으로 단 한치의 예누리도 없이 그 량심의 당비를 보관해온것이다.

나도 출옥후 남조선에서 일가친척 하나없이 어려운 로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번 돈과 고마운분들의 지성어린 지원금가운데서 그동안 바치지 못한



당비뭇까지 계산하여 장만해두었다가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가지고왔다. 결국 우리 둘은 티 한 점없는 당원의 량심을 고이 지켜온셈이다.

지금에 와서 내가 제일 자부하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앞에서, 커서는 군기앞에서, 당조직앞에서 단 한번도 거짓말을 안하고 고지식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것이다. 그것이 량심이고 애국이다.

당과 수령앞에서, 조국과 인민앞에서 고지식한 사람은 충신이 되고 영웅이 된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락천적인 사람이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량심에 추호의 꺼리낌도 없는 고지식한 생을 살았기에 락천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다고도 나는 생각한다. 천진한 어린이들은 거짓을 모른다. 때문에 어린이들의 웃음은 밝고 한없이 락천적이다.

일생을 영원히 그 어린이들처럼 거짓을 모르고

살아온 성실한 인간의 추억에는 그들이 없는것이다.

나는 오만무례한 미제의 상통을 후려갈기며 우리나라가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포한 공화국정부의 성명을 받아안았을 때 통쾌한 감정에 휩싸였다. 불맞은 승냥이마냥 으르렁거리면서도 적들은 감히 우리를 어찌지 못하고있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빈말을 모른다는것을 적들도 알고있는것이다. 그것을 적은 두려워한다. 그것이 선군총대의 정신이고 의지이다. 때문에 우리도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에 온 심장과 운명을 맡기고 경애하는 장군님만 따라가고있다. 그것이 일심단결인것이다.

후대들이여! 조국이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인간으로 되려거든 우리의 운명이시고 하늘이신 **김정일** 장군님앞에서 가장 고지식하고 성실한 인간이 되라!

## 총각시절 외 1편

-한 비전향장기수가 부른 노래-

전승일

(1)

한번 가면

다시는 찾을 길 없는 푸르른 총각시절

남쪽땅 철창속에

짱그리 두고 온 이 몸

예순다섯 백발총각이 되어

꿈을 꾸듯 평양에서

첫 안해를 맞았구나

최스러워

아름다운 그대 모습

두손잡아 맞기에는

몸은 비록 총각이여도

남은것은 백발뿐이니

(2)

님이여

감방벽을 뒤희고

고문장을 뒤희서

하늘을 뒤희고

강토를 뒤희서

당신이 두고온 총각시절

내가 다 안고왔어요

짱그리 젊음을 다 빼앗기면서도

끝끝내 빼앗기지 않은

당신의 그 신념이

제 심장에 고이 간직된

푸르른 총각시절입니다

## 0.75 평

일어서면 머리가 닿고

누우면 발이 마치는 0.75평

개우리만 한 그 먹방안에서

새우처럼 꼬부리고 수십년을 살았거늘

강토여 넓다고 말하지 말라

그안에도 조국을 안고산 나의 세계가 있었다

## 운명의 계곡

손광영

## 1

그처럼 온 심혈을 다 기울여 작성한 저군 수물지구 《환경영향평가서》가 총장의 서랍속에 간단히 묻히는것으로 끝나버렸을 때 리정해교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그에겐 이미 총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때로는 오무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지러지기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쉽없이 뱉아내는 알팍한 입술만이 보였다.

상대방에게 《기소》나 항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제할소리만 다 해버린 총장은 이제야 마음이 누그러지는듯 신식류행의 양복자락을 헤치며 안락결상에 주저앉아 담배 한대를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지요. 난 교수선생이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관계당국과 그룹의 기대에 맞는 조사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언제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재야계의 반발을 일축시키는데 기여하리라 믿어요.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여기서 말을 끊은 총장은 그 후과를 우려하는듯 눈가에 서글픈 빛을 띄웠다.

리정해교수는 어떻게 총장실을 빠져나와 보도우에 올라섰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머리속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마디들만이 가득찼다.

그것은 위협인가? 아니면 경고?! ... 그럴는지도 모른다. 군부와 《국정원》 계통에서만 굴러먹던 이자가 어찌어찌해서 총장자리를 틀고앉은 몇해어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대학교정에서 쫓겨났던가...

교수는 대학당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비위에 거슬리는 내용을 실지 않았다. 수물로 하여 고향을 잃게 될 오지마을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저 침수가 이 지역 생태계에 미칠 파국적인 영향과 사라지게 될 수종들 그리고 언제완공이 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석회암동굴의 침하현상을 비롯한 순수 환경문제들만 취급했을뿐이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선했던것이 이마에 떨어진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음산하게 흐린 하늘에서 비방울이 후둑후둑 날리고있었다.

번민으로 뜨겁게 단 이마를 식혀주는 비방울-그것은 혹시 말복의 더위를 밀어내며 동강변의 하늘가에서 뿌려지던 그 비발이 아닐가? 총총한 비줄기속에 울려오는 목소리-그건 틀림없는 김인규이다.

《선생님! 순수 교육자의 량심으로 쓴 이런 문건

으로는 수물위기에 처한 동강을 지켜낼수 없습니다. 현실은 보다 가혹합니다.》

그가 남달리 위해주던 제자는 지금 교정에 없다. 동강변의 오지마을사람들속에 있다. 그러기에 교수는 먼곳의 제자를 향해 진심으로 말하는것이였다.

《인규, 자네가 옳았어.》

돌이켜보면 그가 대학 조교수시절부터 환경문제에 발을 잡그게 된것은 어쩌면 지나온 삶의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국민학교 2학년때 고향이 수몰된뒤 리정해는 실향민이라는 그늘속에 성장했다.

고향은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인가, 눈감아도 사무치게 안겨오는것이 나서 자란 산천의 그리운 모습이었다.

푸른 골짜기를 적시며 흐르던 맑은 강줄기, 버들방천을 따라 학교로 오가던 이슬에 젖은 오솔길, 산기슭에 다복다복 들어앉은 초가집들, 비록 가난했어도 가을이면 빨간 감알들이 푸르른 하늘가에 별천지를 수놓던 산골마을이 그에겐 소중했었다.

그가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아기와 함께 자란다는 튼튼한 감나무모 한그루를 뜨락에 심어 자식의 앞날을 축복해주었던것이다. 그런데 마을이 침수되던 그때 아버지는 바로 그 감나무밑에서 대대로 살아온 땅에 묻혀있는 조상들의 명복을 빌며 통곡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고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미처 슬퍼할 사이도 없이 어둠속에서 동네사람들이 서로 서로 찾고 부르며 피난해가는 산릉선을 향해 허둥지둥 올라갔었다...

늙은 어머니는 지금도 수몰된 고향을 잊지 못해 설이나 한가위날이면 제상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함께 고향을 등진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교수는 스스로 자신을 《환경난민》이라고 불렀다.

각종 공해산업이 배설해내는 유해물질로 수면마저 중금속빛을 띤 강들, 언제완공이후 오염도가 높아진 호수들, 재개발의 명목밑에 파헤쳐지는 토지들, 서식지를 잃고 떠나가는 철새들...

그는 환경문제가 떠오르고있는 고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새로운 방안들을 연구했고 재벌과 관제당국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며 그나름의 《록색희망》을 키워왔다. 그 바탕에는 과학자의 울골은 량심으로 환경문제에 꾸준히 참여하느라 먼 언젠가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부당한 행위들이

근절되리라는 눈물겨운 기대가 깔려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좌절될 때마다 착잡한 심정은 허탈감을 넘어서곤 하였던것이다.

## 2

가을비는 장인의 턱밑에서도 굶는다는데 이젠 도무지 그칠줄을 모른다. 대학본관이며 종합관, 도서관, 그밖의 부속건물들이 먼사포를 드리운듯 뿌옇게 보인다.

리정해교수는 비를 피해 도로옆의 은행나무아래로 들어섰다. 그러자 때없이 뿌러지는 비방울을 피해 벼랑아래나 아름답리나무옆으로 바투 붙어서곤 하던 동강변에서의 나날들이 떠올라 그만 눈곱이 따끔거린다. 소연한 비소음을 들으며 서있노라니 비내리던 날의 일들만이 추억된다.

...야밤삼경에 눈부신 섬광과 함께 천막지붕을 후려치던 비... 늦장마가 들었는지 온종일 구질게도 내리던 비...하늘에 닿은 뽕부리들이 걸핏하면 구름을 휘여잡아 뿌려주던 비...

동강변에서 달포가 넘게 보낸 나날은 크나 작으나간에 하나의 시련이었다. 그의 삶이 반드시 거쳐야 할 인생로정이었다.

인규는 명실공히 과학만을 지향해야 할 수재였다. 그가 대학졸업학년과정에 주제로 잡은 《교 및 부착생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교수는 그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런 그가 공안당국이 리적행위로 몰아치는 미군기지철폐를 위한 기습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곤경을 치른것이였다.

한주일후 풀려나온 인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스승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민족의 자주권을 선군의 총대로 지켜가는 공화국복반부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미군이 살판치는 이 땅에선 공안당국마저 동족사냥에 광분하니 망국은 망국이란 말입니다.》

그랬으나 제자에 대한 스승의 기대를 차마 저버릴수 없는 모양이였다.

인규는 그동안 밀진 봉창을 하려는데 이마를 싸매고 학업에 열중했다. 접어두었던 논문철도 다시 펴놓아 그를 기쁘게 하였다.

하지만 분망한 하루가 흘러 황혼을 등에 지고 돌아올 때면 인규의 얼굴이 얼마나 침울해지는지 교수가 보았더라면... 거리의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로숙자들과 실직자들의 참담한 정상이 젊은이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허벼놓았는지를 그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아마 제자의 말못하는 심정을 이해할수 있었을것이다.

어느날 인규가 스승을 찾아와 편지 한통을 내놓았다. 주소를 보니 태백산과 한지맥인 지군 오지마을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자기를 사마울대책위원이

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편지에서 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동강류역에 언제를 건설하려는 미군관계당국과 매관제벌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실향민의 처지에 놓이게 된 오지마을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쓰고있었다.

동강류역주민들의 참담한 사정이 반영된 환경문제인것만큼 교수는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지군 수물지구는 이 땅의 사라져가는 생태계가 마지막 숨을 쉬고있는 《최후의 보루》 이기도 하였던것이다.

교수는 동강이 사품처흐르는 그곳에 자기 운명을 걸지 않을수 없었다. 만일 그 골짜기마저 물에 잠기게 된다면 이 땅의 환경을 지켜 살아온 그의 한생애에 남는것이 없기때문이었다.

하여 조사단을 이끌고 현지로 떠나게 된 리정해교수는 인규를 조수적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환경을 바꾸면 그의 산란한 마음이 인차 회복될수 있으리라고 믿었기때문이었다. 또 한가지... 수많은 어족들과 부착생물들이 서식하고있어 강전체가 수중생태계의 보고나 다름없는 동강에서의 연구가 그의 미완성론문을 석사급으로 완성해주리라는 확신이 대학행정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런 용단을 내리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류숙하던 동강계곡에는 비발이 자주 드리우곤했었다. 하늘에 웅기중기 떠가는 구름장들이 태백산의 아아한 련봉들을 넘지 못하고 한장 두장 쌓이기만하면 어김없이 요란한 천둥이 울며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곤 했다.

어떤 날은 늦여름의 하늘이 협곡우에 청청하게 열리였는데 재빛구름이 엉켜도는 산정에서는 소나기가 억수로 퍼붓는지 탕수가 소리치며 밀려내려오기도 하였다.

한번은 인규와 함께 어느 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불어난 탕수를 만났었다. 다행히도 그들이 밟고선 기슭은 평탄한 공지여서 불어난 물이 량쪽으로 넓게 번지면서 일순간 흐름을 늦추는듯 했다.

신발을 벗어쥐던 인규가 문득 웃음을 참지 못하며 스승을 돌아보았다. 교수는 그가 손짓하는 곳을 보았다.

아닐세라...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달이란놈이 물살을 거슬러 부지런히 헤엄을 치다가는 다시 아래로 뚱뚱 떠내려오곤 하며 제법 수영을 즐기고있었다.

동물원에서만 보아왔던 수달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것이 놀라웠다. 혹시 저 수달은 남조선의 자연계에 남아있는 마지막수종인지도 모른다. 리정해교수는 사진기를 꺼내들고 재빨리 샷타를 눌렀다.

그날은 참으로 운이 좋은 하루였다.

그들은 조금 더 올라가서 청텡오리도 렌즈에 담을수 있었던것이다....

앞에서 울리는 경적소리에 교수는 고개를 들었다. 비물을 휘뿌리며 고속으로 달려오던 까만 벤즈 한 대가 그의 옆에 이르러 급정거를 한다.

《허- 이런... 교수선생 아니요?》

반쯤 열리는 차문사이로 재빛중절모를 눌러쓴 머리가 불쑥 나온다. 뜻밖에도 탈모진 머리를 늘 모자로 가리우고 다니는 총장이다.

은행나무아래 서있는 교수를 보는 그의 눈은 일순 실죽해졌다.

《원, 여기서 비를 맞다니... 교수선생, 힘을 내요. 이번 일만 잘되면 많은 상급과 명예칭호도 차례질 수 있지요. 문교부에서도 약속이 있었지요.》

《...》

총장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다가 그만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인지 희멀쭙한 얼굴이 붉어지며 어조가 대뜸 거칠어졌다.

《참, 연구생 김인규를 교수님이 책임진다 하였지요? 시끄러울겁니다. 그곳 주민들의 란동을 찍은 비데오테프에 그자의 얼굴이 잡혔더군요. 검찰에서 교수님을 소환하겠다는것을 내가 겨우 막았지요.》

중절모가 차안으로 쑥- 들어가자 벤즈는 씩하니 미끄러져나간다. 정문쪽으로 꺾어도는 승용차의 풍무니에서 빨간 불빛이 경고하듯 반짝거린다.

《흥, 그래두 날 생각해준다고? 고양이 쥐생각이지.》 하고 교수는 협모를 헐어버리듯 온몸을 떨며 이렇게 내뱉는다.

### 3

리정해교수는 걸음을 옮겨 대학정원가의 미루나무 숲속으로 들어섰다. 구름의 회색반사광을 받아 퇴색해보이는 무수한 잎새들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우수수- 비방울들을 털어버리며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소연하는듯 싶다.

그 나무들속에서 어느해인가 《최류탄가스공해》를 입어 말라버린 로목을 보며 그는 교정의 나무 하나도 지켜내기 어려운 몰인정한 사회에 《환경보호》라는 당치 않은 구호를 들고 나섰던 자신이 허무하게 느껴져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때 리정해는 바로 이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점적주사》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대학신문의 특별란에 그 사진까지 게재되었던 것이다.

총장의 자가용차에서 번쩍거리던 전조등빛- 그것은 위협일수 없다. 더구나 경고일수 없다. 《기염만장》의 기질을 군부에서 따내오고 《구밀복검》(좋은 말을 하면서 칼을 품고있다는 뜻)의 재간을 《국정원》에서 터득한 이자가 다른 사람의 운명같은것을 안중에 돌리 없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이자한테 걸려 교정에서 쫓겨났던가... 제자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옥죄인다.

《인규, 자네가 또 공안당국의 감시대상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그러자 동강변의 먼 하늘가에서 그의 격한 목소리가 메아리쳐오는듯 했다.

《만일 이 땅의 환경을 지키려는 애국심에 포승을 지운다면 그건 나의 조국일수 없습니다. 수몰이 초래할 후과를 두려워하면서도 몇푼의 돈에 눈이 어두워 골짜기들을 침수시키고 또다시 <환경난민>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진짜 <국민을 위한 시책> 일수 없습니다.》

...인규는 다감한 젊은이었다. 교수는 천막생활의 나날에 그것을 푹푹히 알았다.

인규는 동강류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도 종종 자신을 잊고 정쟁이를 치며 흐르는 맑은 물속을 들여다보곤 하였다.

새들이 우짖는 울창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가는 도로 뛰어나오며 명랑한 목소리로 웨치기도 하였다.

《선생님, 저-기 소나무줄기를 좀 보십시오. 딱따구리가 지금 부리로 나무통을 두드려 모르스부호를 날리며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을 동강계곡으로 부르 고있습니다. 아-아, 여기가 정말 희귀하고 아름다운 새들이 모여오는 이름난 조류서식지로 되었으면 ...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이의 들뜬 목소리에 화답하는듯 저-아래 강기슭의 두루미떼가 새하얀 몸들을 일시에 날아올리고 재빛두루미 한쌍이 아찔한 협곡 병랑사이를 유유히 가로지른다.

동강이 고괘치는 절벽너머에서 벽적 떠드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점점 소란스레 들려오더니 일여덟 명가량의 관광객들을 태운 고무배 하나가 급류우에 불쑥 나타난다. 물결이 세차게 부딪치는 절벽이 눈앞에 크게 확대되며 빠른 속도로 다가들수록 고무배우에서는 비명인지 괴성인지 알수 없는 소리들이 어지럽게 터져나온다. 하나 급류타기의 능수인 고무배는 절벽에 부딪치지 않고 소용돌이치는 물살과 함께 아래쪽으로 쏙살같이 떠내려간다. 강심으로 노젓는 고무배우에서 아찔한 성공의 환호소리가 협곡의 여기저기에 부딪치며 멀리멀리 울려간다.

저들은 지금 사라져버릴 동강의 경치를 흐름을 따라가며 즐기면서 급류타기를 하는것이다. 물에 잠길위기에 처한 계곡에 매아닌 《관방바람》이 일어 동강은 전에 없던 《몸살》까지 앓고있다.

골짜기를 따라 벌여져가는 고무배를 바라보는 인규의 눈가에서 점차 명랑한 빛이 사라진다.

한참만에 인규가 먼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생님, 몇년후에 다시 이 고장을 찾을 땐 배를 타고 저 높은 벼랑마루로 다가갈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류숙하던 골짜기들에선 정체된 물이 썩어갈것이고... 혹은 그 물이 어느 침식된 석회암동굴을 따

라 흐르다가 언제아래 땅껍데기를 터치고 나와 가쪽이나 기운이 스러진 저 아래마을들을 덮치는 홍수로 변신할수도 있을겁니다.》

《아니,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가 이 계곡에 온것이 아닌가.

조사를 심도있게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만 잘 만들면 부당한 행위들이 근절될수 있으리라고 보네.》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달리될수 없는 현실이 아닙니까. 결국 골때목의 추억과 설다리풍경, 나루터문화의 원형인 오지마을들은 사라질것이고 동강계곡은 비데오화면속에서나 찾아보게 될것입니다.》

교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제자의 말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인규는 스승의 지나온 인생을 통해 이미 결과를 이끌어냈던것이다.

그날부터 인규의 생활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인규는 교수의 지도밑에 석사급으로 완성해가던 논문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 어디에 갔겠는지 저녁이면 땀에 흠뻑젖어 천막가로 돌아오곤 하였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하는 일이 선명해졌다. 그는 주변의 오지마을을 찾아가 토배기들을 만났으며 인민유격대유적이나 그 전설들을 찾아 신발이 닳도록 험한 산밭들을 오르내린것이었다.

《천막식구》 들중의 누구는 한때의 산골사람들과 함께 언제건설공사가 시작될거라는 소문이 자자한 어라면계곡으로 밀려가는 인규를 보았으며 또 누구는 산밭기에 서서 백두대간이 굽이쳐온 북녘의 역센 준령들을 오래도록 우러르고있는 인규를 보았다고도 하였다.

...정오가 갓 지난 무렵이었다. 심마니(산삼캐는 사람)차림을 한 팔팔해보이는 중년남자가 천막을 찾아왔다. 자기를 수물지역 사마을대책위원이라고 소개할 때 리정해교수는 대뜸 알수 있었다. 그가 바로 한달전 인규에게 편지를 보냈던 장상근이라는 농민이었던것이다.

장씨는 인규를 알게 된것이 3년전부터였다고 했다. 그때 인규는 방학을 맞으며 《한총련》 산하 대학생들이 진행한 농촌자원봉사활동의 한 성원으로 이곳에 나와있었던것이다. 장씨는 반나절이나 기다리며 인규를 만나려고 했다. 했으나 저녁때까지도 만나지 못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기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 젊은인 오지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친동생같은 사람이라우. 처음 만났을적엔 마을유래며 사는 형편을 물어보기도 하고 발일도 해주기에 그저 마음씨좋은 로조청년인줄 알았다오. ... 글썽 전번에 왔을 땐 동강에 고유한 때목노래를 기어이 채보해야겠다는 바람에 둘이 같이 린근마을에서 그중 고

령인 유씨할머니를 찾아갔었다오. 그 젊은이가 혹시 뒤풀이가수 아니우? 음에 어찌나 밝은지 유씨할머니가 꺼끌꺼끌 대중없이 떠올리는 토막음들을 버리어 제법 때목노래 만들어넵디다. 그 노래는 <황새어물 된 꼬리야, 때목 잠재워주소.> 라는 민요에 가려 여직껏 묻혀있던 노래라오.

세상천지야  
싸우지 못할것은  
때사공아저씨  
때줄만 질러놓고  
간 곳이 없구나  
...

하, 이래놓으니 울음이 터졌다오. 옛날 골때목 가물막에서 불쌍하게 죽은 이들의 때상밥을 해주면서 설음을 함께 나누던 유씨가 아니우. 그 기막힌 사연이 깃든 계곡과 차마 헤어질수 없어 이날 이때껏 굴피집을 짓고 살아온 유씨가 아니우. 할머니 두손을 비틀어짜며 녀두리를 했다오. <이제 무슨 일이야. 동학란때부터 살아온 오지마을에서 떠나라고 억박지르다니. 왜정말기에도 이러진 않았어. 내사 말년에 편안히 있지 못하구 실향민이 될바에야 기둥을 붙들고 죽구 말아야지.>

그 젊은이가 <할머니, 그때 가선 이 굴피집도 통채로 등등 물우에 뜨겠으니 숨이 끊어지기전에 놔들이 쪽배를 타고 와서 건져줄거예요.> 하고 말해서 모여온 동네사람들을 한바탕 웃겼다우.

<그럼 어쨌으면 좋겠나.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니.>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을 터놓자 젊은이가 하는 말이 <맞서서 고향을 지켜야지요.> 합디다.

유씨할머니 기고만장해서 손바닥으로 노전을 탁 치며 한무릎 나앉았다오.

<어쩐지 그 말이 듣기 좋구먼. 그럼, 옛날부터 법은 멀구 주먹은 가깝다 했거늘. 일단 일이 터지면 이발로 먹줄을 물고 늘어지더라도 너 죽구 나 살구 해볼 판이야.>

누군가가 할머니의 말을 <이몸으로 물고 늘어지더라도...> 라고 깨우쳐주어 또 웃음판이 터졌다우. 결국 그날 우리는 언제공사를 결사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못기로 락착짓고 헤어졌다우.》

## 4

밤이다. 별방보다 더 어두운 동강계곡의 밤이다.

어둡도록 나타나지 않는 인규를 기다려 천막가를 거니는 리정해교수의 마음은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다. 기다림은 이미 한계를 벗어나 지나온 인생의 굽이들을 날은다. 재난이 모든것을 휩쓸고 지나간 계곡들에는 《록색희망》이란 표말만이 장승처럼 기울어진채 서있다. 교수여, 그래 너는 저 계곡에 그 표말을 박은외에 한 일이 무엇인가? 너는 아직

도 거기서 그 어떤 자부심을 찾으려는가?

저녁에야 돌아간 장씨의 이야기가 그에게 준 충격의 여운이다. 그때 그는 무슨 말인가 더 할듯할듯하다가 끝내 하지 않고 강여울을 따라 마을쪽으로 걸어갔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지 교수는 저으기 궁금했었다....

인규는 아직도 오지 않는다. 갇은 억측과 불안이 골짜기에 내리는 어둠과 함께 온몸에 엄습하여 천막안에서 기다리고있을수만 없다.

리정해교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인규가 돌아올 길목으로 나선다. 비방울이 날린다. 축수높은 손전지불줄기도 겹겹이 막아서는 어둠을 확- 뚫지 못하고 다물아치는 비바람에 조금 휘어드는듯 하다. 드디어 교수는 두손을 입가에 대고 제자를 소리쳐 부르기 시작한다.

《이-인-규-우-우-》

목소리는 저기압에 눌러 우로 떠오르지 못하고 메아리도 없이 어둠의 심연속으로 빨려들어가버린다. 덜컥 겁이 났다. 제자의 신상에 닥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슴을 못견디게 압박했다.

교수는 그가 자신의 전공분야로 돌아서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던가. 이제 와서 그는 자기를 뉘우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뭐니뭐니해도 제자를 여기로 데리고 온 사람은 다름아닌 리정해-자기였기때문이었다.

론문철은 접어두고 해종일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저녁 늦게야 지쳐서 천막으로 들어서곤 하는 그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까닭모를 불안과 위구심이 자리를 넓히곤 했었다. 자랄대로 자란 불안과 위구심이 마침내 온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을 때 교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었다.

《군은 앞으로 생태계조사나 론문같은것은 다 밀어치우고 계속 그 일을 할 작정인가?》

《선생님!》

인규는 교수의 힐책어린 눈길앞에서 더는 주저 않고 대답했었다.

《지켜내지 못하는 생태계조사가 뭇때문에 필요합니까? 선생님은 아직도 관계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는것으로 동강을 지켜낼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번에는 교수가 대답을 못하였다. 환경문제가 상정될 때마다 신끈을 조이며 큰일이나 칠것처럼 나섰지만 그때마다 매번 컴퓨터에 입력하는것으로 끝을 맺은 그였다. 그런데 컴퓨터는 교수가 한생 조사해온 이땅의 환경피해자료들을 불가사리처럼 그저 먹어치우기만 할뿐 말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명석한 《두뇌》에 기억된 자료들을 간추려서 미군과 매관제벌의 부담성을 단죄하는 성토문 하나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명실공히 컴퓨터이지

지향과 념원,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때문이다.

인규는 주먹을 쥐고 어둠속을 날카롭게 지켜보다가 단호히 고개를 흔들었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는 환경은 고사하고 자기자신도 지켜내기어려울겁니다. 전 지금도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쟁쟁합니다. 어떻게 되어 이 일을 하게 되였는가고 묻는 저에게 선생님은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릴적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자신을 <환경난민> 이라고 하였지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당한 불행은 환경이 가져다준것이 아니라 사람때문에 초래되었으니 선생님은 <인재난민> 입니다.》

《그러니 인규는?...》

《선생님, 저는 오지마을사람들이 당하게 될 불행과 침수될 이 계곡들을 외면할수 없습니다. 결코 물에 잠겨서는 안될,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지켜내야 할 이 땅이 아닙니까? 오직 투철한 신념과 투쟁으로 엮어낸 <환경영향평가서> 만이 동강과 오지마을사람들의 운명을 지켜낼수 있을겁니다.》

제자의 격정어린 그 목소리가 계곡에 드리운 어둠과 두터운 비구름장막을 뚫고 저 멀리 별하늘가로 찌렁찌렁 울려가는듯 했었다....

문득 비물에 젖은 나무잎새들에서 그 어떤 빛발같은것이 미끄러져나간다. 착각이 아니다. 얼크러진 잔나무가지들을 헤치며 누군가가 불빛을 앞세우고 다급히 이쪽으로 오고있다.

《선생님!》

드디어 그의 앞에 나타난것은 비에 화락히 젖은 인규의 모습!

리정해교수는 다시는 잃지 않으려는듯 그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는다. 욕이 나오는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사람두, 어쩌면... 어쩌면 그리두 속을 태우는가. 자네가 자꾸 이러면 난 자신을 후회할수밖에 없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시간을 맞춰 오려던 노릇이그만...》

인규는 마중 나온 스승의 심정이 헤아려져 그저 머리만 숙일뿐이다.

그다음은 침묵... 둘 다 말이 없다.

한참만에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Z마을에서 장상근이라는 사람이 왔다갔네.》

《알고있습니다. 그를 만나고 오느라고 이렇게...》

《?...》

손전지불빛에 교수의 굳어진 얼굴이 우렷이 드러났다. 인규는 골안에 드리운 어둠을 주시하다가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전 장씨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동강계곡

에서 벌어지는 언제건설의 진짜 내막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홍수피해방지와 물자원확보를 위한 공사라는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교수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무엇인가 커다란 돌이 벼랑우에서 굴러떨어져 쿵-하고 가슴을 치는 느낌이었다.

《인규, 무슨 일인지 좀 자상히 말해줄수 없겠나?》 교수는 후들거리는 가슴을 겨우 누착히며 물었다.

《선생님,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자들이 이 지역에서 언제건설을 다그치려는것은 한강 남쪽으로 옮기려는 미군에게 새로운 유흥장과 특수훈련기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 그 구체적인 실증자료들을 다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교수는 신음하듯 부르짖으며 놀란 눈길로 인규를 바라보았다.

언제건설의 진목적이 명백해진 지금에 와서 그는 더할 말이 없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정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는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눈물이 나도록 부끄러웠다. ... 며칠후 교수는 동강계곡에서의 체류일정을 단축하고 서둘러 대학으로 돌아와버렸다. 언제건설의 흑막이 벗겨진 지금 여기에 조사단이 머물러있어야 할 이유가 더는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철수하는 《천막식구》들속에서 제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인규는 스승의 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지마을사람들속에 남았던것이다.

그가 대학으로 돌아온지 얼마후 인규에게서 편지가왔다. 교수는 제자의 편지를 통해서 그동안 밝혀진 언제건설의 흑막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미제의 식민지적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동강계곡을 수몰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매국역적의 무리들속에는 대학총장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이 땅에 끊임없는 재난과 화근만을 몰아오는 미제와 매국역적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재난민》의 처지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는 오늘의 남조선땅이었다. 인규의 편지는 절절하였다.

《선생님, 우리와 한 산줄기로 잇닿은 북반부를 보십시오. 큰 비가 내려 자연재해가 생겨도 그 피해를 막기위해 모두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뛰는것은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꾸려주신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기때문입니다.》

리정해교수는 미루나무들의 정겨운 속삭임을 들으며 비뚤은 대학정원을 조용히 둘러본다. 잊을수 없는 그 밤, 제자가 하던 말이 너무도 쟁쟁하게, 너무도 절절하게 심장을 두드린다.

(그런데도 나는 채심하지 못하고 그 《환경영향평가서》로 동강을 지켜내려고 했었지.)

중절모의 전뚫은 채양아래서 쏘아보던 총장의 독

소어린 눈길을 생각하자 울컥 울분이 솟구친다.

(인규, 나는 자네의 신념을 믿네. 그런 신념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룰 거세찬 항거가 눈앞에 보여오네. 워낙 이 땅의 환경이란 그렇게 지켜야 했던거지.)

재빛구름의 한 귀퉁이가 찢겨져나가며 비온 뒤의 강렬한 해살들이 미루나무숲속에 비껴든다. 그 해살들을 오리오리 엮는 장쾌한 바람소리가 정원숲을 누비며 저 멀리 달음쳐간다.

그들이 동강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산말기에 올랐을때 옷자락을 기발처럼 나뭇겨주던 그 바람이다. 저 멀리 조종의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아아한 준령들이 억세게 굽어쳐온 북녘을 우리를 때 가슴벅차게 안겨들던 장쾌한 그 바람이다. 그 바람결을 타고 인규의 격조높은 목소리가 온 남녘땅에 울려가는듯.

《선생님, 우리에게세 세사에서 제일로 자연을 아끼시고 민중을 사랑하시는 민족의 령수-**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십니다.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남녘민중도 <인재난민>의 처지에서 구원될수 있으며 잃어버린 고향도 다시 찾을수 있습니다.》

×

총장은 리정해교수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를 이제나저체나 기다렸다. 그런데 한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초조했다. 미군사령부의 관계인물들과 日건설측은 분교부를 통해 매일같이 독촉이었다.

기다리라고 했다. 교수는 원래 심중한 사람이니 조만간에 다시 작성한 《평가서》를 내놓을것이다. 그도 많은 상금과 명예가 뒤에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테니까...

석양이 창가의 빛조르개 툼툼으로 뚫고들어와 맑은켄 벽면에 편지지의 줄간같은것을 촘촘하게 그어 주고있는 저녁이다.

대머리총장은 결상에 깊숙이 몸을 묻고 뜨거운 커피를 조금씩 마시며 그날 신문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신문을 몇장 번지니 상단에 북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을 싣고 관련 기사들을 편집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그전같으면 북을 조금만 찬양하는 발언을 해도 남산밑실에 가두고 족치었는데 북남 6. 15공동선언이 나온 요즘에 와서는 많은 출판물들과 방송들이 찍하면 북과 관련된 기사들을 실는다.

신문 아래단으로 눈길을 떨구던 총장은 그만 숨이 꺾 막히는듯 하였다.

거기에는 《한국환경조사백서》란 표제아래 미국을 규탄하는 리정해교수의 글이 폭탄선언처럼 실려있었던것이다.

## 노을

박수연

보람찬 금요일로동의 하루가 저물었다.

한낮에 내려쬰이는 띄약벌속에서도 실줄을 모르던 금요일로동참가자들이 대동강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퇴근길에 올랐다.

나는 한때 룡구선수를 했다는 부부장과 조를 무어 해종일 나무들에 거름을 날라주느라 두다리가 빠근했으나 우리들의 하루로동의 땀이 스며져있는 모란봉을 희열에 넘쳐 돌아보았다.

알뜰하게 가꾸어진 산책길과 아이들의 놀이터, 금붕어가 꼬리치는 런못과 고색창연한 올밀대... 한때의 못새들이 내가 가꾼 술술에 날아들었다.

비쭈- 쪼르르.

나는 상쾌한 기분에 잠겨 모란봉기슭을 따라 걸었다.

행복이 넘쳐흐르는 거리, 사람들의 밝은 모습들을 차장마다 가득 싣고 달리는 무궤도전차들과 대형버스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2층버스에 새겨진 글발이 한눈에 안겨왔다.

얼마나 궁지높고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글발인가.

유구한 반만년력사에서 오늘처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온 세상에 펼쳐진적은 없었다.

내가 버스에 새겨진 글발을 다시금 새롭게 되새겨보는데 앞에서 걸어가던 처녀애의 말소리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엄마, 하늘의 노을이 곱지?》

《그래, 정말 곱구나.》

나는 엄마손을 잡고 제비꼬리같은 머리태를 달싹거리며 뽀뽀하듯이 걷는 처녀애의 고운 손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인민대학습당너머로 기울어진 하루해는 구름의 파도가 끝없이 물결쳐간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엄마, 노을은 왜 생기나?》

호기심많은 처녀애는 머루알같이 까만 두눈을 깜박이며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 쳐다보았다.

《노을은 사람들에게 더 맑게 개일 래일을 알려주려고 생긴단다. 그래야 너희들이 유치원에서 더 즐겁게 뛰놀지!》

처녀애는 그제야 깨닫기라도 한듯이 머리를 끄덕이고나서는 또다시 토끼뽀를 하며 걸어갔다.

나는 철없는 처녀애의 행동이 너무 우스워 입가

에 웃음기가 함박꽃처럼 피어났지만 인차 애어머니의 말에 생각이 미치였다.

더 맑게 개일 래일! 무엇이 가슴을 쿵 울리며 후더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노을은 태양의 빛이다. 그 빛은 온 하늘을 꽃바다처럼 아름답게 장식하였지만 그보다는 더 맑게 개일 래일을 예고해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보다 큰 환희와 랑만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태양이 없다면 저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니 노을은 태양의 빛인셈이다. 태양의 빛!...

나는 이름할수 없는 더운 감정이 서서히 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표현하기 어려운 열렬함과 숭고함. 위대함을 안고 휘날리는 붉은기...

우리 당 력사와 더불어 래일의 승리와 영광을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상을 꿰뚫어 해온 붉은기, 그 기발의 붉은 색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굳은 신념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더 세차게 나뭇겨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혁명은 더 백배한 기세로 력사의 폭풍과 격랑을 헤치며 사회주의 모든 전선에서 대진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였다.

세계를 경탄시키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 우리의 주체예술이 대양과 대륙을 넘어 온 세상에 파급되였다. 얼마나 궁지높고 보람찬 나날들이였던가.

뜻밖에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던 피눈물의 언덕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다시 일어설수 있었으며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혁명붉은기가 있어 사회주의진지를 튼튼히 지켜낼수 있었다.

시련 많던 그 나날들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과 가슴아픈 일들이 많았던가. 불밝던 거리와 마을들과 집집의 창가에서 전등빛이 귀해졌고 언제나 기운차게 달리던 렬차들의 동음소리도 뜸해졌다.

계절따라 색깔고운 옷들을 끌라임으며 웃고 떠들던 우리 처녀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국방력강화를 위한 길에 힘을 다 바쳐야 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 모든 준엄한 시련들을 이겨냈을뿐아니라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



가 온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진군을 시작하였다.

그 잊지 못할 나날들을 저녁노을은 태양의 빛으로 뜻깊은 6월의 하늘에 펼쳐보이고있다.

태양이 없으면 세계가 없듯이 우리 장군님께서 안게시면 조국도 없고 민족도 없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고 붉은기는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빛이다. 그 노을이 불러오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할것인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보다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선군혁명의 붉은기가 세기의 하늘높이 힘차게 나뭇기는 우리 시대, 이 자랑스럽고 영광넘친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인민의 모든 미래가 꽃피나고 있다.

나는 40년전 그날처럼 한폭의 거대한 붉은기처럼 붉은 노을이 비껴간 수도의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위대한 천출명장을 태양으로 모시고 민족의 존엄을 떨치며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영광스러운 내 조국의 밝은 앞날을 확신에 넘쳐 그려보고있었다.

## 내 나라의 무궁한 세월속에

리광선

흐르는 세월속에

해마다 맞이하는 6월이건만

어이하여 이해엔

우리 마음 이다지도 설레이는가

너무도 평범한 날에

너무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장군님령도의 첫 자욱을 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마흔번째로 맞는 이 6월

이 땅에 흐르는 달과 달들은

그 모두 기쁨을 안고 오지만

뜨거운 감회에 젖어

추억의 갈피를 번지는 우리에게

너는 진정 무엇이던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는 우리의 삶을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으로

더욱 활짝 꽃피준 6월

잠바웃과 야전차족잠과 쥬기밥...

전설같은 이야기들에 눈물지으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분을

가장 가깝게 알게 해준 6월

생각하면 가슴뜨거워라

총구와 총구가 맞댄 최전연고지에서

산간마을 마지막두메까지

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실어온 6월

《고난의 행군》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우리 아이들의 책상우에

따끈한 콩우유를 놓아준 6월

오, 정녕 6월이여, 너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의 령도아래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

빛나는 세월이였고

승리의 한길만을 굴함없이 걸어갈

찬란한 래일이거니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따라

이 땅에 찾아온 내 조국의 마흔번째 6월이여

선군으로 수호되고 선군으로 번영할

내 나라의 무궁한 세월속에

너는 길이 빛나리라!

영원한 우리 삶의 6월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락천적인 기질이 높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공동시설에서

단편소설

## 정보로 걸어라

정창윤

맑은 가을날이다.

태백산성의 먼 산, 가까운 산은 단풍빛일색이다.

좋은 벗과 짝하여 종일토록 걸으며 옛 산성의 아름다움에 취하고싶다.

하지만 긴 러로에 시달린 나는 피곤으로 하여 러인숙의 빈방에 눕고말았다.

뒤엔 산을, 앞에는 개울을 끼고있는 한적한 러관이다.

옷방에서 두 청년이 공동으로 무엇인가 계산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내물소리와 또 다른 소리를 들을 길이없다.

보매 그들은 대학을 갓 나온 청년기사들인듯 싶다. 광폭이니 광체의 깊이니 연장거리니 하면서 분명 광물의 매장량을 계산하고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다 말고 아래목 벽에 걸린 맹수용사냥총이 눈에 띄우자 놀라운 마음으로 몸을 반쯤 일으켰다. 그 사냥총이 나와는 구면인상싶었기때문이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 총을 벗겨다가 자루에 새겨진 석자의 내 이름을 읽었다. 때문고 비바람에 씻기워 퇴색한 사냥총이었지만 굵은 칼날로 새겼던 그 석자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여기서 이 총을 만나다니... 그것은 십년도 넘는 세월이 아니었던가.

×

장마가 계속되었다.

후방병원에서 퇴원하자 전선으로 향해 떠난 나는 xx도의 깊은 산간마을까지 와서는 길이 막혀버렸다.

내가 건너야 될 북천강다리가 떠내려간것이다.

나는 화선으로 달려가고싶은 생각에서 거의 백리길이나 강기슭을 따라 물건을 곳을 찾았으나 워낙 산골물이고보니 물에 들어설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나는 물이 찌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차라리 군의들의 말에 순

종하여 병원에 남아있는것이 나을번 했다.

마을둔덕에 외로이 선 러인숙엔 나와 같은 처지가 된사람이 또 한사람 묵고있었는데 그는 맹수용사냥총과 쌍안경이며 등산용지팡이로 무장한 왼살남짓할 사람이였다. 코도 눈도 손도 모두가 큼직큼직한 그는 장대한 체구로 하여 범이나 메돼지쯤은 맨주먹으로 때려눕힐수도 있는 포수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포수라고 하지 않고 《방랑》하는 광석수집자라고 소개했다.

어쨌든 나에겐 매일반이었다.

이 답답한 처지에서 불행을 함께 나눌 길동무가 있다는것이 그저 다행일뿐이었다.

그리하여 문열고 얼굴을 내밀면 보이느니 산과물뿐인 이 적막한 마을에서 《방랑객》이라는 광석수집자와 보병소위는 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신문은 고사하고 새책조차 한권 구할수 없었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거닐지도 못할 날씨였다. 비행대들의 폭격소리도 드물게 들려왔고 전선련대들의 소식조차 전혀 알길이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이란 입원기간 병원일군들에게 맡겨두었던 권총을 하루에도 세네번씩 닦는것이였다. 이처럼 하는 일이 너무도 없고보니 길동무와 그의 소지품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이 사냥총은 락탄거리가 몇메터인가, 살상거리가 보잘것 없지 않은가, 당신의 직업은 전쟁도 아랑곳하지않는가, 광석수집자란 직업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 소속은 어딘가 등등 나는 그에게 어리석은 질문까지 들이대었다.

그러면 길동무는 철부지청년이 적적함을 이기지 못해던지는 이런 질문에 웃었을뿐이었다.

그 역시 적적하기엔 매일반인듯 했다. 갓난애기

의 주먹만 한 담배통에 독한 담배를 빼곡이 쑤서 넣고는 쉬임없이 빨고있었다.

내가 배낭에서 담배갑을 터뜨려 권해도 그는 결코 그것을 피우는 일이란 없었다.

그는 목침을 베고 누워서 방안이 드르렁드르렁 울리게 코를 골며 자다가 깨서는 주인집 질그릇대야에 소란한 물소리를 내면서 세수를 하고는 수첩에 연필로 무엇인가 쓰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다.

나는 그가 라틴어로 광석명들을 기록하는걸 보았고 등고선이 정확한 지형도를 그리는것을 보고는 처음에 놀랐고 다음엔 호기심이 버쩍 생겨났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람?

그렇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고 또다시 캐여 묻지는 않았다. 나에게 있어 그보다 더욱 큰 관심사로 되고있는것은 부대로 갈수 있는 길이 언제 열리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군인인 나는 이처럼 려인속에 우두커니 앉아있는것이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생각되였다. 그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강가로 들락거리며 길을 열어볼 방책을 찾곤 하였다.

《젊은이가 산골장마라고는 처음 겪어 보는군.》

길동무는 안정 못하는 나를 보며 웃곤 하였다.

《이건 섬에 갇힌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어찌겠소. 어쩔수 없는 경우라는게 있으니까.》

하루에도 여러번 우리 두사람사이엔 이런 말이 오고갔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겐 기쁜 일 하나가 생겼다.

그것은 주인집 로파가 다락에서 장기판과 장기쪽 주머니를 찾아내주었기때문이다.

묵직하고 매끈해서 질맛있는 팔각형장기쪽들은 퍼그나 오래된 유물인듯 했으나 푸르고 붉은 색깔이 날지 않은채여서 우리를 저으기 기쁘게 했다.

《우리 집령감이 장기를 무척 즐겼대요.》

주인집 로파는 장기판을 비자루로 쓸고 물걸레로 닦으며 세상떠난 령감을 회상했다.

《그런데 젊은이, 장기놀줄 아나?》

길동무는 장기판을 보자부터 애들처럼 흥분해있었는데 그는 대단한 장기애호가인듯 싶었다.

《우리 집령감은 언제나 면상을 놓았대요.》

주인집 로파가 아래방으로 내려가면서 제법 아는

체했다.

《한판 붙어볼가요. 사나이장기는 일수불통이지요.》

시작에 앞서 길동무가 한마디 했다.

틀림없이 나를 깔보고 한 소리다.

《제가 본 어떤 장기군은 머리까지 흰 로인인데 중학생에게 련전련패를 당하면서 찢찢매더군요.》

나 역시 그가 한 소리에 적당한 대답을 제때에 하는걸 잊지 않았다.

우리의 첫 접전은 치열했다. 나는 접전초기부터 량차의 길을 열고 속공으로 궁주위에 접근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심하게. 그렇게 덤벼들다가는 후회할걸세. 나로 말하면 임자가 언제인가 봤다는 늙은 바보장기군이 아니야.》

길동무는 덤빔없이 나의 공격을 막아내서 자기가 상당한 명수급에 속할수 있는 장기군이라는것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 말을 귀등으로 흘려넘기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나 역시 한때는 련대의 선수권을 보유한 장기군이였다. 혼란에 빠졌던 상대방은 능숙하게 방어진을 꾸리고는 공격으로 나왔다. 분명 길동무는 상당한 장기명수였다.

그의 장기쪽들은 항상 방어와 공격을 기동성있게 진행할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있었다.

량귀상과 코등마로 방어하고 좌우켄 포의 엄호하에 차로써 나의 궁을 위협하다가는 불의에 량상이 뛰어나와 두세번 련장을 귀청이 찢지게 부르며 코등마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노렸다. 그때마다 나는 한참씩 장기판을 뚫어지게 살펴보고야 간신히 피해 나갈 길을 찾곤 했다.

길동무는 장기쪽 지휘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을 올려주는데도 기막힌 솜씨를 보여주었다.

내가 만일 한수만 잘못 옮기면 더는 지탱할수 없게될 우려가 있어서 생각에 잠기게 될 때면 그의 눈가엔 유쾌한 웃음빛이 떠돌았다.

《두뇌차이를 보충한다는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데. 그러니 해질 때까지 들여다보면서 명안을 찾아내게. 난좀 한대 피울테니. …》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병들의 전투력사를 보면 포위망을 뚫는 병사들은 항상 비싼대가를 치르었지요. 그러니 차

를 나에게 주구려. 그러면 통수를 면하도록 해줄테란 말이요.》

나는 수많은 장기군들과의 접전을 통해 상대방의 약을 올려주는 일쯤엔 습관됐지만 이보다 더 멋지게 침착한 음조로 약을 올려주는 사람은 어느 행군 도중에 접선했던 로장령 한사람에게서만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위기를 면할수 없게 되어 비장을 노리다가 결국은 그것에 성공했다.

《옳거니, 그렇게 해야 하는거야. 난 지금 임자가 꽃내기가 아니라는게 기뻐.》

두번째 접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의 량차, 량포, 량마는 방어에만 급급하는 슬픈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면서도 불의습격기만은 항상 열고있었다.

《약간 겸손해진체 하면서 불의습격기도라... 훌륭한 전법이야.》

길동무는 장기관의 매줄과 매 구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면서 나의 불의습격기도를 조소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를 방랑객 광석수집자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힘센 산골포수로밖에는 달리 볼수 없는 이 점잖은 길손이 이처럼 멋지게 나를 골려줄줄 안단 말이지... 품위있게 처신할줄 알며 기지에 찬 룡담을 할줄 아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장기관에 시선을 던지고있었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필요없는 수를 여러번 썼다.

혹시 학자나 아닐까?

어쩌면 지금 나는 원사나 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길동무가 된지도 모른다. 무엇때문인지 그를 두고 나에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학자로 보기엔 그의 외모를 이루는 모든것이 너무도 거칠었다.

입대전에 학생이었던 나는 싫든좋든 여러 학자들의 강의를 들어야 했고 그들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고는 대답이 씨원치 못하다고 호된 핀잔을 들어야 하였다.

학자들이란 제각기 외형이나 음조, 몸짓조차 각이하지만 또한 첫눈에 알아볼수 있는 공통한 표징이 있다.

그들을 대하고있노라면 책들로 가득찬 서재, 고

문헌들, 연단, 강의실 그리고 아늑한 불빛이 등갓에 썩워진 책상이며 부드러운 비로도가 썩워진 결상이 그려진다.

그리고 지금 내앞에 장기관을 대하고 앉아서 통수만 노리는 이 사람에게서는 전혀 그런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드세게 생긴 주먹과 철근을 건너치른듯한 단단한 어깨며 주름살때인 검은빛이마로부터 우렁우렁 울리는 웅근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외형인 학자들의 표징이라고 할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를 보고있노라면 의지할데 하나 없는 스산한 별관과 락엽지는 산길, 절벽 등둥이 떠오르고 길가 주막집의 어슴푸레한 등잔불과 반들거리는 목침이 련상되군 했다.

내가 마침 xx도의 깊은 산간에서 그와 만났고 그 또한 자기를 방랑객이라 소개했기때문에 이런것이 상상됐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일과엔 변함이 없었다. 밤에는 절벽에 부딪쳐 흘러가는 강물소리와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소리를 들었으며 낮에는 어떻게든 부대로 빨리 돌아갈 생각에 강가를 오르내렸다.

그대신 하늘엔 번덕이 많았다. 때로는 맑게 개일징조로 별들이 구름장잠새를 헤집고 반짝이다가는 다시금 텅텅하니 흐려지며 굵은 비방울을 내리붓곤 하였다.

어느날 우리는 비가 좀 뜸해진 뜸을 타서 려인숙을 나섰다.

려인숙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파견하신 한 공작원이 국내공작을 진행하던 밀영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 고구려시기 외래침략군들을 격퇴하기 위하여 축성한 장성의 일면이 있었다. 우리는 이 혁명전적지와 력사의 유물을 보려고 버르던 참이었다. 우리가 마을밖 큰 길을 나와 강과 면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거기서 방금 물에 잠길듯 한 광석무대기를 발견했다. 광석무대기결엔 적의 비행대의 기습을 받아 불타버린 대형화물자동차가 녹슨채 넘어져 있었다.

이 길로 통한 어느 광산에서 운반되다가 버림받은것들임에 틀림없다.

만약 복천강물이 조금만 더 불어나면 이 귀중한 광석들은 영영 없어지고 말것이었다.

《아까운 일ियो.》

하고 길동무는 광석무지결에 한동안 서있다가 허리를 굽혀 무거운 광석 하나를 집어 들고 들여다보았다.

얼마 안있어 그는 머리를 들었는데 순간 그의 눈엔 희귀한 보물이나 붙잡은듯 한 기쁜 빛이 나타났다.

《이건 황동광ियो.》

하고 나의 길동무는 그것을 내밀어 보여주고는 또 다른 광석들을 만져보는데 열중하여버렸다.

《방연광이나 자철광도 섞었소.》

나는 그의 능숙하게 광석을 다루는 솜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그날 우리는 혁명전적지와 력사의 유물들을 보느라고 많이 걸었다. 때문에 저녁상을 물리자 피곤에 못이겨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갔는지 밤이 꽤 깊었을 때였다. 나는 천지를 뒤흔드는 우뢰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번쩍번쩍 번개불이 문창호지를 밝히며 스쳐지나고 세찬 비방울이 토방밑에 놓인 깨진 대야에 큰소리를 내며 퍼부어졌다.

내가 방안을 둘러봤을 때 열어놓은 사이문결에 걸여놓인 등잔불밑에서 주인로파가 물레질을 하고 있었을뿐 길동무는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어데 가셨는가요.》

나는 그의 행방이 궁금했다.

《참, 세상에 별난 사람도 다 있지. 질통을 지고 나갔다우.》

주인집 로파가 하는 대답이었다.

《질통을 지고 나가다니요?》

영문모를 일이 아닐수 없었다.

《강변에 있는 광석을 구하러 갔다우. 이런 전쟁때에 그건 구해서 뭘하오. 누가 탐문할것도 아니고 돈 한푼 생길것도 아닌데...》

주인집 로파의 나무람속엔 가족중 그 누구의 주책없는 행동을 탓하는 온정이 느껴졌다.

《그래요?》

순간 나에겐 강변의 그 광석무더기가 떠오르면서 잠이 말끔히 달아났다.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직도 나는 길동무가 어떤 사람인지 딱히 모른다.

내가 알고있는바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조국의 광석들을 채집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을 떠다닌 박식한 사람이라는것뿐이다.

그의 공식직무는 신분증에 밝혀있는바대로 광물 연구사였다.

《삼십년동안 이런 직무에서 일하고있소.》

그외 그는 자기에 대하여 더는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

《삼십년 연구사라.》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실망했었다.

그 어떤 대단한 학자려니 생각되던 길동무가 이런 사람이라니...

삼십년- 이전 긴 세월이다.

내가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인류력사엔 이보다 짧게 영화를 누린 왕조도 있다. 이 기간에 황무지와 폐허로 알려졌던 진펄들에도 인류최대의 문명도시와 공장들이 섰다.

이런 기간을 한 직무에서 아무런 사변도 없이, 그렇다고 싫증도 없이 충실하게 일했다는건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런데 아직 학위 하나 없는 연구사라.)

나는 길동무를 두고 약간 동정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가 매우 무재능한 정력가로만 생각되었기때문이다.

나와 안면있는 학자들은 10년이나 기껏하여 15년동안에 학위를 얻는데 성공했다.

놀랄만큼 재능이 없는 인간이 아닐진대 삼십년동안 아무런 논문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연구사 그대로 있던 말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것을 생각하고있을 때가 아니다. 우선 그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은 나는 의복을 갈아입고 주인집 지게우에 낡아서 구멍이 뚫린 함지를 올려놓아 멘후 강변으로 나갔다. 비오고 바람불며 물결소리 소란한 어둡달인 강변에 이르렀을 때 나는 길동무의 룬곽을 찾아내었다.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광석덩이가 질통밖으로 나와서 등덜미까지를 채운후에도 두세개를 앞가슴에 안고 안전지대인 산밑 둔덕으로 향하군 했다.

나도 지게를 벗어 작다리로 뻗치고 광석들을 주

어답기 시작하였다. 나를 본 그는

《여!》

놀랍다는듯 크게 거의 부르짖다싶이 한마디 하고는

《감기걸리면 어찌자고 나왔나, 영?》 하고 근심하였다.

우리는 날이 밝았을 때에야 광석을 죄다 운반했다.

《임자는 광석이 빛갈고운 꽃송이들로 보인 때가 있나? 나에겐 광석이 처녀들처럼 아름답게 보인대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늙은 풍각쟁이> 같은 놈팽이라고 비웃을는지 모르겠네만 이건 진실이거던.》

돌아오는 길에 그는 피곤도 하련만 원기왕성한 기세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태에 쫓겨 달아나던 메돼지 한마리가 우리앞까지 와서는 재빨리 궁뎅이를 돌리고 달아나려 했다.

《아... 아.》

이 순간 길동무는 환성을 울리며 앞으로 쭉하니 허공 뻗어 메돼지다리를 붙들고 몇바퀴 돌더니 날쌔게 일어나며 둘러맸다가 내던졌다.

이 모든 동작들이 어찌나 빨랐던지 나는 미처 그를 도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정말이지 나의 길동무가 이렇게도 멋진 사람이었던란 말인가.

《너무 놀라질랑은 말게. 이런것쯤은 보통이니까.》

얼굴에서 감탕을 슬슬 문질러내리며 그는 나를 향하여 쾌활하게 웃었다.

이렇게 잡은 메돼지는 러인숙집 로파의 입을 헤벌쭉하니 벌여지게 했다.

《광석 옮기러 간다더니 사냥을 갔드랬구먼. 내원 글썽 믿어지지 않더라니까. 엉뚱들도 하지.》

주인로파는 이웃 군 체신부에 다니는 사위가 오면 주려고 뒤통 소주까지를 꺼내놓으며 여간만 달가와하는것이 아니었다. 한되들이병의 목까지 가득찬 소주를 보자 길동무는 마치 오래전에 잊었던 그림을 보는듯 참지 못하고 환성을 올렸다. 유감스럽게도 그때까지 나는 술을 마시지 못했다. 그리하여 길동무의 술친구로는 될수 없었다.

길동무는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혼자서 마시기 시작했다.

《좋은 친구야...》

하고 얼근히 취기가 돌자 길동무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를 건너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임자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이 무위도식하는 율화증때문에 수명이 감소했을거야.》

나 역시 이 길동무가 아니었다면 부대로 돌아가는 안타까움때문에 수명이 감소되었을것이다.

《나처럼 방랑하는 사람에겐 좋은 벗과 한잔 나눌 기회가 드물거던. 임자는 내가 삼십년연구사라고 실망하네만 난 임자가 좋은 친구로 생각되네. 군인들은 나같은 사람을 <십년병사>라 부른다더구만. 아무렴 어쩐가. 그가 정보로 자기 곁을 걸고있는가가 문제로 되는거지...》

그의 이 말은 유쾌하던 내 기분을 흐리게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사람좋은 길동무에게 사죄하고픈 충동을 누를길 없었다. 그는 우울해진 나를 보자 자신도 정색해졌다.

《이처럼 방랑하노라면 많은 사람들과 안면을 익히고 통성한다네. 하면 그들은 모두가 어째서인지 나를 교수나 원사처럼 알다가는 삼십년연구사라는 걸 알고는 실망을 하거던. 이젠 나를 섭섭하게 하네. 하지만 인젠 습관이 되어서 그런데 신경을 쓰지않지.》

나는 갑자기 코허리가 찡해졌다. 선량한 길동무의 이말속엔 쓰라린 진실이 있었기때문이다.

《나도 이런 떠돌이생활로써가 아니라 다르게 일생을 보낼수도 있었소. 명예와 훌륭한 가정과 서재에 묻혀 교수나 원사가 됐을수도 있었지. 아니면 젊은 시절에 부유한 재산의 소유자로 황금울타리속에서 살수도 있었다네.》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제 삼십년전이구려. 광물전문가가 된 내앞엔 여러가지 출세를 약속하는 길들이 있었소. 하지만 나는 이길 저길 다 거절하고 방랑이란 길을 택했소.》

나는 길동무의 말을 듣고있다. 문밖은 비소리, 바람소리, 강물소리... 장마는 계속되고있다.

×

…졸업론문을 쓰기 위해 굉장히 많은 참고서들을 읽지 않으면 안되었던 졸업생 박상문은 동경의 어느 한 도서관에서 격분으로 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고문헌철을 뒤지다가 일본인장군의 다음과 같은 연설내용을 읽었기 때문이다.

《나의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조선사람들을 마음 놓고 때려라, 그들에겐 땅크도 대포도 없다. 강철이 없는 나라 조선, 그 땅을 우리의 부유한 젖소로 되게 하라.》

도서관원은 그에게 책상을 손상시킨 대가를 치르라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인학생의 피 흐르는 드센 주먹이 부들부들 떠는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슬며시 가버렸다....

…일본인 광물학계의 권위있는 교수가 학부졸업생들에게 최후의 작별강의를 하기 위해 들어왔다.

《제군들이 대일본을 위해 할 일은 너무 많다. 온 아시아가 그대들의 활무대이다. 중국과 조선의 지하보물이 그대들을 정복자에게 대하는 온순한 태도로 맞이할것이다. 그 땅들의 재보가 대일본을 통성케 하도록 제군들이 정력을 다하라. 미개한 조선땅엔 아직 자기네 광물도를 완성한 학자조차 없다. 정복한 땅을 리용할 백방의 가능성을 찾으라. 다시 만 날 때까지 충실한 일본의 아들들이여, 건강하라.》

그런데 그 철면피한 교수는 마지막말을 할수 없었다.

네개의 잉크병이 연단을 향해 날아갔는데 그것은 세사람의 중국인류학생과 한사람의 조선인류학생 박상문의 것이었다....

×

《나의 방랑생활은 조국의 광물도완성에 자기 목적이있었소. 그건 참 고달픈 생활이었소. 산골주막 집치고 나와 안면을 익히지 않은 집은 드물거요. 한 덩어리의 돌을 채집하기 위해 험한 산을 올라야 했고 그 다음날엔 다시 새로운 광상을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 비가 오건, 눈비 오건 새 고장을 찾아 떠났소. 자신의 안락, 사치, 청춘까지를 바치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나는 광상들을 찾지 않으면 안되었소. 젊은 시절의 내 벗들중엔 나와 길동무가 되어

조국의 광물탐색에 일생을 바치려던 좋은 사람들이 많았소.

했지만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다른 길로 떠나갔소. 보다 명성이 높아질 자리와 안락과 사치가 기다리는 자리가 돌덩이수집의 고달픈 행로보다는 그들에게 더욱 매력적이었소.

그들은 몇년간의 방랑생활에서 키워진 수염을 뽑내며 학계와 대학교단들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떠돌아다녔소.

<학계는 내 발의 수고를 알라. 내 발의 공적은 콜럼부스의 공적에 비길만 하다.>

하여 결국 이 멋쟁이연설가들은 개선한 장군들처럼 명성있는 사람들의 좌석에 자기 자리를 마련했소. 나역시 한때는 그들처럼 광석수집의 고된 행군을 그만두려고 했소.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대학강좌들에 일자리를 구할수도 있었고 내 광상도에 거액을 걸며 팔아줄걸 요청한 광주들도 한둘이 아니었소. 돈으로 지은 집에 앉아 학위를 얻은후에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는건 마음끌리는 일이었소. 아름다운 안해, 서재, 화원. 만찬회, 벗들과의 교제-이것은 명절조차 없이 주막집에서 주막집으로 떠돌아치는 생활과는 물론 비길바도 못되었소. 하건만 나는 끝내 이 생활과는 헤어지지 못했소. 나의 약혼녀는 <당신이 탄 느린 마차가 벗어설 종착역> 이 어디 있는가고 마지막 위협편지를 보내왔소. 했을 때 나는 <종지부 찍지 못할 행군길>이란 제목으로 생활의 참된 뜻을 리해 못하는 그 녀인에게 이렇게 썼소.

<안녕히 가시라.>

약혼녀도 결국은 가버렸소. 통속소설이나 녹거리 시인들의 서툰어치 시술밖에 리해 못하는 이 녀인과 나와의 리별은 그때 어느 술주정뱅이 석간신문의 기자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더랬소.

<보기 드문 재산과 놀랄만 한 미인을 저버린 미친사나이> . 이것이 그자의 기사내용이었소. 고민하는 객지의 밤들은 무척 길기도 했소. 뜬눈으로 지새운 밤인들 한두번이었겠소. 당장 모든걸 떠메고 집으로 가고픈 때가 얼마나 많았겠소.

<나만이 이처럼 비싼 값을 치르고 학자의 영예를 지녀야 되는가. 갑이나 울은 무난하게 통과된 논문으로 하여 지금은 당당한 학자로 살고있지 않는

가?>

그러나 이 모든 유혹도 미치광이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나를 이 길에서 끝끝내 떼어내지는 못했소.

(내가 힘들다고 물려서는걸 누가 말아 완성하라. 권력을 지닌자들을 찾아다니며 좋은 인상을 준 덕분에 얻은 명예는 하루밤사이에 구름처럼 날아가지만 자기 땀의 대가로 얻은 재물은 귀중한것이다. 이 귀중한 재물로 나를, 조국을, 형제들을 기쁘게 해주자. 너는 이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정보로 걸어야 한다. 정보로 걸어야 한다.)

그래 친구, 난 지금 계속 이처럼 정보로 걷고있소.

보는바와 같이 나는 해방전에 그야말로 물에 뜬 해파리처럼 이리 달리고 저리 쫓기면서 살아왔소. 허나 해방이 되어 내 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지요.

망국노의 울분만을 가슴에 안고 방랑하던 한 광석수집자에 불과했던 나를 조국은 건국사업으로 불러주었소. 비바람 오랜 세월을 두고 수집하였던 광석들과 미완성 광물도를 꾸려 안고 평양으로 올라갔지요.

미완성품이기는 하지만 나의 광물도는 새 조선자원개발에 도움으로 되었소.

내가 찾아낸 광맥들을 따라 우리의 광산들의 일부가 들어앉고 거기서 캐낸 첫 광석들을 실은 열차가 제철소나 제련소로 갈 때 나는 소리내며 울었소.

막히고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듯 했고 원하고 원하였던 꿈은 한순간에 현실로 되었소.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나같은 무명광물학도의 노력과 애국지성을 분에 넘치게 치하해주시면서 조국의 광물자원도를 완성하라고 두명의 조수까지 보내주시었소.

해방후 5년간 예전에 것처럼 굼뜨게 작성되던 나의 광물도는 완성을 향하여 기운차게 전진하였소.

끝없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지만 나는 피곤 한번 느껴보지 못하였소.

미제침략자들이 도발한 전쟁이 일어나자 두명의 청년조수들은 전선으로 나갔소. 그러나 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전쟁이라 하여 뒤로 미룰수 없었소. 그리하여 전선에서 원쑤 미제와 싸우는 기분으로 조국산야를 탐사하며 이 길을 걷고 또 걷고있소. 나는 지금 전쟁이 승리하는 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 경축의 광장으로 완성된 조국광물도를 안고 달려가는 꿈을 꾸면서 객지의 나그네잠도 행복에 취해 자곤 하오.》

길동무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말을 이었다.

《여보게 친구, 임자는 군인이지. 소위라 구령을 치겠네그러. 지금 나를 향해 구령을 쳐줄수는 없나. 이렇게 말일세.》

길동무는 구령을 치는 늙은 특무장의 시늉을 하고 목대줄을 세우며 주인로파가 놀랄 정도로 소리쳤다.

《앞으로 갓! 정보로 갓! 전렬 킁다리병사는 왜 더디게 걷는가. 하하하, 어쩐가, 비슷하지. 늘창 속으로 이렇게 구령을 내리면 새힘이 솟는다네.》

나는 계속 길동무를 두고 생각에 잠겨졌다. 설레이는 밀림 가을날의 황야, 백토 깔린 오월의 길, 해질녘에 지나는 두메마을의 간이학교마당, 먼지묻은 구두.

정보로, 정보로 그는 걸었으리라.

우리 련대도 사단도 나도 그렇게 정보로 온 조국을 행군하며 원쑤를 쳐부시고있거니, 박상문선생은 우리 련대의 병사일수도 지휘관일수도 있는 전우다.

부디 용서하시라-감시나마 이 철부지청년이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음을...

장마는 계속되었다.

바람소리, 비소리, 그 다음엔 변함없이 소란한 강물소리, 들리느니 우리에게엔 이것이 전부였다.

두메산골을 몇번이고 에돌아흐르는 북천강엔 언제쯤 물이 줄어 나루배가 뜨려나. 종종 사태가 일어나 산이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우리를 놀래웠다.

그날도 역시 류달리 큰 산이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났다.

《아유, 철산이 갈라지누만.》

주인집 로파가 소리난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있다가 담배통을 빨고 앉은 박선생에게 말했다.

《산이름이 철산이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박선생은 정중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글쎄, 누가 알우. 이 고장사람들은 저 산을 모두들 그렇게 부르지요. 내가 시집왔을 때 시아버님 말씀이 옛날 저 산에 철로 지은 백간짜리집이 있어서 불효자나 탄 사내와 눈맞추는 녀자들을 죄다 묶어다가 갇아넣었답니다.》



로파의 말이 끝나자 나는 웃어대기 시작했다.

박선생도 히죽 웃었으나 인차 열중하여 묻기 시작했다.

저 산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 가본 일이 있었는가, 그 산에 금광이나 철광이 있지 않았는가.

《철광이나 금광이라니요. 사람 다닐 길도 없고 범들만 싸다니는 산인데...》

《으음, 그래요.》

박선생은 심각해졌다. 나 역시 박선생이 심각해진 이유를 모르지 않았다.

이 전설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난 시기 자식들과 녀인들을 철저히 효자, 열녀로 교양하자는데 있었다.

하지만 이 산에 철성분이 있는 광맥이 있으리라는것도 추측할수 있게 하는 전설이다.

철로 지은 백간집은 이 전설의 창작자들이 이 산에 매장된 철로 그런 집을 지었으면 하는 녀원일수도 있지않는가.

전설의 혜택으로 금광을 찾아낸 행운아들은 수없이 많다.

《임자 아나?》

갑자기 박선생은 나를 쳐다보며 자기에겐 할 일이 생겼다는 긴장된 빛을 나타내었다.

《나는 빠개진 산을 보기 즐긴다네. 래일 그리로 가보겠네.》

박선생은 이미 결심을 채택한 뒤끝이었다.

이튿날 아침에도 비는 계속 내렸지만 박선생은 산으로 갈 차비를 했다.

번들거리는 탐광용마치를 허리에 찼으며 쌍안경을 목에 걸었고 채집용트렁크엔 수첩과 콤팩스, 색연필, 점심그릇을 넣었고 사진기는 넣었다가 날씨를 고려하여 도로 꺼냈다. 그대신 사냥총은 몇번 망설이더니 장탄하여 케이스에 넣은후 어깨에 메었다.

《저를 데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출발준비를 서둘렀을 때 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더니 아주 쌀쌀하게 거절했다.

《그만두시오.》

그러자 나는 무안해졌다. 이것을 눈치챈 그는 룡비듯이 한마디 했다.

《산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겐 혼자만 다니고싶은 때가있소.》

《제가 선생님을 시끄럽힐가봐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그와 동행하여 기다란 산이 빠개져서 자기의 내부를 드러내놓은것을 보고싶었다. 어쩌면 무생물시대나 원생대시기의 흔적을 그속에서 볼수도 있지않을가.

아니 이걸 있을수조차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유라기나 백악기시대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을가하는 놀랄만한 망상까지 해본 일이었다.

《아니요. 내가 임자와 동행하지 않는것은 그 반대로 생각되기때문이요.》

박선생은 떠났다.

혼자 남게 된 나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강을 건너볼 방책을 생각하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되돌아왔다.

주인로파는 빨리 부대로 돌아가려는 내 초조감을 눈치채고 기분을 돌려줄셈으로 말을 건넸었다.

《임자, 처녀선을 보지 않으려나?》

《처녀선이라니요?》

《정혼할 의사가 없나 말이지.》

나는 한바탕 크게 웃어버렸다.

어둡기 시작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다.

그때까지도 박선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괴롭혔다.

《할머니, 웬일일가요?》

그 역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엔 힘들어했다.

그는 공포의 빛을 나타내고있었다.

바람이 짜리문을 흔들어도 우리는 밖을 내다보며 소리쳐보곤 했다.

두사람은 장마철의 험산에서 있을수 있는 온갖 불길한 징조들을 머리에 그렸으나 그것을 입밖내기를 서로가 저어했다.

무시무시한 처녀림들과 맹수들, 계곡들에 가득차서 사나운 기세로 흘러내리는 시누런 물속에서 박선생은 지금 헤매지나 않을가.

지루한 장마철의 밤은 밝아오기 시작했으나 박선생은 끝내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철산을 향하여 려인숙을 나섰다. 주인로파가 나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것을 배워주었다. 그는 단신으로 범이나 다른 맹수와 맞섰을 경우, 사태를 만난 경우, 계곡의 내물을 건느면서 지켜야 될 사항

등을 대주면서 자기가 천살만 되더라도 동행했을까라고 말하였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꼭 박선생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권총을 품에 지르고 비옷을 쓴후 가죽장화 목으로 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비끄러매었다.

안개와 물소리뿐인 어마어마한 산중으로 길을 따라들어갈수록 나의 시야는 좁아졌다.

나는 철산에 도착하였다. 빠져져서 무너앉은 큰 산의 한부분이 바위와 수림과 뒤범벅이 되어 길위에 펼쳐져있었다. 길이라지만 그건 내가 이름을 붙인데 불과하고 모든 땅은 수풀에 덮였을뿐이었다.

나는 사람의 발자취라고 생각되는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자취만이 외롭게 났을뿐 다른 사람이 다닌 흔적이란 찾아볼 길이 없었다. 우중충하니 솟아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던 산의 신음소리 하나 없는 철산은 자기몸의 일부분이 파헤쳐진 참경을 보이지 않으려고 짙은 안개로 얼굴이며 허리를 감싸고있었다.

나는 산주위와 경사면들을 돌아다녔고 불행한 경우를 생각하여 사태가 새로 생긴 지구들을 찾아 기력이 진해질 때까지 싸다녔다. 못짐승들이 나무뒤에서와 바위쥔들에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서 공중에 대고 공포를 놓기 시작했다.

두번, 세번 혹시 박선생이 사냥총으로 이에 응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내 총성만이 산에서 산으로 울리다가 말이 막혀 되돌아왔을뿐이었다. 점심녘에 나는 박선생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는 절망으로 하여 런발공포를 놓고는 비를 피할수 있는 고목밑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때 꿈에서인양 멀리에서 가냘프게 한방의 총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착각이 아닌가?

기쁨때문에 잠시 눈앞이 아찔해졌던 나는 그 총성이 들려온 철산의 후면경사지로 달음쳐갔다. 바위가 바위위에 굴러떨어져 조각조각이 된 그 험한 경사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박선생을 만날

줄이야.

박선생은 번들거리는 광석들을 한아름 안고 간신히 비를 피할수 있는 흙진 웅덩이에 누워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나는 목이 메어 갈린 음성으로 그를 불렀다.

《고맙네 친구. 이 서툰 광물채집자를 구해주려고 왔군. 바위들이 굴러나며 내 발을 이 꼴로 만들었거든. 허지만 기쁘네. 이걸 보라구.》

박선생은 광석들을 가리키며 웃어보이려고 했으나 얼굴표정은 얼룩진 피로 하여 더욱 처참해보였다.

나는 박선생을 업었다. 그리고 걸으려 했으나 이 거인을 업어나르기엔 내 힘이 당하지 못했다. 나는 비옷을 벗어서 편후 그우에 박선생을 태우고 혁띠로 멜끈을 만든 다음 끌기 시작했다.

《이건 참 죄송하네, 친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임자 아나. 이 철산은 그 이름과는 판판 달라. 동산이야 동산, 난 어제밤 타격으로 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도루 찾았을 때 동광산의 발파소리를 듣는듯 한 환상을 일으켰다네.》

박선생은 그 모진 아픔속에서도 계속 동광이며 철광에 대하여 말하고있었다.

《똑똑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영국의 어느 한 광물학자는 나보다 20년이나 더 살았지만 이런 무진장한 동광맥의 매장지를 못보고 죽었다는 말이야. 지금 그자의 최후저서를 회상하면 코웃음이 쳐지거든.》

《선생님, 이제 담배나 한대 붙여드릴까요.》

그랬으나 그의 말은 달랐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과 건설장들은 이 산의 신세를 지게 될걸세. <보배로운 내 땅> 이란 말은 시인들만 쓰는 말이 아니거든. 그런데 친구, 이제 뭐라구 했지. 그래 그래, 담배나 피우세.》

어두울무렵에 우리는 려인숙이 바라보이는 마을 입구에 들어섰다.

주인집 로파가 문열고 기다리다 맨발로 달려나와 박선생에게 두손을 내밀었다.

《아유, 이걸 어찌누. 온통 상처를 입었소그려.》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옛날부터 착한분을 잡아간 범은 없었지... 자,

어서 들어가세나.》

주인로파가 나의 기진한 힘을 보듬해주었다.

열흘이 지났다. 맑고 푸른 하늘이 계속되었다. 눈 시게 내리비치는 해별은 오래동안 넘쳐나게 물먹은 땅에서 김이 문문 피어오르게 했다.

장마는 끝났다. 인젠 강물이 줄어서 다리는 아직 놓이지 못하더라도 나루배는 뜰수 있게 되었다.

박선생의 상처도 가셔지기 시작했다. 다만 한쪽 발만은 아직 자유롭지 못했다. 굴러내리는 바위에 직통으로 타격을 입은 그 발목은 병원에 가야 치료될상싶었다.

《좋은 친구야, 난 여기에 임자의 이름을 새기려네.》

박선생은 출발에 앞서 자기 사냥총의 반들거리는 자루에 주머니칼로 내 이름을 큼직하게 새겼다.

《여보게, 전쟁이 끝나면 우린 다시 만나겠지.》

《어데서 선생님을 만나게 될가요?》

《글쎄 그것까지 예언할수는 없어. 어쨌든 승리한 조국이 광물자원을 새로 개발하는 곳일거네.》

우리는 무척 정들었다. 그리고 맘씨 착한 주인로파와도 퍼그나 정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작별해야 될날이 왔다.

첫 나루배가 뜬것이다. 주인집 로파는 울었다.

《친절한분네들이였지. 우리 집을 잊지들 말아주.》

《아, 그럼요. 잊다니요.》

우리를 싣고 배는 기슭에서 물러났다.

잘 있으라 할머니여, 그리고 복천강이여.

강을 건느자 우리는 신작로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에 올라타고는 곧장 강계병원으로 갔다.

박선생은 입원했다.

나는 늙고 신경질적인 외과의사를 혼자서 방무했다.

《박선생의 한쪽다리는 불구로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외 달리 될수는 없습니까?》

《...》

의사는 구급환자의 수술준비를 시작하면서 나와는 벌써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리로 나온 나는 주머니의 돈을 죄다 털어서 파

자와 통줄임통을 사들고 작별하기 위하여 입원실로 향하였다. 갑자기 나는 걷다 말고 길가의 나무밑에 앉아서 눈물을 씻기 시작했다.

박상문선생의 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데 또 있으랴.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다.

전쟁이 끝나서 나는 꽃다발과 리봉달린 꽃바구니가 끝없이 흐르는 감격의 거리를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얼마후엔 학업마저 필하였다. 그리고 또 몇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직껏 나는 박선생을 그리워할뿐 행방을 모른다.

옷방 청년들의 계산이 끝났다.

그들은 서류들을 정리하노라 한동안 부산스러웠다.

《사냥이나 가세.》

하고 한 청년이 성과있게 하루일을 끝낸 유쾌한 기분으로 말하더니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이 총의 임자가 동무인가요?》

나는 사냥총을 그에게 내밀면서 물었다.

《이 총의 임자는 박상문원사입니다. 지금 뒤편에 계십니다.》

하고 청년은 손목시계를 힐끔 내려다보고는 덧붙여 말했다.

《인젠 내려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은 건강하신지요. 그리고 한쪽발은 여전히 불구이신가요?》

《매우 건강하십니다. 선생님은 한쪽발을 조국의 광물도완성을 위한 사업에 바쳤지요. 그랬지만 끝내 광물도는 완성하셨습니다. 지금은 원사이며 교수로서 우리 탐사사업을 현지에서 방조하고계십니다.》

청년들은 산으로 떠나갔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마당을 거닐었다.

끝내 그는 정보로 걸어서 자기 행군길의 종점에 왔구나.

내 생애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또다시 만날수 있을가.

(1963)